

다음세대재단

2018 Diversity Korea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2018 Diversity Korea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2019. 1. 31)

연구진

책임연구원 :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공동연구원 : 최기자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보조원 : 유민수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정수빈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 차례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1
(1) 연구의 배경	1
(2) 기존연구 검토	2
2. 연구의 구성 및 조사 방법	3
(1) 문화다양성 척도 및 문항 구성	3
(2) 초등학생 사례연구 - 교육 전후의 문화다양성 인식변화 분석	6
(3) 분석 방법	6

II. 초등학생 사례조사 (1) -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단기 교육의 효과

1. 문항별 조사결과	8
2.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 총점 및 영역별 점수	2
(1) 교육 전후의 차이 비교	2
(2) 독립변인별 문화다양성 감수성 차이 :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03

III. 초등학생 사례조사 (2)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비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의 효과

1. 저학년 (1학년) 조사결과	3
(1)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 : 한국인의 경계/ 외국인 친구 친밀감	3
(2) 인종/민족적 편견과 고정관념	4
(3) 문화다양성과 인권 의식	4
2. 고학년 조사결과	47
(1) 문화다양성 분석	4
(2) 성평등과 인권 의식	6
(3) 인종·민족적 편견 : 형용사 척도(EPA scale) 분석	25

IV.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 - 결과 분석을 통한 시민들의 감수성 분석

1. 조사 개요	59
2. 초등학교 조사결과	61
(1) 문항별 조사결과	6
(2)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 총점 및 영역별 점수	07
3. 일반인 조사결과	74
(1) 문항별 조사결과	7
(2)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 총점 및 영역별 점수	88

V. 문화다양성 교사 연수 프로그램 참여 교사 설문조사

1. 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92
2. 문화다양성 가치·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	9
3.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기대 및 의향	5

VI. 결론

1. 교육 프로그램 효과 분석 (분석결과 요약)	99
(1) 참여집단/ 비교집단 차이 분석	9
(2) 온라인 조사와 초등학교 사례조사 결과 비교	99
2. 향후 개선방안 및 제언	102
(1)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문화다양성 교육	12
(2) 학년별 인지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의 다변화	0
(3) 문화다양성과 인권교육의 시너지 효과 강화	8
(4) 문화다양성 교육의 ‘나비효과’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	3
(5) 문화다양성 교육의 제도적 확장과 교사의 인식 변화	4

참고문헌	105
------------	-----

<부록>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지	6
---------------------------	---

<표 차례>

<표 I-1> 설문지 구성 및 특징	4
<표 I-2 > 온라인 문화다양성 지수의 구성 및 배점 : 2영역과 3요인	5
<표 I-3> 초등학교 사례조사 참여 학교와 학급	6
<표 I-4> 초등학교 사례조사 참여자 - 독립변인별 특성	6
<표 I-5> 초등학생 사례분석 - 진행 과정 및 분석 방법	7
<표 II-1> 문항 1.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8
<표 II-2 > 문항 1.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9
<표 II-3> 문항 2 -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0 1
<표 II-4> 문항 2: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1 1
<표 II-5> 문항 3.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 1
<표 II-6> 문항 3.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2 1
<표 II-7> 문항 4.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3 1
<표 II-8> 문항 4. 성별, 학년별, 접촉 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3 1
<표 II- 9> 문항 5.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5 1
<표 II-10> 문항 5.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6 1
<표 II-11> 문항 6.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7 1
<표 II-12> 문항 6.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8 1
<표 II-13> 문항 7.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9 1
<표 II-14> 문항 7.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0 2
<표 II-15> 문항 8.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 2
<표 II-16> 문항 8.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2 2
<표 II-17> 문항 9.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3 2
<표 II-18> 문항 9.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4 2
<표 II-19> 문항 10.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5 2
<표 II-20> 문항 10.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6 2
<표 II-21>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평균 비교 : 총점/ 영역별/ 요인별	7 2
<표 II-22> 성별, 학년별, 접촉 여부 별 점수 비교 (2차 조사 기준)	0 3
<표 III-1>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인종민족별 응답률 비교	5 3

<표 III-2>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숫자별 비교 : 1차 조사	6· 3
<표 III-3>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숫자별 비교 : 2차 조사	6· 3
<표 III-4>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 - 평균 비교 (참여/비교)	7· 3
<표 III-5>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 - 평균 비교 (성별)	7· 3
<표 III-6> 생일파티에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 - 인종·민족집단별 응답률 비교	8· 3
<표 III-7>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의 수 비교- 1차 조사	9· 3
<표 III-8>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의 수 비교- 2차 조사	9· 3
<표 III-9>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의 수 - 평균 비교	9· 3
<표 III-10>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 수 - 성별 평균비교	0· 4
<표 III-11> 감성적 어의 척도의 구성 - 초등 저학년 설문지	1· 4
<표 III-12> 인종·민족적 편견 - 형용사 척도 : 저학년 1차 조사	2· 4
<표 III-13> 인종·민족적 편견 - 형용사 척도 : 저학년 2차 조사	2· 4
<표 III-14> 문화다양성/ 인권의식의 평균 비교 : 초등 저학년	4· 4
<표 III-15> 문화다양성과 인권의식 : 성별 평균 비교	6· 4
<표 III-16> 문화다양성과 인권의식 : 외국인·다문화 친구 접촉 유무별 평균 비교	6· 4
<표 III-17> 문화다양성: 지식· 태도 - 문항별 평균 비교	8· 4
<표 III-18> 문화다양성: 공감·행동 - 문항별 평균 비교	9· 4
<표 III-19> 성평등과 인권의식 : 문항별 평균 비교	1· 5
<표 III-20> 감성적 어의 척도의 구성 - 초등 고학년 설문지	2· 5
<표 III-21> 인종·민족적 편견 - 형용사 척도 : 고학년 1차 조사	3· 5
<표 III-22> 인종·민족적 편견 - 형용사 척도 : 고학년 1차 조사	3· 5
<표 III-23> 외국인을 길에서 만난다면 (거리감) - 교차표 : 1차 조사	6· 5
<표 III-24> 외국인을 길에서 만난다면 (거리감) - 교차표 : 2차 조사	6· 5
<표 III-25> 외국인을 길에서 만난다면 (거리감) - 성별 교차표 : 2차 조사	7· 5
<표 III-26> 외국인을 길에서 만난다면 (거리감) - 접촉경험 : 2차 조사	8· 5
<표 IV-1>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 : 초등학교 학생 참여자	9· 5
<표 IV-2>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 : 일반 참여자	0· 6
<표 IV-3> 문항 1.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교 학생)	1· 6
<표 IV-4> 문항 2.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교 학생)	2· 6
<표 IV-5> 문항 3.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교 학생)	3· 6

<표 IV-6> 문항 4.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4· 6
<표 IV-7> 문항 5.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4· 6
<표 IV-8> 문항 6.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5· 6
<표 IV-9> 문항 7.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6· 6
<표 IV-10> 문항 8.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7· 6
<표 IV-11> 문항 9.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8· 6
<표 IV-12> 문항 10.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9· 6
<표 IV-13> 총점 및 영역/요인별 점수 : 성별, 학년별, 교육경험 유무	0· 7
<표 IV-14> 문항 1.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4· 7
<표 IV-15> 문항 2.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5· 7
<표 IV-16> 문항 3.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6· 7
<표 IV-17> 문항 4.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7· 7
<표 IV-18> 문항 5.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8· 7
<표 IV-19> 문항 6.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일반인)	9· 7
<표 IV-20> 문항 7.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9· 7
<표 IV-21> 문항 8.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0· 8
<표 IV-22> 문항 9.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1· 8
<표 IV-23> 문항 10.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2· 8
<표 IV-24> 문항 11.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3· 8
<표 IV-25> 문항 12.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4· 8
<표 IV-26> 문항 13.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5· 8
<표 IV-27> 문항 14.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6· 8
<표 IV-28> 문항 15.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7· 8
<표 IV-29>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 총점, 영역별 및 요인별 점수 비교 (일반인)	8· 8
<표 V-1> 전반적인 만족도	2· 9
<표 V-2>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연수 만족도	2· 9
<표 V-3>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연수만족도 : 평균 점수 (5점 척도)	3· 9
<표 V-4>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3· 9
<표 V-5>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 척도 점수	3· 9
<표 V-6> 연수참여 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4· 9

<표 V-7> 연수참여 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척도점수)	4· 9
<표 V-8>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기대, 향후 교육 의향	5· 9
<표 V-9>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기대, 향후 교육 의향 : 척도 점수	5· 9

<그림 차례>

[그림 I-1] 비교 분석의 흐름 (초등학교 사례조사)	7
[그림 II-1] 문항 1.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9
[그림 II-2] 문항 2.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0 1
[그림 II-3] 문항 3 :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2 1
[그림 II-4] 문항 4: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4 1
[그림 II-5] 문항 5.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6 1
[그림 II-6] 문항 6.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8 1
[그림 II-7] 문항 7.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9 1
[그림 II-8] 문항 8.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 2
[그림 II-9] 문항 9 :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4 2
[그림 II-10] 문항 10.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5 2
[그림 II-11] 참여/비교집단의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변화	8 2
[그림 II-12] 문화다양성 지수 - 영역별 점수의 변화 :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8· 2
[그림 II-13] 문화다양성 지수 - 요인별 점수의 변화 :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9· 2
[그림 II-14] 문화다양성 감수성 총점	1 3
[그림 II-15] 문화다양성 감수성 총점	1 3
[그림 II-16] 문화다양성 감수성 총점	1 3
[그림 II-17] 영역별 점수: 성별 비교	2 3
[그림 II-18] 영역별 점수 : 학년별 비교	2 3
[그림 II-19] 영역별 점수: 외국인 친구 접촉 여부	2 3
[그림 II-20] 요인별 점수: 성별 비교	3 3
[그림 II-21] 요인별 점수 : 학년별 비교	3 3
[그림 II-22] 요인별 점수	33
[그림 III-1]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응답률 비교 (단위: %)	5· 3
[그림 III-2]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 - 평균 비교 (참여/비교)	7· 3

[그림 III-3] 생일파티에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 - 인종·민족집단별 비교 (단위: %)	8 3
[그림 III-4]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의 수 - 평균 비교	0 4
[그림 III-5] 저학년 인종·민족 편견 : 참여집단 1차	3 4
[그림 III-6] 저학년 인종·민족 편견 : 비교집단 1차	3 4
[그림 III-7] 저학년 인종·민족 편견 : 참여집단 2차	3 4
[그림 III-8] 저학년 인종·민족 편견 : 비교집단 2차	3 4
[그림 III-9] 문화다양성 - 항목별 평균 비교 : 초등 저학년 (단위: 4점 척도 점수)	5 4
[그림 III-10] 문화다양성: 지식·태도 - 문항별 평균 비교	8 4
[그림 III-11] 문화다양성: 정서와 행동 - 문항별 평균 비교	0 5
[그림 III-12] 성평등과 인권의식 : 문항별 평균 비교	1 5
[그림 III-13] 고학년 인종·민족 편견 : 참여집단 1차	4 5
[그림 III-14] 고학년 인종·민족 편견 : 비교집단 1차	4 5
[그림 III-15] 고학년 인종·민족 편견 : 참여집단 2차	4 5
[그림 III-16] 고학년 인종·민족 편견 : 비교집단 2차	4 5
[그림 IV-1] 온라인 조사 참여자 수 - 월별 (초등학생 조사) (단위: 명)	0 6
[그림 IV-2] 온라인 조사참여자 수 - 월별 (일반 참여자) (단위: 명)	0 6
[그림 IV-3] 문화다양성 감수성 총점 : 성별	1 7
[그림 IV-4] 총점: 교육참여 여부	1 7
[그림 IV-5] 문화다양성 감수성 총점: 학년별	1 7
[그림 IV-6] 문화다양성 감수성- 영역 점수: 성별	2 7
[그림 IV-7] 문화다양성 감수성 - 영역 점수: 학년별	2 7
[그림 IV-8] 영역별 점수 : 교육 참여 여부	27
[그림 IV-9] 요인별 점수: 성별 비교	37
[그림 IV-10] 요인별 점수: 학년별 비교	37
[그림 IV-11] 요인별 점수: 교육참여 여부	37
[그림 IV-12] 총점 : 성별 비교	98
[그림 IV-13] 총점 : 연령별	98
[그림 IV-14] 영역별 점수 : 성별 비교	09
[그림 IV-15] 영역별 점수 : 연령별 비교	09
[그림 IV-16] 요인별 점수 : 성별 비교	19

[그림 IV-17] 요인별 점수 : 연령별 비교	19
[그림 VI-1]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총점 비교 : 참여집단/온라인 조사	01
[그림 VI-2]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영역별 점수 : 참여집단/ 온라인 조사	01
[그림 VI-3]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요인별 점수: 참여집단/온라인 조사	0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배경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학교(공교육)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이러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은 한편으로 지구화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민족·문화적 배경의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다른 한편 사회 내의 다양한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UNESCO를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이 추진되어 왔으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3), OECD PISA에서는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을 미래 교육의 핵심적인 가치로 제시한 바 있다(PISA, 2018).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감수성이 글로벌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창의적 역량의 핵심 가치임을 주목하며, 이를 확산하기 위해 학교(공교육)뿐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 간의 경계를 넘는 파트너십(partnership)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세대재단에서는 교사 연수 및 초등학생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과 민간재단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2019년 1월, 다음세대재단은 구글닷오알지(Google.org)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Diversity Kore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사 연수 및 초등학생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과 민간재단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Diversity Korea 사업은 한국 아동이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세계 각국의 문화다양성 주제(다문화, 인권, 젠더, 소수자, 평화 등)가 담긴 올리볼리 그림동화 콘텐츠(ollybolly.org)를 제공하며, 이를 활용한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사들은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개방적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확산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올리볼리 동화콘텐츠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문화다양성 및 인권·성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학생들의 태도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진단하고, 향후 문화다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기존연구 검토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국제결혼 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다문화 교육’에 연구 및 정책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개념에 기초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인식조사를 위한 척도 개발,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을 분석하고 있다.

민무숙 외(2012)의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진단하였으며, 김미진·정옥분(2010)은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를 다문화 관계형성능력,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의 네 영역으로 조사하였다.

아동에 대한 사례 연구들은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의 효과(정지숙, 2017), 그림책이나 놀이를 이용한 교육의 효과(현은자·박성연, 2003; 정수정·김영식, 2015; 김동한·이윤정, 2015.), 외국문화나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다문화 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조광미·안병환, 2016) 등을 다루고 있다.

서구의 연구에서는 인종·민족적 편견에 초점을 맞추고, 다문화 커리큘럼이 아동의 인종·민족적 편견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지, 그 외 인지발달 요인, 부모 요인, 교사 요인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한다(Perkins & Merbert, 2005). 국내에서도 피부색, 외모,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이나 편견을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김경근(2016)은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척도로 널리 활용되어 온 보가더스 척도를 변형하여 피부색,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초등학교생들이 느끼는 거리감을 조사하였다.

한편 이하령(2007)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활용, 타인종/타민족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를 조사한 바 있다. 형용사의 어감을 활용한 조사는 타인종/타민족이나 소수자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호감 또는 비호감도를 드러내고, 인지적 태도 이전의 정서적 배경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임정수(2015)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쟁점 수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수업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시민성 함양에 갖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4차시의 수업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정서적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임정수, 2015: 76).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문화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시민으로서 적절한 행동 양식을 학습하였지만, 그러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서적인 거리감을 좁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연구의 구성 및 조사 방법

(1) 문화다양성 척도 및 문항 구성

한국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는 세 갈래의 흐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유네스코가 주도해온 세계시민교육의 영향 속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문화이해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한편, ‘다문화 학생’으로 통칭되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교육 안에서 이들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학문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에서 이중언어 교육이나 소수자 문화를 중시하는 다문화 교육 모델도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시민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다문화 교육, 반편견 교육, 인권 교육 등의 개념이 중첩되어 사용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개념적 혼선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한다. 세계시민 교육, 다문화 수용성 등도 매우 유용한 개념이지만 특정한 철학적 정책적 배경을 함축하기 때문에 다소 난해하고 복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동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는 Diversity Korea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문화다양성’이 가장 적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인종/민족적 고정관념에 대한 형용사 척도, 성평등과 인권 인식 항목 등을 포괄하여 설문지를 개발한다. 단,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끔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설문지는 2018년에 개발하여 온라인 조사가 진행 중인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발한 초등학생용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2가지로 대별된다.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는 온라인 조사에 적합하게끔 개발되었으며, 쉽고 간단한 질문에 명목적 척도로 응답할 수 있는 설문이다. 이와 동시에 보다 심층적 분석을 위해 두 가지 영역(문화다양성/ 인권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모두 포괄하였다. 또한 세가지 요인, 즉 정서적 차원(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 또는 편견 여부), 인지적 차원(인종·문화의 다양성 인지), 그리고 행동 차원(반편견 활동,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과 행동의지)을 질문하는 문항들을 배치하였다.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는 초등학생용과 일반인용의 2종이다.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는 2가지 영역 및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체 총점과 영역별 점수, 요인별 점수를 산출하여 집단별로 평균 점수를 비교할 것이다. 일반인용과 초등학생용 모두 총점은 100점 만점, 영역별 점수는 각 50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요인별 점수는 특정한 배점이나 만점 기준은 없으며, 각 문항이 인지/정서/행동에 중복되어 관련될 때 1/2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요인별 점수는 배점에 따른 성취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독립변인별 응답의 차이를 해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감수성 테스트보다 좀 더 심화된 설문들을 포함시켰고, 리커트형 척도(4점 척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통계적인 분석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발하였다. 인식조사 설문지는 초등학생 저학년용과 고학년용 2종으로 구분된다. 보다 상세한 조사 항목 및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 1)

<표 I-1> 설문지 구성 및 특징

구 분		주요 조사 내용	조사 인원	비고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	초등학생용	문화다양성 및 인권의식 (10문항)	온라인 참여자 2,779명 초등 사례조사 218명	
	일반인용	문화다양성 및 인권의식 (15문항)	온라인 참여자 4,017명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초등학생)	저학년용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 인종민족적 편견 문화다양성과 인권의식	초등 사례조사 107명	참여/ 비교집단
	고학년용	문화다양성(지식/태도, 공감/행동) 성평등과 인권의식 인종민족적 편견	초등 사례조사 111명	참여/ 비교집단

1) 온라인 조사 참가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은 4장을 참조.

<표 I-2 > 온라인 문화다양성 지수의 구성 및 배점 : 2영역과 3요인

문항	배점	영역	요인 구분		
			인지 (know)	정서 (care)	행동 (act)
* 일반인 문항 (100점)					
1) 지구상 언어, 종교의 다양성 인지	5	문화다양성	○		
2) 동네 수영장에서 외국인 접촉	10	문화다양성		○	○
3) 문화다양성 확대 정책 찬성 여부	10	문화다양성		○	○
4) 이주민과 난민 증가에 대한 태도	5	문화다양성	○	○	
5) 외국인과의 결혼 (사회적 거리감)	5	문화다양성		○	○
6) 국내 외국인 현실에 대한 인식	5	문화다양성	○		
7) 소수자의 의미 이해	10	인권의식	○		
8) 직장 내 성평등 실천	5	인권의식	○		
9) ‘배리어 프리’ 실천 사례	5	인권의식	○		
10) 일상속의 차별에 대한 인식	10	인권의식	○	○	
11) 소수자 인권 보호 정책 찬성 여부	5	인권의식		○	○
12) 연변/북한 억양 말투에 대한 느낌	10	문화다양성		○	
13)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5	인권의식	○	○	
14) 지하철 몰카장면을 목격했을 때	5	인권의식			○
15) 스마트폰 메시지와 인권	5	인권의식	○	○	
* 초등학생용 문항 (100점)					
1) 놀이터 외국인 어린이 (사회적 거리감)	10	문화다양성		○	○
2) 어른이 되면 외국인 돕고 싶다	10	문화다양성		○	○
3) 우리 학교에 피부색 다른 친구 환영	10	문화다양성		○	
4) 소수자의 의미 이해	10	인권의식	○		
5) 학교에서 장애인친구 만났을 때	10	인권의식			○
6) 일상 속의 차별에 대한 인식	10	인권의식	○	○	
7) 난민 어린이에 대한 공감과 행동	10	문화다양성		○	○
8) 성별 고정관념 인식	10	인권의식	○	○	
9) 피부색이 검은 친구를 놀리는 행동	10	문화다양성			○
10) 교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0	인권의식		○	○

(2) 초등학생 사례연구 - 교육 전후의 문화다양성 인식변화 분석

다음세대 재단의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일정 기간 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학급(5개 학급)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시점에 같은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고,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의미 있는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비교분석을 위해 사례집단과 동일학교 동일 학년의 교육 비(非)참여 학생을 비교 집단(5개 학급)으로 선정하였고, 참여집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시점에 각각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는 학교별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10월, 교육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12월에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을 거친 후 총 218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²⁾

<표 I-3> 초등학교 사례조사 참여 학교와 학급

학교명	학년	참여 집단	비교집단	합계
DB 초등학교	1	24	22	46
JS 초등학교	1	31	30	61
SI 초등학교	5	25	25	50
YR 초등학교	6	10	10	20
SR 초등학교	6	21	20	41
계		111	107	218

<표 I-4> 초등학교 사례조사 참여자 - 독립변인별 특성

성별		학년			다문화/외국인 친구 접촉 경험		합계
여자	남자	1학년	5학년	6학년	있다	없다	
99 45.41%	119 54.84%	107 49.08%	50 22.94%	61 27.98%	144 66.06%	74 33.94%	218 100.00%

(3) 분석 방법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는 명목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교차표를 구성하고 성별, 연령, 학년, 다문화/외국인 친구 접촉 경험 등 독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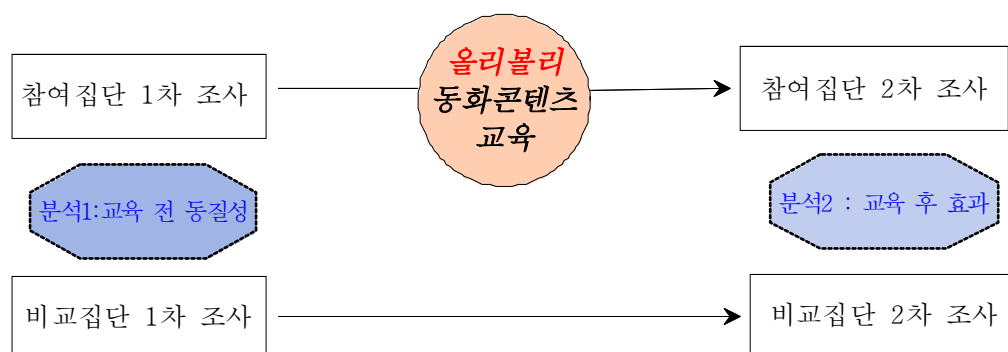
2) 본문의 분석에서는 문항별 무응답에 따라 분석 인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카이스퀘어 χ^2 검증).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는 문항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므로 전체 총점, 영역별 점수, 요인별 점수를 각각 산출할 수 있다. 성별, 학년, 연령 등 독립변인에 따라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평균을 비교하고 그 유의도를 분석하였다(T 검증, F 검증 - ANOVA).³⁾

초등학교 사례조사는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1차 조사/2차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한다. (그림 I-1 참조)

<표 I-5> 초등학생 사례분석 - 진행 과정 및 분석 방법

구분		교육 전 조사 (t_1)	교육 후 조사 (t_2)
참여 집단 (A)	동일학년 교육 받은 학생	- 초등학생용 설문지 (A_1) -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 (2018)	- 초등학생용 설문지 (A_2) -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 (2018)
비교 집단 (B)	동일학년 교육 받지 않은 학생	- 초등학생용 설문지 (B_1) -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 (2018)	- 초등학생용 설문지 (B_2) -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 (2018)
분석		* 분석 1 : A_1 , B_1 조사결과 비교 : 두 집단의 교육 전 동질성 여부 확인	* 분석 2 : A_2 , B_2 조사결과 비교 : t_1 시점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차이가 t_2 시점에서 발견될 경우 -> 교육의 효과로 해석함



[그림 I-1] 비교 분석의 흐름 (초등학교 사례조사)

3) 분석에는 SPSS, STAT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I. 초등학생 사례조사 (1) -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

1. 문항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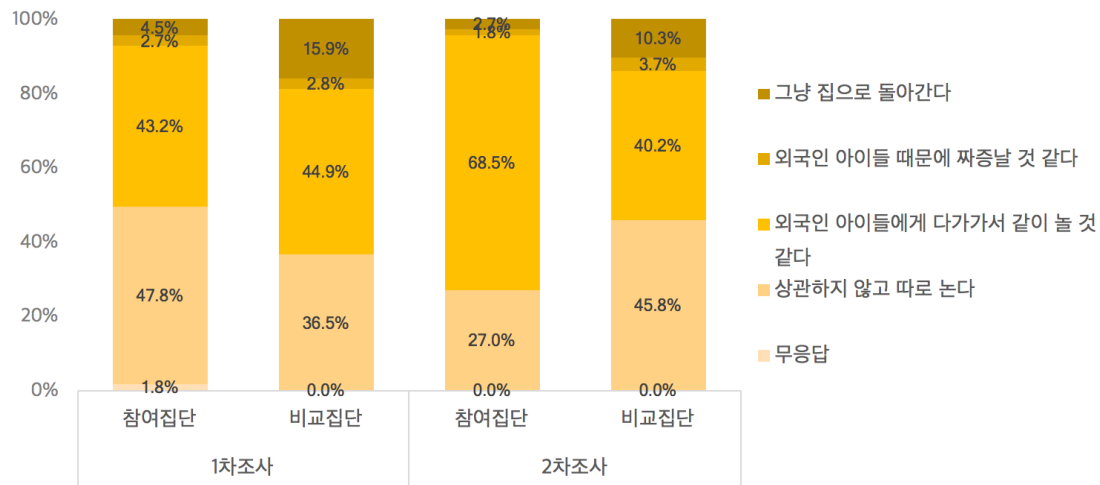
(문 1) 우리 동네 놀이터에 갔더니 처음 보는 외국인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표 II-1> 문항 1.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차			2차		
	참여	비교	합계	참여	비교	합계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5 4.5%	17 15.9%	22 10.1%	3 2.7%	11 10.3%	14 6.4%
외국인 아이들 때문에 짜증날 것 같다	3 2.7%	3 2.8%	6 2.8%	2 1.8%	4 3.7%	6 2.8%
외국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 것 같다	48 43.2%	48 44.9%	96 44.0%	76 68.5%	43 40.2%	119 54.6%
상관하지 않고 따로 논다	53 47.7%	39 36.4%	92 42.2%	30 27.0%	49 45.8%	79 36.2%
무응답	2 1.8%	0 0.0%	2 .9%	0 0.0%	0 0.0%	0 0.0%
계	111 100.0%	107 100.0%	218 100.0%	111 100.0%	107 100.0%	218 100.0%
X^2 (p)	10.606* (.031)			18.892***(.000)		

주) ***: $p > .001$, **: $p > .01$, *: $p > .05$

사전조사(1차 조사)에서 참여집단은 “상관하지 않고 따로 논다”는 답변이 47.7%로 “다가가서 같이 놀 것 같다”는 답변(43.2%)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난 후 2차 조사에서 참여집단은 “상관하지 않고 따로 논다”는 답변은 크게 감소하고 “다가가서 같이 놀 것 같다”는 답변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비교집단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상관하지 않고 따로 논다”는 응답이 36.4%로 참여집단(47.7%)보다 낮았다. 교육 이전인 1차 조사 시점에서 외국인 어린이에게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참여집단이였다. 그런데 2차 조사 결과 참여집단에서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거리감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하지 않고 따로 논다”는 응답은 참여집단이 27.0%로 감소한 반면, 비교 집단은 45.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X^2=18.892^{***}$). 올리블리 동화 콘텐츠 교육이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보다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1] 문항 1.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표 II-2 > 문항 1.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2차 조사 기준)	성별		학년			친구 접촉		합계
	여자	남자	1학년	5학년	6학년	있다	없다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3 3.0%	11 9.2%	5 4.7%	3 6.0%	6 9.8%	7 4.9%	7 9.5%	14 6.4%
외국인 아이들 때문에 짜증날 것 같다	2 2.0%	4 3.4%	4 3.7%	1 2.0%	1 1.6%	3 2.1%	3 4.1%	6 2.8%
외국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 것 같다	56 56.6%	63 52.9%	76 71.0%	21 42.0%	22 36.1%	80 55.6%	39 52.7%	119 54.6%
상관하지 않고 따로 논다	38 38.4%	41 34.5%	22 20.6%	25 50.0%	32 52.5%	54 37.5%	25 33.8%	79 36.2%
계	99 100.0%	119 100.0%	107 100.0%	50 100.0%	61 100.0%	144 100.0%	74 100.0%	218 100.0%
X ² (p)	3.962 (.266)		27.286** (.000)			2.588 (.465)		

주) ***: $p > .001$, **: $p > .01$, *: $p > .05$

외국인과의 거리감이 성별, 학년별, 친구 접촉 경험과 같은 독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독립변인별 차이는 2차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외국인과의 거리감은 학년별 차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학년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친밀성이 높은 데 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밀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올리볼리 동화책이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콘텐츠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되는 고학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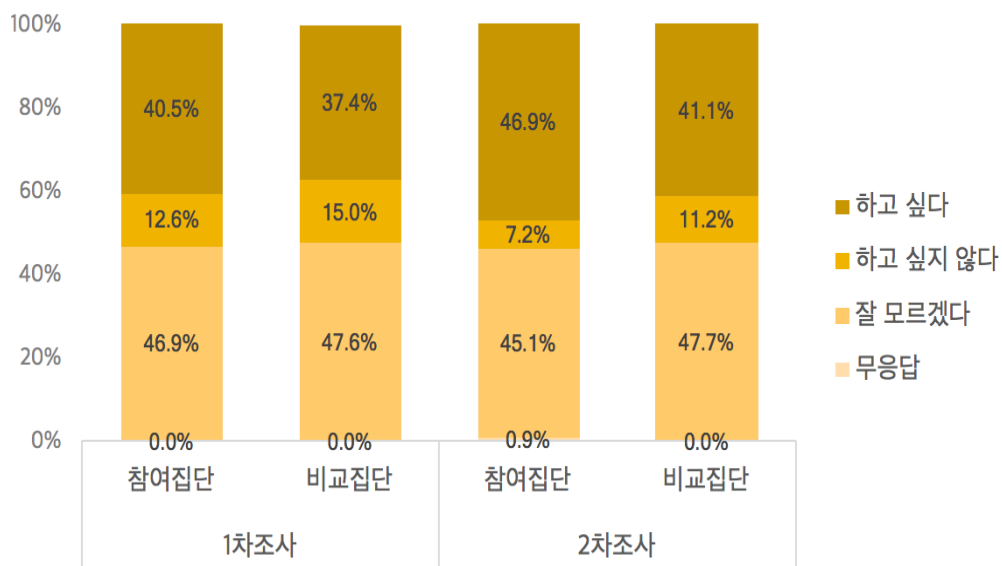
(문 2)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어른이 되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표 II-3> 문항 2 -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차			2차		
	참여	비교	합계	참여	비교	합계
하고 싶다	45 40.5%	40 37.4%	85 39.0%	52 46.9%	44 41.1%	96 44.0%
하고 싶지 않다	14 12.6%	16 15.0%	30 13.8%	8 7.2%	12 11.2%	20 9.2%
잘 모르겠다	52 46.9%	51 47.6%	103 47.3%	50 45.1%	51 47.7%	101 46.3%
무응답	0 0.00%	0 0.00%	0 0.00%	1 0.90%	0 0.00%	1 0.5%
계	111 100.0%	107 100.0%	218 100.0%	111 100.0%	107 100.0%	218 100.0%
X ² (p)	0.3639 (.834)			2.4040 (.493)		

주) ***: p>.001, **: p>.01, *: p>.05

‘어른이 되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문항에 대한 답변은 올리볼리 동화 콘텐츠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집단보다는 참여집단에서 다소 높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II-2] 문항 2.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성별과 학년별, 친구 접촉 여부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봤을 때, 문항2에 대해서는 성별, 학년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4> 문항 2: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2차 조사 기준)	성별		학년			친구 접촉		합계
	여자	남자	1학년	5학년	6학년	있다	없다	
하고 싶다	49 49.5%	47 39.5%	53 49.5%	20 40.0%	23 37.7%	69 47.9%	27 36.5%	96 44.2%
하고 싶지 않다	6 6.1%	14 11.8%	6 5.6%	9 18.0%	5 8.2%	11 7.6%	9 12.2%	20 9.2%
잘 모르겠다	44 44.4%	57 47.9%	47 43.9%	21 42.0%	33 54.1%	63 43.8%	38 51.4%	100 46.1%
무응답	0 0.0%	1 0.8%	1 0.9%	0 0.0%	0 0.0%	1 0.7%	0 0.0%	1 0.5%
계	99 100.0%	119 100.0%	107 100.0%	50 100.0%	61 100.0%	144 100.0%	74 100.0%	218 100.0%
X^2 (p)	4.115(.249)		9.435(.151)			3.664(.300)		

주) ***: $p > .001$, **: $p > .01$, *: $p > .05$

(문 3)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반에 나와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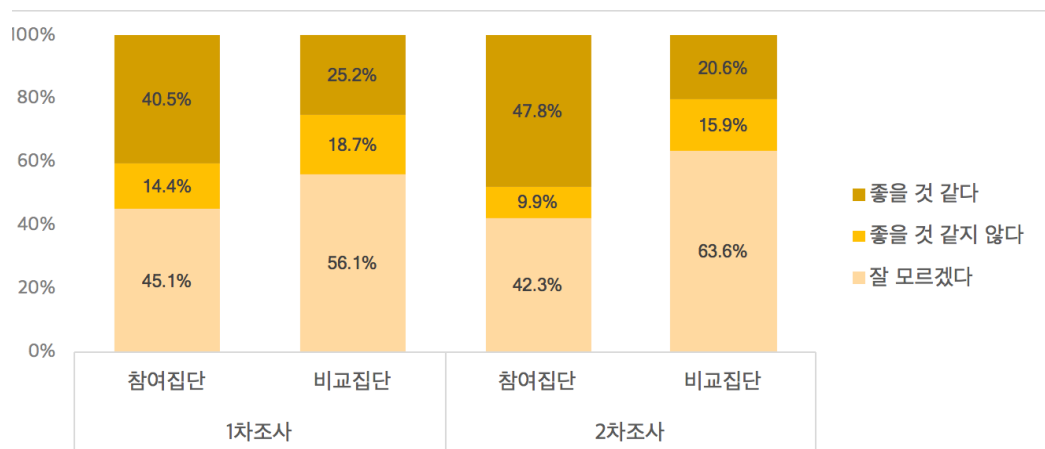
<표 II-5> 문항 3.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차			2차		
	참여	비교	합계	참여	비교	합계
좋을 것 같다	45 40.5%	27 25.2%	72 33.0%	53 47.8%	22 20.6%	75 34.4%
좋을 것 같지 않다	16 14.4%	20 18.7%	36 16.5%	11 9.9%	17 15.9%	28 12.8%
잘 모르겠다	50 45.1%	60 56.1%	110 50.5%	47 42.3%	68 63.6%	115 52.8%
계	111 100.0%	107 100.0%	218 100.0%	111 100.0%	107 100.0%	218 100.0%
X^2 (p)	5.7821 (.056)			17.8665*** (.000)		

주) ***: $p > .001$, **: $p > .01$, *: $p > .05$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을 같은 반 친구로 수용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훨씬 뚜렷하게 확대되었다. ($X^2=17.865^{***}$). 이는 올리볼리 동화콘텐츠 교육이 외국인 친구에 대한 수용성을 긍정적으로 높이는데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실시 후 참여집단은 우리 반에 나와 피부색이 다른 친구가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7.3%나 증가하였으나 비교집단의 경우 오히려 4.6%가 떨어졌다. 또한 “좋을 것 같지 않다”(외국인 친구에 대한 배타성)는 응답이 교육 실시 후 참여집단에서는 4.5% 포인트 감소하여 비교집단의 감소 폭(2.8%)보다 컸다.



[그림 II-3] 문항 3 :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표 II-6> 문항 3.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2차 조사 기준)	성별		학년			친구 접촉		합계
	여자	남자	1학년	5학년	6학년	있다	없다	
좋을 것 같다	34 34.3%	41 34.5%	33 30.8%	17 34.0%	25 41.0%	57 39.6%	18 24.3%	75 34.4%
좋을 것 같지 않다	7 7.1%	21 17.7%	15 14.0%	8 16.0%	5 8.2%	16 11.1%	12 16.2%	28 12.8%
잘 모르겠다	58 58.6%	57 47.9%	59 55.1%	25 50.0%	31 50.8%	71 49.3%	44 59.5%	115 52.8%
계	99 100.0%	119 100.0%	107 100.0%	50 100.0%	61 100.0%	144 100.0%	74 100.0%	218 100.0%
X^2 (p)	5.877(.053)		9.435(.151)			3.664(.300)		

주) ***: $p>.001$, **: $p>.01$, *: $p>.05$

성별, 학년별, 친구 접촉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문항 3에 대한 응답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응답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의견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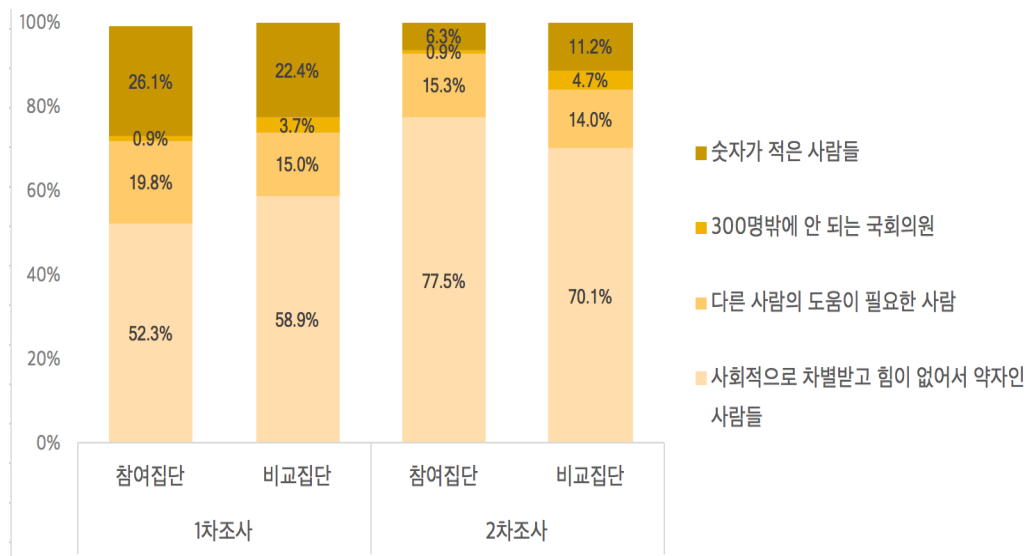
(문 4) 우리는 일상에서 ‘소수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다음 중 소수자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표 II-7> 문항 4.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차			2차		
	참여	비교	합계	참여	비교	합계
숫자가 적은 사람들	29 26.1%	24 22.4%	53 24.3%	7 6.3%	12 11.2%	19 8.7%
300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	1 0.9%	4 3.7%	5 2.3%	1 0.9%	5 4.7%	6 2.8%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2 19.8%	16 15.0%	38 17.4%	17 15.3%	15 14.0%	32 14.7%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힘이 없어서 약자인 사람들	58 52.3%	63 58.9%	121 55.5%	86 77.5%	75 70.1%	161 73.9%
무응답	1 0.9%	0 0.0%	1 0.5%	0 0.0%	0 0.0%	0 0.0%
계	111 100.0%	107 100.0%	218 100.0%	111 100.0%	107 100.0%	218 100.0%
X^2 (p)	4.3537(.360)			4.7872(.188)		

주) ***: $p > .001$, **: $p > .01$, *: $p > .05$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수자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1차 조사에서 소수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55.5%나 됐고 2차 조사에서는 73.9%로 크게 향상되었다.



[그림 II-4] 문항 4: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표 II-8> 문항 4. 성별, 학년별, 접촉 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2차 조사 기준)	성별		학년			친구 접촉		합계
	여자	남자	1학년	5학년	6학년	있다	없다	
숫자가 적은 사람들	6 6.1%	13 10.9%	11 10.3%	2 4.0%	6 9.8%	14 9.7%	5 6.8%	19 8.7%
300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	0 0.0%	6 5.0%	5 4.7%	0 0.0%	1 1.6%	2 1.4%	4 5.4%	6 2.8%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8.1%	24 20.2%	24 22.4%	3 6.0%	5 8.2%	17 11.8%	15 20.3%	32 14.7%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힘이 없어서 약자인 사람들	85 85.9%	76 63.9%	67 62.6%	45 90.0%	49 80.3%	111 77.1%	50 67.6%	161 73.9%
계	99 100.0%	119 100.0%	107 100.0%	50 100.0%	61 100.0%	144 100.0%	74 100.0%	218 100.0%
X ² (p)	15.377**(.002)		17.381**(.008)			6.344(.096)		

주)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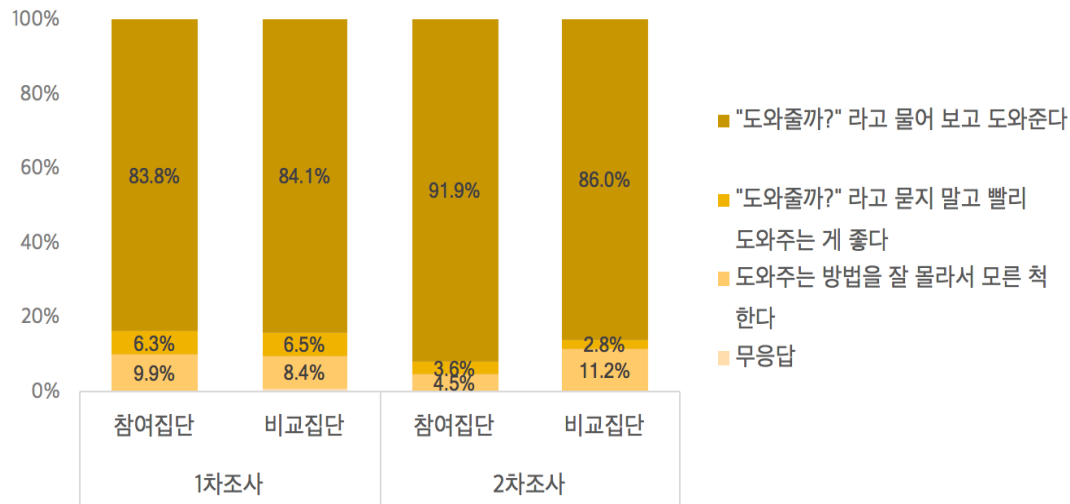
소수자의 의미를 묻는 문항 4에서 성별, 학년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학생(85.9%)이 남학생(63.9%)보다 소수자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학년별 분석에서 고학년에 비해 1학년의 응답이 대체로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는 소수자를 비롯한 인권교육이 중학년(3~4)학년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1학년에게는 아직 생소한 용어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5) 학교에서 장애인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표 II- 9> 문항 5.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차			2차		
	참여	비교	합계	참여	비교	합계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고 도와준다	93 83.8%	90 84.1%	183 83.9%	102 91.9%	92 86.0%	194 89.0%
“도와줄까?” 라고 묻지 말고 빨리 도와주는 게 좋다	7 6.3%	7 6.5%	14 6.4%	4 3.6%	3 2.8%	7 3.2%
도와주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모른 척 한다	11 9.9%	9 8.4%	20 9.2%	5 4.5%	12 11.2%	17 7.8%
무응답	0 0.0%	1 0.9%	1 0.5%	0 0.0%	0 0.0%	0 0.0%
계	111 100.0%	107 100.0%	218 100.0%	111 100.0%	107 100.0%	218 100.0%
X ² (p)	1.1762(.759)			3.4684(.177)		

‘장애인 친구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을 묻는 문항 5에서 1차 조사 시 참여집단은 “도와줄까?라고 물어보고 도와준다”는 응답이 83.8%로 비교집단의 응답(84.1%)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또한 “도와주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모른척 한다”는 답변은 참여집단(9.9%)이 비교집단(8.4%)보다 다소 높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이전인 1차 조사에서 장애인 친구를 존중하는 방식에서 다소 서툰 집단은 참여집단이였다. 하지만 2차 조사 결과 참여집단은 “도와주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모른 척한다”는 응답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물어보고 도와준다”는 응답에서 8.1%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비교집단에서는 “물어보고 도와준다”는 응답이 1.9%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도와주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모른 척한다”는 부정적 태도가 오히려 2.8% 포인트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차 조사에서 두 집단 간 태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리블리 동화 콘텐츠 교육이 상대방, 특히 장애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습득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II-5] 문항 5.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표 II-10> 문항 5.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2차 조사 기준)	성별		학년			친구 접촉		합계
	여자	남자	1학년	5학년	6학년	있다	없다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고 도와준다	93 93.9%	101 84.9%	99 92.5%	43 86.0%	52 85.3%	131 91.0%	63 85.1%	194 89.0%
“도와줄까?” 라고 묻지 말고 빨리 도와주는 게 좋다	2 2.0%	5 4.2%	5 4.7%	1 2.0%	1 1.6%	3 2.1%	4 5.4%	7 3.2%
도와주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모른 척 한다	4 4.0%	13 10.9%	3 2.8%	6 12.0%	8 13.1%	10 6.9%	7 9.5%	17 7.8%
계	99 100.0%	119 100.0%	107 100.0%	50 100.0%	61 100.0%	144 100.0%	74 100.0%	218 100.0%
$X^2 (p)$	4.584(.101)		8.4719(.076)			2.264(.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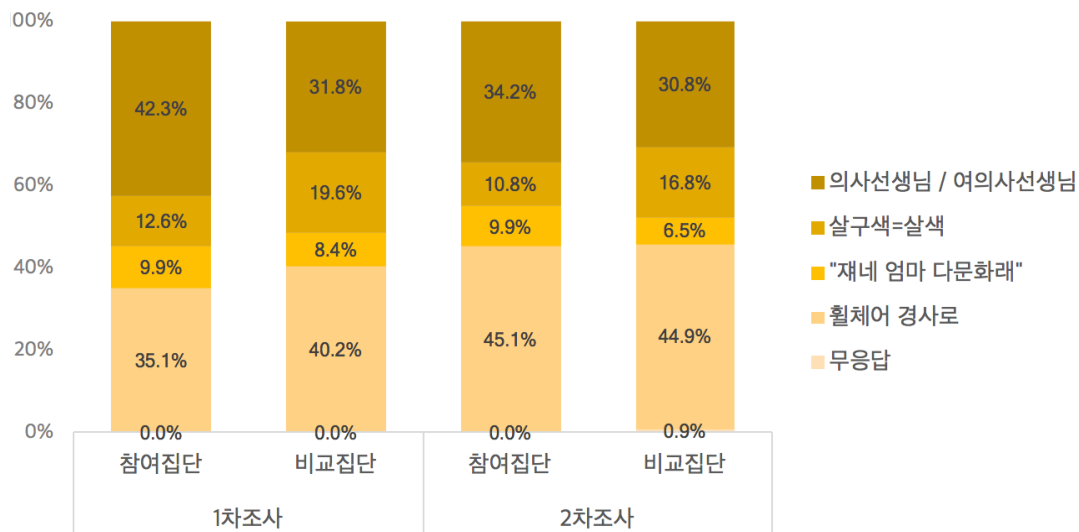
‘장애인 친구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을 묻는 문항 5에서 성별, 학년, 그리고 친구 접촉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돕는 태도를 취하려고 하며, 학년별로는 이런 태도가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문 6) 우리가 자주 하는 말과 행동, 환경 속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차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 중 차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표 II-11> 문항 6.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차			2차		
	참여	비교	합계	참여	비교	합계
의사전생님/여의사전생님	47 42.3%	34 31.8%	81 37.2%	38 34.2%	33 30.8%	71 32.6%
살구색=살색	14 12.6%	21 19.6%	35 16.1%	12 10.8%	18 16.8%	30 13.8%
“재네 엄마 다문화래”	11 9.9%	9 8.4%	20 9.2%	11 9.9%	7 6.5%	18 8.3%
휠체어 경사로	39 35.1%	43 40.2%	82 37.6%	50 45.1%	48 44.9%	98 45.0%
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1 0.9%	1 0.0%
계	111 100.0%	107 100.0%	218 100.0%	111 100.0%	107 100.0%	218 100.0%
X^2 (p)	3.8094(.283)			3.4096(.492)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지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차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1, 2차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차별적인 상황이나 발언을 정확하게 인식한 응답률이 1차 조사에서는 비교집단이 더 높았으나 2차 조사에서는 참여집단이 더 높게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같은 의사인데도 여성에게만 여의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참여집단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이를 성차별로 인식하지 못한 학생이 42.3%였는데 올리블리 동화 콘텐츠 교육 이후 34.2%로 상당히 감소한 점, 즉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상당히 높아진 점도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비교집단의 경우는 1%포인트 감소로 응답률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문화다양성 교육이 인권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때 소수자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II-6] 문항 6.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표 II-12> 문항 6.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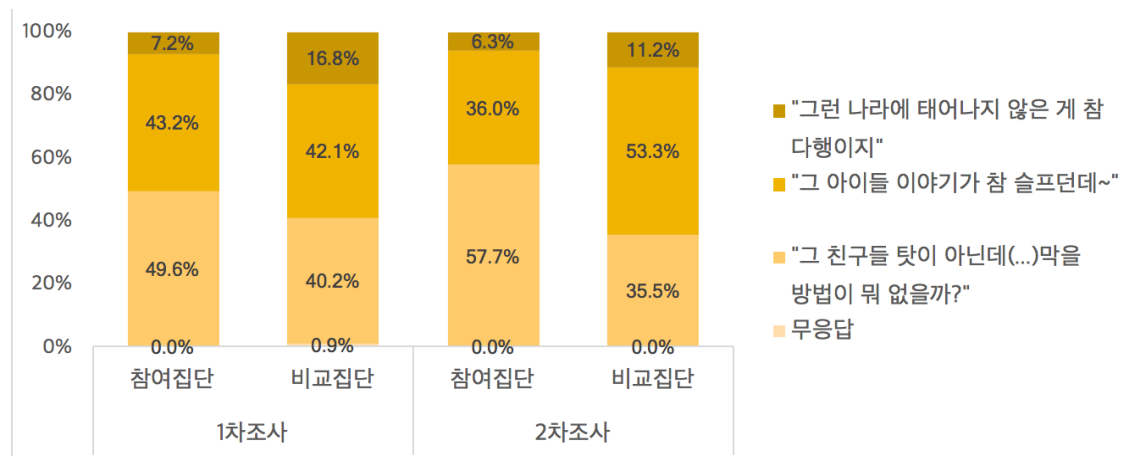
(2차 조사 기준)	성별		학년			친구 접촉		합계
	여자	남자	1학년	5학년	6학년	있다	없다	
의사선생님/ 여의사 선생님	30 30.3%	41 34.5%	32 29.9%	21 42.0%	18 29.5%	52 36.1%	19 25.7%	71 32.6%
살구색=살색	14 14.1%	16 13.5%	30 28.0%	0 0.0%	0 0.0%	14 9.7%	16 21.6%	30 13.8%
"재네 엄마 다문화래"	6 6.1%	12 10.1%	14 13.1%	1 2.0%	3 4.9%	13 9.0%	5 6.8%	18 8.3%
휠체어 경사로	49 50.0%	49 41.2%	30 28.0%	28 56.0%	40 65.6%	65 45.1%	33 44.6%	98 45.0%
무응답	0 0.0%	1 0.8%	1 0.9%	0 0.0%	0 0.0%	0 0.0%	1 1.4%	1 0.5%
계	99 100.0%	119 100.0%	107 100.0%	50 100.0%	61 100.0%	144 100.0%	74 100.0%	218 100.0%
X ² (p)	3.028(.553)		54.085***(.000)			8.9184 (.063)		

성별,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문항 6은 학년별 응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인지발달 수준의 차이로 인해 1학년의 경우 아직 일상에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상황이나 언어에 대해 예민하게 관찰하기보다 문화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따라 피부색도 다양할 수 있음을 배우기보다 아직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익숙한 나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를 차별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중학년 이상(3~4학년)부터 차별을 비롯한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 불리 동화 콘텐츠 교육이 더해지면서 인권 감수성이 더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및 인권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꾸준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문 7) 지구 상 어떤 곳에는 환경오염과 가뭄, 전쟁 때문에 어린이들이 집을 떠나야 하고, 또 배고픔과 가난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관한 책을 읽고 친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나의 생각은 누구와 제일 비슷한가요?

<표 II-13> 문항 7.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차			2차		
	참여	비교	합계	참여	비교	합계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지”	8 7.2%	18 16.8%	26 11.9%	7 6.3%	12 11.2%	19 8.7%
“그 아이들 이야기가 참 슬프던데~”	48 43.2%	45 42.1%	93 42.7%	40 36.0%	57 53.3%	97 44.5%
“그 친구들 탓이 아닌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	55 49.6%	43 40.2%	98 45.0%	64 57.7%	38 35.5%	102 46.8%
무응답	0 0.0%	1 0.9%	1 0.5%	0 0.0%	0 0.0%	0 0.0%
계	111 100.0%	107 100.0%	218 100.0%	111 100.0%	107 100.0%	218 100.0%
X^2 (p)	6.3411(.096)			10.8529**(.004)		



[그림 II-7] 문항 7.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위험과 가난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다른 나라 어린이들에 대한 공감과 지구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확대되었다 ($X^2=10.8529^{**}$). 1차 조사에서 “그 아이들 이야기가 참 슬프던데...”라고 단순히 공감하는 태도는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에서 각각 43.2%와 42.1%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 참여집단(36.0%)과 비교집단

(53.3%)의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올리볼리 동화 콘텐츠 교육을 받은 참여집단의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넘어 지구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해보는 응답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 친구들 탓이 아닌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참여집단의 응답은 1차 조사(49.6%)보다 2차 조사(57.7%)에서 8.1%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반면 비교집단은 40.2%에서 35.5%로 오히려 감소했다. 올리볼리 동화 콘텐츠가 공감을 넘어 행동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표 II-14> 문항 7.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2차 조사 기준)	성별		학년			친구 접촉		합계
	여자	남자	1학년	5학년	6학년	있다	없다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지”	4 4.0%	15 12.6%	11 10.3%	5 10.0%	3 4.9%	11 7.6%	8 10.8%	19 8.7%
“그 아이들 이야기가 참 슬프던데~”	43 43.4%	54 45.4%	44 41.1%	19 38.0%	34 55.7%	58 40.3%	39 52.7%	97 44.5%
“그 친구들 탓이 아닌데(...)막을 방법이 없을까?”	52 52.5%	50 42.0%	52 48.6%	26 52.0%	24 39.3%	75 52.1%	27 36.5%	102 46.8%
계	99 100.0%	119 100.0%	107 100.0%	50 100.0%	61 100.0%	144 100.0%	74 100.0%	218 100.0%
X^2 (p)	5.867(.053)		4.9727(.290)			4.802(.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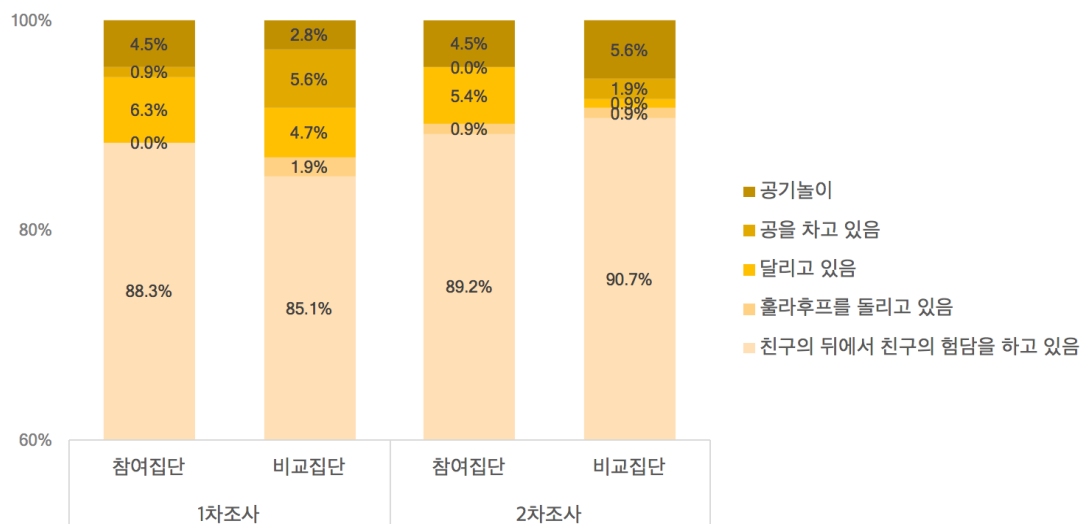
위험과 가난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다른 나라 어린이들에 대한 공감과 지구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 여학생(52.5%)이 남학생(42.0%)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학년이나 외국인/다문화 친구 접촉 경험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문 8) 운동장에 친구들이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말리고 싶은 행동을 하는 친구는 누구인지 표시해 보세요.

<표 II-15> 문항 8.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차			2차		
	참여	비교	합계	참여	비교	합계
공기놀이	5 4.5%	3 2.8%	8 3.7%	5 4.5%	6 5.6%	11 5.1%
공을 차고 있음	1 0.9%	6 5.6%	7 3.2%	0 0.0%	2 1.9%	2 0.9%
달리고 있음	7 6.3%	5 4.7%	12 5.5%	6 5.4%	1 0.9%	7 3.2%
홀라후프를 돌리고 있음	0 0.0%	2 1.9%	2 0.9%	1 0.9%	1 0.9%	2 0.9%
친구의 뒤에서 친구의 험담을 하고 있음	98 88.3%	91 85.1%	189 86.7%	99 89.2%	97 90.7%	196 89.9%
계	111 100.0%	107 100.0%	218 100.0%	111 100.0%	107 100.0%	218 100.0%
X^2 (p)	6.5928(.159)			5.6112(.230)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함께 뛰어놀 때, 남자의 놀이와 여자의 놀이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다른 친구를 놀리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가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8] 문항 8.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표 II-16> 문항 8.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2차 조사 기준)	성별		학년			친구 접촉		합계
	여자	남자	1학년	5학년	6학년	있다	없다	
공기놀이	2 2.0%	9 7.6%	8 7.5%	1 2.0%	2 3.3%	6 4.2%	5 6.8%	11 5.1%
공을 차고 있음	0 0.0%	2 1.7%	1 0.9%	1 2.0%	0 0.0%	1 0.7%	1 1.4%	2 0.9%
달리고 있음	1 1.0%	6 5.0%	7 6.5%	0 0.0%	0 0.0%	6 4.2%	1 1.4%	7 3.2%
홀라후프를 돌리고 있음	0 0.0%	2 1.7%	2 1.9%	0 0.0%	0 0.0%	2 1.4%	0 0.0%	2 0.9%
친구의 뒤에서 친구의 힘담을 하고 있음	96 97.0%	100 84.0%	89 83.2%	48 96.0%	59 96.7%	129 89.6%	67 90.5%	196 89.9%
계	99 100.0%	119 100.0%	107 100.0%	50 100.0%	61 100.0%	144 100.0%	74 100.0%	218 100.0%
X^2 (p)	10.360*(.035)		14.145 (.078)			3.119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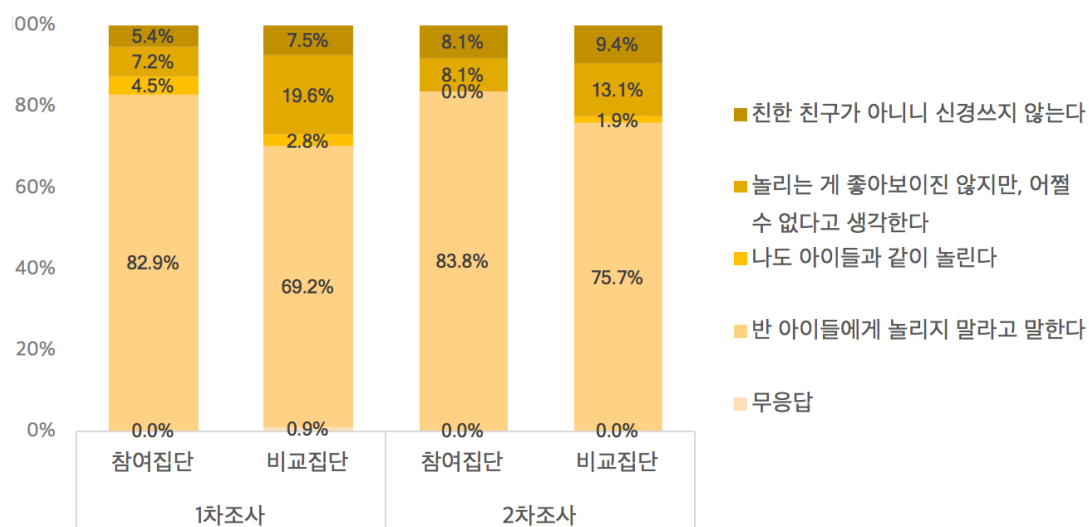
하지만 성별, 학년별, 외국인/다문화 친구 접촉여부 별 응답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크게 벌어졌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X^2=10.360^*$)이었다. 특히 남학생들은 여학생, 남학생이 각각 혼자 공놀이나 홀라후프를 하는 모습보다, 남녀 학생이 함께 공기놀이나 달리기를 하는 그림에 대해 “더 말리고 싶은 행동”이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 남학생들은 남자가 이른바 ‘여성다운’ 놀이를 하는 것, 여자가 이른바 ‘남성다운’ 운동을 하는 것보다 남녀가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을 더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측면이 있다.

(문 9) 어느 날 피부색이 검은 친구가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반 아이들은 “얼굴이 까맣다”며 그 친구를 놀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표 II-17> 문항 9.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차			2차		
	참여	비교	합계	참여	비교	합계
친한 친구가 아니니 신경쓰지 않는다	6 5.4%	8 7.5%	14 6.4%	9 8.1%	10 9.4%	19 8.7%
놀리는 게 좋아보이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8 7.2%	21 19.6%	29 13.3%	9 8.1%	14 13.1%	23 10.6%
나도 아이들과 같이 놀린다	5 4.5%	3 2.8%	8 3.7%	0 0.0%	2 1.9%	2 0.9%
반 아이들에게 놀리지 말라고 말한다	92 82.9%	74 69.2%	166 76.2%	93 83.8%	81 75.7%	174 79.8%
무응답	0 0.0%	1 0.9%	1 0.5%	0 0.0%	0 0.0%	0 0%
계	111 100.0%	107 100.0%	218 100.0%	111 100.0%	107 100.0%	218 100.0%
$X^2 (p)$	9.4949* (.05)			3.8951(.273)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학생을 반 친구들이 놀릴 때 얼마나 적극적인 대응할 것인가를 묻는 문항에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은 1차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참여집단 학생 10명 중 8명은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을 놀리지 말라고 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교집단은 이러한 응답이 10명 중 7명꼴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2차 조사에서는 비교집단 학생들의 적극적 태도가 개선되었고 참여 집단과의 격차도 없어졌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림 II-9] 문항 9 :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표 II-18> 문항 9.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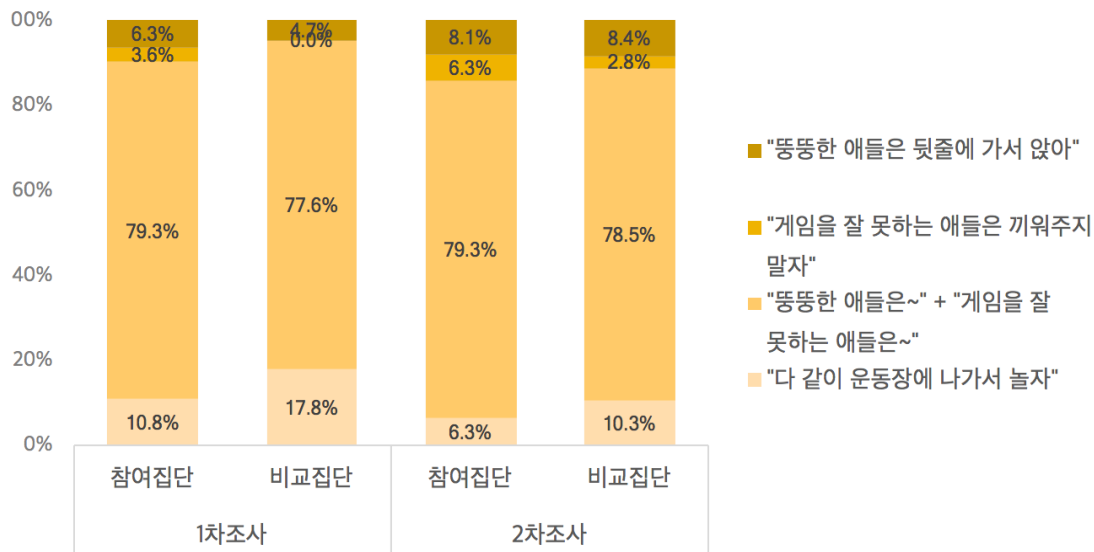
(2차 조사 기준)	성별		학년			친구 접촉		합계
	여자	남자	1학년	5학년	6학년	있다	없다	
친한 친구가 아니니 신경쓰지 않는다	7 7.1%	12 10.1%	5 4.7%	7 14.0%	7 11.5%	13 9.0%	6 8.1%	19 8.7%
놀리는 게 좋아보이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 고 생각한다	9 9.1%	14 11.8%	3 2.8%	8 16.0%	12 19.7%	15 10.4%	8 10.8%	23 10.6%
나도 아이들과 같이 놀린다	0 0.0%	2 1.7%	1 0.9%	0 0.0%	1 1.6%	0 0.0%	2 2.7%	2 0.9%
반 아이들에게 놀리지 말라고 말한다	83 83.8%	91 76.5%	98 91.6%	35 70.0%	41 67.2%	116 80.6%	58 78.4%	174 79.8%
계	99 100.0%	119 100.0%	107 100.0%	50 100.0%	61 100.0%	144 100.0%	74 100.0%	218 100.0%
X^2 (p)	2.961(.398)		20.927** (.002)			3.976(.264)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성별, 학년별, 친구접촉별로 살펴보면, 학년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X^2=20.927^{**}$). 1학년의 경우 “반 아이들에게 놀리지 말라고 말한다”는 적극적 답변이 91.6%로 매우 높지만 5학년(70.0%), 6학년(67.2%)으로 올라갈수록 뚜렷하게 줄어들며, 대신 “신경 쓰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소극적 응답이 1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문 10) 다음 중 함께 공부하는 교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행동)을 한 사람은?

<표 II-19> 문항 10.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1차			2차		
	참여	비교	합계	참여	비교	합계
“똥똥한 애들은 뒷줄에 가서 앉아”	7 6.3%	5 4.7%	12 5.5%	9 8.1%	9 8.4%	18 8.3%
“게임을 잘 못하는 애들은 끼워주지 말자”	4 3.6%	0 0.0%	4 1.8%	7 6.3%	3 2.8%	10 4.6%
“똥똥한 애들은~” + “게임을 잘 못하는 애들은~”	88 79.3%	83 77.6%	171 78.4%	88 79.3%	84 78.5%	172 78.9%
“다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놀자”	12 10.8%	19 17.8%	31 14.2%	7 6.3%	11 10.3%	18 8.3%
계	111 100.0%	107 100.0%	218 100.0%	111 100.0%	107 100.0%	218 100.0%
X ² (p)	5.9888(.112)			2.5094(.474)		



[그림 II-10] 문항 10. 1차 및 2차 조사결과 비교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 10에 대해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참여집단, 비교집단의 다수 학생들이 누군가의 외모를 비웃거나 친구를 따돌리는 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20> 문항 10.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별 응답 차이 (2차 조사 기준)

(2차 조사 기준)	성별		학년			친구 접촉		합계
	여자	남자	1학년	5학년	6학년	있다	없다	
“똥똥한 애들은 뒷줄에 가서 앉아”	5 5.1%	13 10.9%	9 8.4%	4 8.0%	5 8.2%	14 9.7%	4 5.4%	18 8.3%
“게임을 잘 못하는 애들은 끼워주지 말자”	2 2.0%	8 6.7%	8 7.5%	0 0.0%	2 3.3%	6 4.2%	4 5.4%	10 4.6%
“똥똥한 애들은~” + “게임을 잘 못하는 애들은~”	84 84.9%	88 74.0%	85 79.4%	41 82.0%	46 75.4%	112 77.8%	60 81.1%	172 78.9%
“다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놀자”	8 8.1%	10 8.4%	5 4.7%	5 10.0%	8 13.1%	12 8.3%	6 8.1%	18 8.3%
계	99 100.0%	119 100.0%	107 100.0%	50 100.0%	61 100.0%	144 100.0%	74 100.0%	218 100.0%
X^2 (p)	5.684(.128)		8.227(.222)			1.3373(.720)		

이에 대한 성별, 학년별, 친구접촉 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여학생의 84.9%가 언어폭력과 친구를 따돌리는 것 둘 다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학생은 74.0%만 둘 다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2.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 총점 및 영역별 점수

(1) 교육 전후의 차이 비교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는 전체 총점(100점)으로 측정되며, 아울러 영역, 요인별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과 더불어 영역별 요인별 점수(평균 점수)의 구성과 변화를 비교해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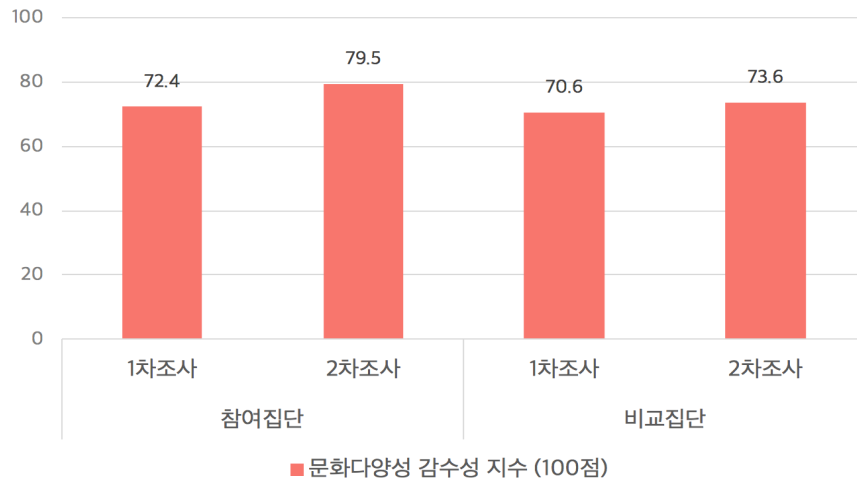
<표 II-21>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평균 비교 : 총점/ 영역별/ 요인별

구분		1차			2차			
		참여	비교	전체	참여	비교	전체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100점)		Mean	72.37	70.58	71.49	79.50	73.56	76.58
		SD	14.25	13.22	13.75	11.72	13.16	12.77
		T	0.9607(.169)			3.5197*** (.000)		
영역 별	문화 다양성 (50점)	Mean	38.00	35.77	36.90	40.49	35.99	38.28
		SD	7.12	8.07	7.67	7.33	7.41	7.69
		T	2.1692* (.016)			4.5037*** (.000)		
	인권 의식 (50점)	Mean	34.37	34.81	34.59	39.01	37.57	38.30
		SD	12.01	11.35	11.66	9.53	9.30	9.42
		T	-0.2802(.610)			1.1277(.130)		
요인 별	인지	Mean	11.40	12.15	11.77	14.46	13.79	14.13
		SD	7.04	6.19	6.63	5.65	5.82	5.73
		T	-0.8376(.798)			0.8677(.193)		
	정서	Mean	28.56	27.41	28.00	30.54	27.87	29.23
		SD	5.42	5.13	5.30	4.82	4.58	4.88
		T	1.6168(.054)			4.1921*** (.000)		
	행동	Mean	32.41	31.02	31.73	34.50	31.91	33.22
		SD	7.10	7.38	7.26	5.90	7.42	6.80
		T	1.4137(.079)			2.8569**(.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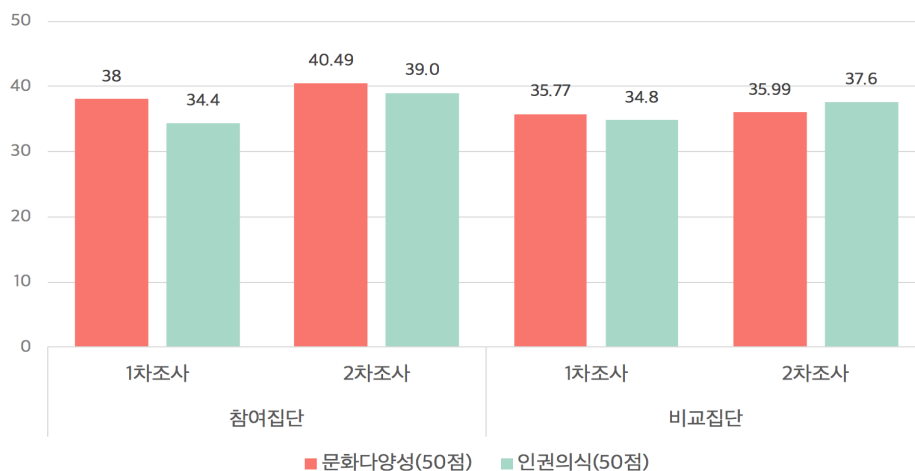
주) ***: $p > .001$, **: $p > .01$, *: $p > .05$

위의 <표 II-21>과 같이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총점은 올리볼리 동화 콘텐츠로 교육을 받은 참여 집단에서 7.13점(72.37→79.50)이 향상되었다. 이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 집단이 2.98점 향상된 것과 상당한 차이로 보인다. 즉, 1차 조사에서는 문화다양성 감수성

총점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참여집단의 점수가 크게 향상됨으로써 2차 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T=3.5197^{***}$)가 나타난 것이다.



[그림 II-11] 참여/비교집단의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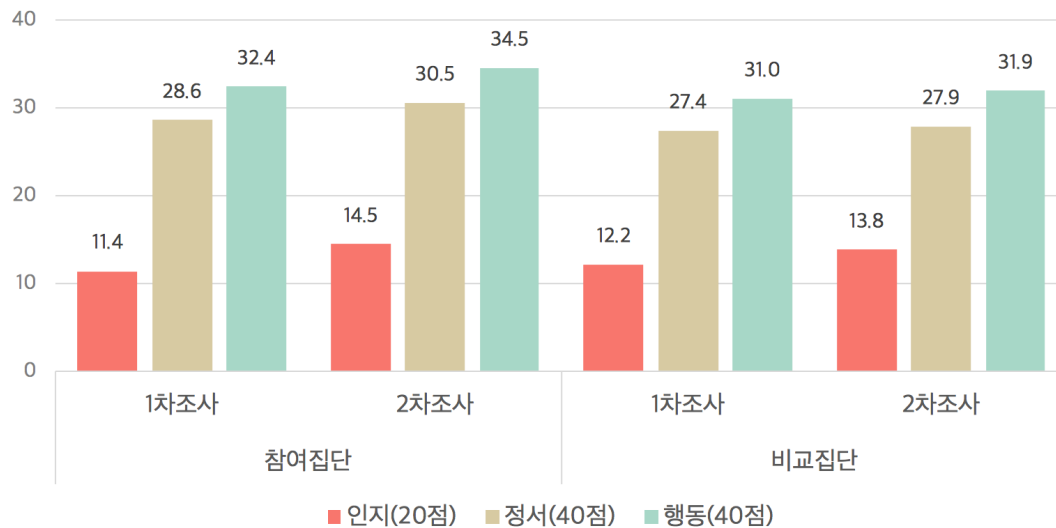


[그림 II-12] 문화다양성 지수 - 영역별 점수의 변화 : 참여집단과 비교 집단

문화다양성 감수성 조사의 문항들은 두 개의 영역, 즉 문화다양성과 인권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역별 평균점수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교육 후 시점인 2차 조사에서 인권의식 영역에서는 두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문화다양성 영역에서는 참여집단의 평균점수가 비교집단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문항을 인지/ 정서/ 행동에 관련되는 요인들로 분류해서 평균점수를 구해본 결과, 2차 조사 결과에 나타난 두 집단 간의 평균 점수 차이는 정서와 행동 요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종합하면,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인권의식보다는 문화다양성 영역에서, 그리고 인지 요인보다는 정서와 행동 요인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13] 문화다양성 지수 - 요인별 점수의 변화 :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2) 독립변인별 문화다양성 감수성 차이 : 성별, 학년별, 접촉여부

교육 효과를 검정하는 것과는 무관하지만,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문화다양성 감수성이 성별, 학년, 외국인이나 다문화 친구 접촉 경험 등 독립변인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차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집단 간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았다(T 검정, 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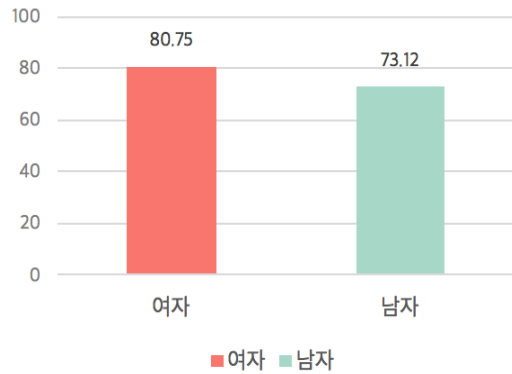
<표 II-22> 성별, 학년별, 접촉 여부 별 점수 비교 (2차 조사 기준)

2차 조사		성별		학년			친구 접촉		
		여자	남자	1학년	5학년	6학년	있다	없다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100점 만점)		Mean	80.75	73.12	75.35	78.36	77.30	77.81	74.19
		SD	10.95	13.18	13.20	12.34	12.31	11.98	13.96
		T/ F	4.5916*** (.000)		1.08(.341)			1.9976* (.024)	
영역별	문 화다양 성 (50점)	Mean	39.28	37.45	39.97	36.96	36.39	39.06	36.76
		SD	7.54	7.74	7.31	7.54	7.92	7.71	7.46
		T/ F	1.7654* (.040)		5.37** (.005)			2.1134* (.018)	
	인 권의식 (50점)	Mean	41.46	35.67	35.37	41.40	40.90	38.75	37.43
		SD	6.97	10.37	8.97	9.04	9.06	9.26	9.73
		T/ F	4.7363*** (.000)		11.14*** (.000)			0.9774(.165)	
요 인별	인지	Mean	15.91	12.65	11.82	16.60	16.15	14.44	13.51
		SD	4.31	6.34	5.76	4.34	5.11	5.68	5.84
		T/ F	4.3516*** (.000)		20.08*** (.000)			1.1359(.129)	
	정서	Mean	30.31	28.33	28.50	29.78	30.07	29.67	28.36
		SD	4.65	4.90	4.88	4.56	5.01	4.65	5.22
		T/ F	3.0326** (.001)		2.46(.088)			1.8861* (.030)	
	행동	Mean	34.53	32.14	35.03	31.98	31.08	33.69	32.31
		SD	5.94	7.29	6.17	6.78	7.11	6.37	7.52
		T/ F	2.6209** (.005)		8.13*** (.000)			1.4263(.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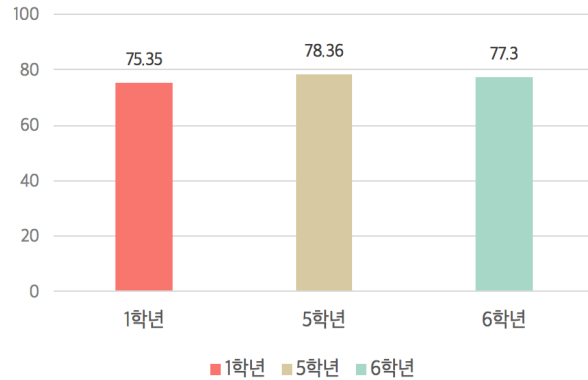
주) ***: $p > .001$, **: $p > .01$, *: $p > .05$

<표 II-22>와 같이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총점은 성별, 친구접촉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의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총점이 남학생보다 7.63점 더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T=4.5916^{***}$). 표준편차도 여학생 집단이 더 낮은데, 이는 여학생들 사이의 의견이 남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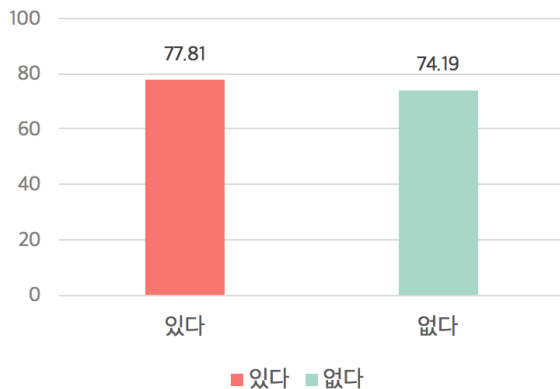
집단보다 더 동질적으로 일치함을 의미한다. 한편, 총점에서는 학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14] 문화다양성 감수성 총점
: 성별 비교



[그림 II-15] 문화다양성 감수성 총점
: 학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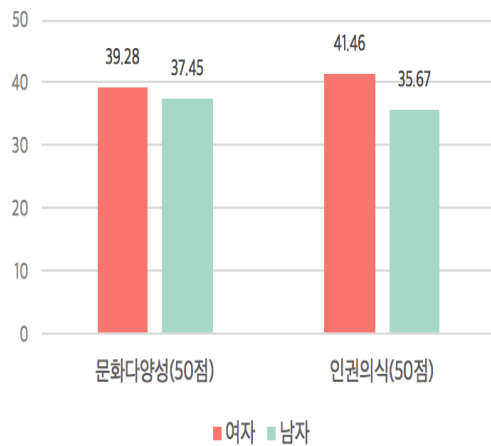


[그림 II-16] 문화다양성 감수성 총점
: 다문화/외국인 친구 접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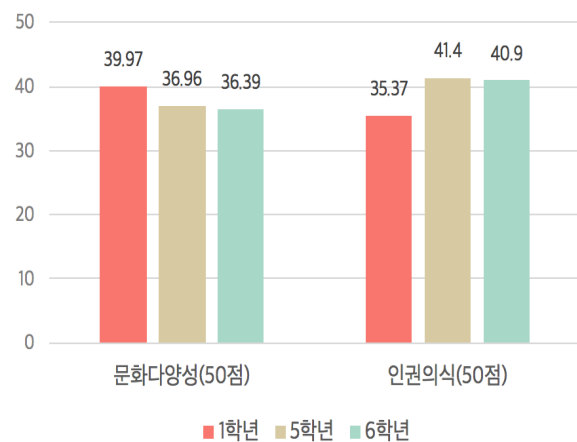
학교나 동네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친구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문화다양성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림 II-16>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외국인 친구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점수가 접촉이 없는 친구보다 3.62점이 높다. 평소 생김새나 문화가 상이한 친구들과 접촉해본 경험이 이들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강화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문화다양성 감수성 조사의 10개 문항들은 두 개의 영역(문화다양성, 인권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역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성별은 두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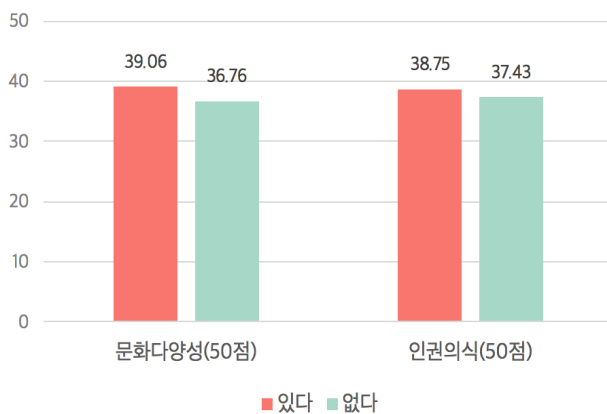
차이를 보여준다. 여학생은 두 영역에서 모두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 문화다양성 영역에서는 여성이 39.28점으로 남성 37.45점보다 1.83점 높았으며, 인권의식 영역에서는 여성(41.46점)이 남성(35.67점)보다 5.79점이 높다. 주목할 점은 여성의 점수가 문화다양성 영역보다 인권의식 영역에서 더 높은 데 반해, 남성은 인권의식 영역보다 문화다양성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는 인권 의식 영역에 성평등이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성평등 의식에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분석된다. 성평등에 관한 태도의 차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II-17] 영역별 점수: 성별 비교



[그림 II-18] 영역별 점수 : 학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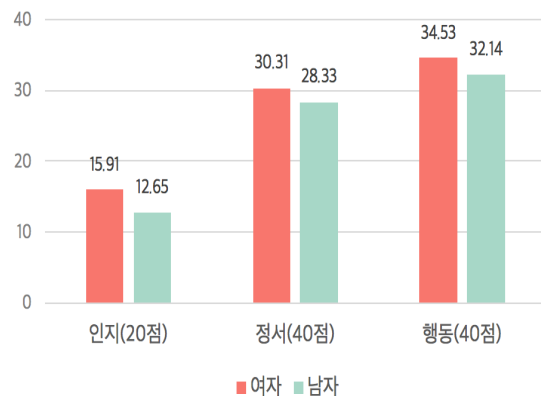


[그림 II-19] 영역별 점수: 외국인 친구 접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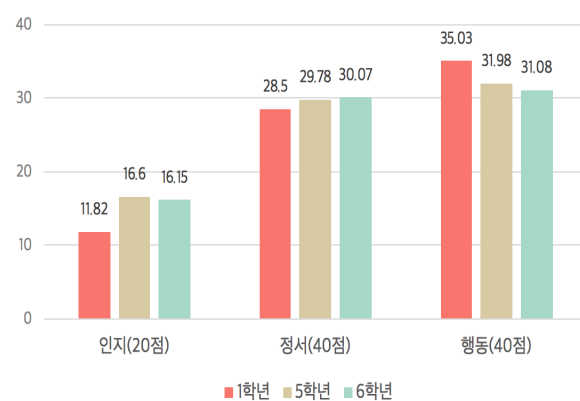
학년별 차이를 보면, 학년이 낮을수록 문화다양성 영역에서 높은 점수가, 학년이 높을수록 인권의식 영역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앞의 문항별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초등 저학년은 외국인이나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낮지만 인권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초등 고학년이 되면 인권의식은 점차 습득하지만 피부색이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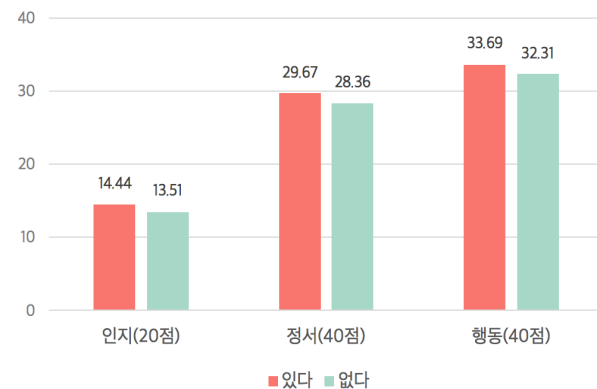
한편, 다문화, 외국인 친구 접촉 여부에 따른 영역별 점수 차이를 보면,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점수가 두 영역 모두에서 다소 높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다.



[그림 II-20] 요인별 점수: 성별 비교



[그림 II-21] 요인별 점수 : 학년별 비교



[그림 II-22] 요인별 점수
: 다문화/외국인 친구 접촉 여부별 비교

각 문항을 인지/정서/행동과 관련되는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해서 평균 점수를 구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세 요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0>에서 보듯이 여성은 인지, 정서, 행동 세 요인 모두에서 남성보다 점수가 높았다.

학년 별로는 인지, 행동의 두 가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구촌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나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행

동 요인의 점수는 1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반면, 다양한 문화나 소수자의 의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수준에서는 고학년의 점수가 높고 저학년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모순적으로 보인다. 즉, 1학년은 행동요인 점수는 높지만 아직 인지 수준이 낮으며, 고학년들은 다문화의 의미나 소수자 인권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다문화, 외국인 친구 접촉 여부에 따라 요인별 점수를 살펴보면, 외국인 친구를 접촉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왔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Ⅲ. 초등학교 사례조사 (2)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비교 분석

1. 저학년 (1학년) 조사결과

(1)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 : 한국인의 경계/ 외국인 친구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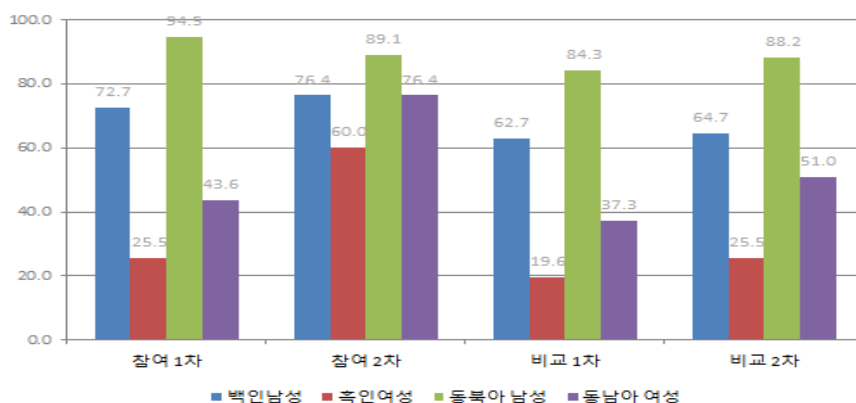
문 1.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음 중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번호를 모두 골라 ○표 하세요.

<표 Ⅲ-1>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인종민족별 응답률 비교

항목	조사 구분	참여집단 (%) (N=55)	비교집단 (%) (N=51)
① 	1차 조사	40 (72.7)	32 (62.7)
	2차 조사	42 (76.4)	33 (64.7)
② 	1차 조사	14 (25.5)	10 (19.6)
	2차 조사	33 (60.0)	13 (25.5)
③ 	1차 조사	52 (94.5)	43 (84.3)
	2차 조사	49 (89.1)	45 (88.2)
④ 	1차 조사	24 (43.6)	19 (37.3)
	2차 조사	42 (76.4)	26 (51.0)

주) 중복응답임



[그림 Ⅲ-1]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응답률 비교 (단위: %)

초등학생들이 피부색, 외모가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 얼마나 거리감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부색과 외모가 다른 네 가지 사진을 제시하고,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제시된 사진 중에서 1학년 학생들이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은 ‘동북아 남성’이다. 1차 조사에서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선택한 순서는 동북아 남성> 백인 남성> 동남아 여성> 흑인 여성의 순이었다.

2차 조사에서는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응답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참여집단의 경우 흑인 여성, 동남아 여성이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났다. 비교집단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지만, 흑인 여성과 동남아 여성을 한국인의 경계 안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참여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강화된다. 피부색이 한국인보다 진한 흑인 여성, 동남아 여성에 대한 거리감이 눈에 띄게 줄어든 변화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2>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숫자별 비교 : 1차 조사

1차 조사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				계	차이 검정
	1명	2명	3명	4명		
참여 집단	13 23.6%	22 40.0%	7 12.7%	13 23.6%	55 100.0%	X ² = 3.247 (.355)
비교 집단	20 39.2%	17 33.3%	6 11.8%	8 15.7%	51 100.0%	
계	33 31.1%	39 36.8%	13 12.3%	21 19.8%	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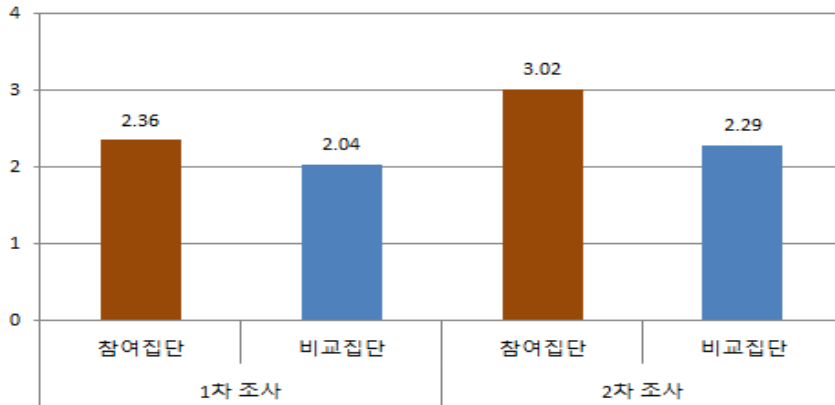
<표 III-3>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숫자별 비교 : 2차 조사

2차 조사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				계	차이 검정
	1명	2명	3명	4명		
참여 집단	6 10.9%	14 25.5%	8 14.5%	27 49.1%	55 100.0%	X ² = 11.436** (.010) df=3
비교 집단	14 27.5%	18 35.3%	9 17.6%	10 19.6%	51 100.0%	
계	20 18.9%	32 30.2%	17 16.0%	37 34.9%	106 100.0%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응답자가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몇 명을 선택하였는지를 살펴보면(표 III-2, III-3), 1차 조사에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참여집단은 선택지로 제시된 외국인 4명 모두가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응답률이 49.4%로 1차 조사(23.6%)보다 2배 늘어났다. 비교집단은 4명 모두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19.6%로 참여집단보다 낮으며, 1차 조사(15.7%)에 비해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다.

<표 III-4>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 - 평균 비교 (참여/비교)

구분		사례 수	평균(단위: 명)	표준편차	T (p)
1차 조사	참여집단	55	2.36	1.095	1.537
	비교집단	51	2.04	1.076	(.127)
2차 조사	참여집단	55	3.02	1.097	3.417**
	비교집단	51	2.29	1.082	(.001)



[그림 III-2]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 - 평균 비교 (참여/비교)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이 한국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한 수의 평균치를 집단별로 비교하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참여집단의 평균은 1차 조사에서는 2.36명, 2차 조사에서는 3.02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비교집단은 2.04명에서 2.29명으로 소폭 증가한다. 즉, 참여집단은 교육 후에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더 늘었고, 2차 조사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T=3.217^{**}$). 즉, 1학년 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한 인종·민족집단을 한국인의 범위 안으로 수용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5>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 - 평균 비교 (성별)

구분		사례 수	평균 (단위: 명)	표준편차	T (p)
1차 조사	여자	47	2.43	1.098	-1.854
	남자	59	2.03	1.066	(.067)
2차 조사	여자	47	2.74	1.132	-.599
	남자	59	2.61	1.160	(.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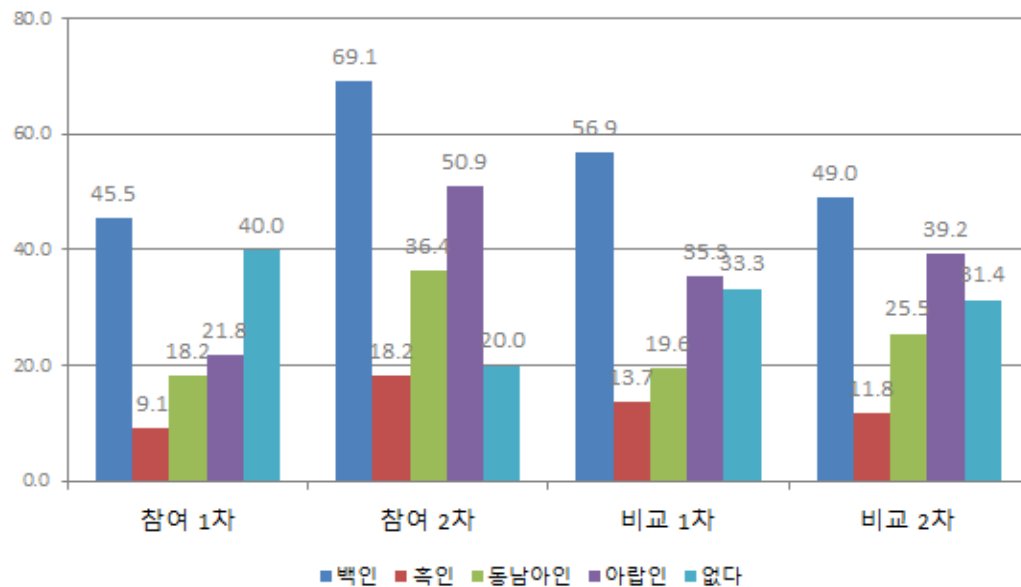
한편,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문 2. 생일파티에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아래에서 모두 골라 ○표 하세요.

<표 III-6> 생일파티에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 - 인종·민족집단별 응답률 비교

항목	조사 구분	참여집단 (%) (N=55)	비교집단 (%) (N=51)
① 	1차 조사	25 (45.5)	29 (56.9)
	2차 조사	37 (67.3)	25 (49.0)
② 	1차 조사	5 (9.1)	7 (13.7)
	2차 조사	10 (18.2)	6 (11.8)
③ 	1차 조사	10 (18.2)	10 (19.6)
	2차 조사	19 (34.5)	12 (23.5)
④ 	1차 조사	12 (21.8)	18 (35.3)
	2차 조사	28 (50.9)	20 (39.2)
⑤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없다	1차 조사	22 (40.0)	17 (33.3)
	2차 조사	11 (20.0)	16 (31.4)

주) 중복응답임



[그림 III-3] 생일파티에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 - 인종·민족집단별 비교 (단위: %)

생일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1학년 학생들의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백인, 흑인, 동남아인, 아랍인의 네 가지 사진과 더불어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없다”는 항목도 제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집단은 백인 어린이였고 그 다음은 아랍인> 동남아인> 흑인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없다는 응답은 1차 조사에서는 33~40% 정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없다”는 비율이 참여집단에서 20%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차 조사 비교집단(31.4%)의 같은 문항 응답률보다 확연히 낮다. 참여집단에서는 사진이 제시된 네 집단 모두에 대해 생일파티에 초대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뚜렷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이 저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인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거리감을 줄이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 III-7>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의 수 비교- 1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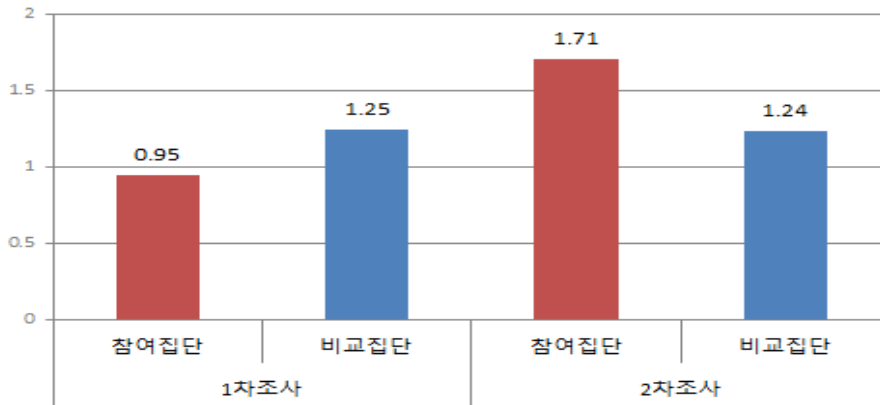
1차 조사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					계	차이 검정
	없다	1명	2명	3명	4명		
참여집단	22 40.0%	22 40.0%	6 10.9%	2 3.6%	3 5.5%	55 100.0%	X ² = 3.469 (.483) df=4
비교집단	17 33.3%	17 33.3%	10 19.6%	1 2.0%	6 11.8%	51 100.0%	
계	39 36.8%	39 36.8%	16 15.1%	3 2.8%	9 8.5%	106 100.0%	

<표 III-8>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의 수 비교- 2차 조사

2차 조사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					계	차이 검정
	없다	1명	2명	3명	4명		
참여집단	11 20.0%	19 34.5%	10 18.2%	5 9.1%	10 18.2%	55 100.0%	X ² = 5.701 (.223) df=4
비교집단	16 31.4%	16 31.4%	13 25.5%	3 5.9%	3 5.9%	51 100.0%	
계	27 25.5%	35 33.0%	23 21.7%	8 7.5%	13 12.3%	106 100.0%	

<표 III-9>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의 수 - 평균 비교

		사례 수	평균 (단위: 명)	표준편차	T (p)
1차조사	참여집단	55	.95	1.079	-1.350
	비교집단	51	1.25	1.278	(.180)
2차조사	참여집단	55	1.71	1.383	1.915
	비교집단	51	1.24	1.142	(.058)



[그림 Ⅲ-4]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의 수 - 평균 비교

생일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외국인 친구를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0명에서 4명까지 응답한 교차표를 통해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을 응답을 살펴보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런데 각 집단별로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의 수 평균을 비교해 보면 2차 조사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1차 조사에서는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의 수가 참여집단에서 오히려 더 적었지만, 2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참여집단의 평균 수가 더 높아진다(참여 1.71명, 비교 1.24명).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하겠다.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 수의 평균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서 여학생들이 외국인 친구에 대한 친밀감에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조사의 경우 이러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외국인 친구 수 - 성별 평균비교

		사례 수	평균 (단위: 명)	표준편차	차이검정 (t)
1차조사	여자	47	1.34	1.221	-1.936
	남자	59	.90	1.125	(.056)
2차조사	여자	47	1.77	1.272	-2.062*
	남자	59	1.25	1.268	(.042)

주) ***: $p > .001$, **: $p > .01$, *: $p > .05$

(2) 인종/민족적 편견과 고정관념

자신과 피부색, 외모가 다른 외국인을 바라보는 특정한 고정관념(stereotype)이나 편견은 아동기부터 부지불식간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나날이 다양화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아기부터 외국인, 외국 문화, 외국 언어 등에 노출되는 경험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출은 단지 양적으로 접촉면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특정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접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해 감성적 의미론에 근거한 형용사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감정조절 이론 (Affect Control Theory)을 주장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문화와 사회를 넘어 상징들의 감성적 의미를 구분하는 공통된 인식틀을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 감정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장 선상에서 형용사를 활용하는 EPA(Emotion Power Action) 척도는 감성, 권력, 영향력의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타민족 타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한다(황정미·이명진 외, 2007). 한국 초등학생들의 인종적 편견을 조사한 고아라(2005)의 연구에서는 형용사 척도를 보다 단순화하여 인상·관심, 성품, 능력의 세 가지 차원으로 측정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감성적 의미분화 척도의 기본틀에 근거하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형용사들을 활용하여 네 가지 인종·민족집단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백인, 흑인, 그리고 동남아시아인, 아랍인의 사진을 제시하고, 각각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똑똑하다-똑똑하지 않다”, “부자이다-가난하다”, “친절하다-친절하지 않다”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태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III-11> 감성적 어의 척도의 구성 - 초등 저학년 설문지

요인 구분	문항	측정
인상/호감도	-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4점 척도
능력/영향력	-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 부자이다/ 가난하다	
성품	-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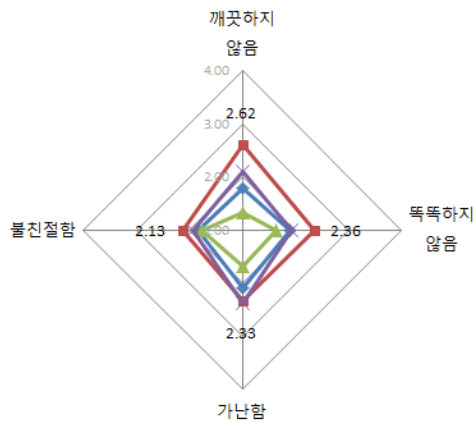
척도 점수 평균값을 기준으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해보면, 1차 조사에서는 동남아시아인의 “똑똑함-똑똑하지 않음”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참여, 비교 두 집단의 편견 양상은 큰 차이가 없다.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 후인 2차 조사에서도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2차 조사에서는 흑인이 “깨끗하지 않다”는 편견이 참여집단에서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표 III-12> 인종·민족적 편견 - 형용사 척도 : 저학년 1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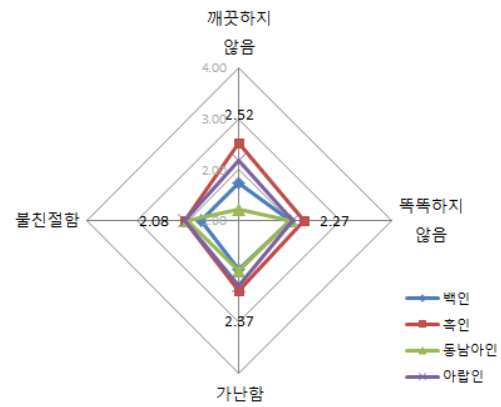
1차 조사	편견 유형	집단 구분				T	p (유의도)
		참여 MEAN (SD)		비교 MEAN (SD)			
백인	깨끗함	1.80	.650	1.75	.868	.370	.712
	똑똑함	1.89	.762	2.00	.894	-.678	.500
	부자/가난	2.09	.701	1.96	.824	.878	.382
	친절함	1.83	.771	2.62	.892	.578	.565
흑인	깨끗함	2.62	.892	2.52	.863	.572	.569
	똑똑함	2.36	.802	2.27	.940	.526	.600
	부자/가난	2.33	.862	2.37	.937	-.259	.796
	친절함	2.13	.891	2.08	.913	.291	.772
동남아인	깨끗함	1.33	.610	1.22	.461	1.056	.293
	똑똑함	1.64	.557	2.00	.748	-2.852**	.005
	부자/가난	1.69	.767	1.98	.927	-1.757	.082
	친절함	1.76	.719	2.02	.969	-1.552	.124
아랍인	깨끗함	2.11	.737	2.18	.910	-.420	.675
	똑똑함	1.91	.559	2.06	.904	-1.039	.301
	부자/가난	2.37	.734	2.29	.986	.451	.653
	친절함	1.94	.795	2.08	.868	-.828	.410

<표 III-13> 인종·민족적 편견 - 형용사 척도 : 저학년 2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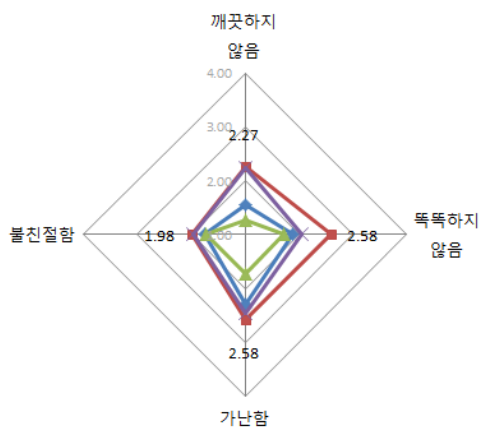
2차 조사	편견 유형	집단 구분				T	p (유의도)
		참여 MEAN (SD)		비교 MEAN (SD)			
백인	깨끗함	1.55	.689	1.71	.642	-1.238	.219
	똑똑함	1.89	1.133	1.80	.601	.488	.626
	부자/가난	2.29	1.696	2.06	.732	.902	.369
	친절함	1.76	.693	1.82	.740	-.430	.668
흑인	깨끗함	2.27	.912	2.71	.832	-2.549*	.012
	똑똑함	2.58	1.729	2.35	.868	.851	.397
	부자/가난	2.58	1.272	2.35	.868	1.074	.285
	친절함	1.98	1.225	2.06	.881	-.369	.713
동남아인	깨끗함	1.27	.560	1.27	.451	-.018	.986
	똑똑함	1.71	1.149	1.76	.710	-.297	.767
	부자/가난	1.73	.651	1.67	.739	.449	.655
	친절함	1.73	.757	2.08	1.309	-1.706	.091
아랍인	깨끗함	2.24	1.276	2.24	.885	.005	.996
	똑똑함	2.04	1.186	2.16	.880	-.590	.556
	부자/가난	2.45	1.288	2.31	.860	.657	.513
	친절함	1.96	.744	2.02	.860	-.359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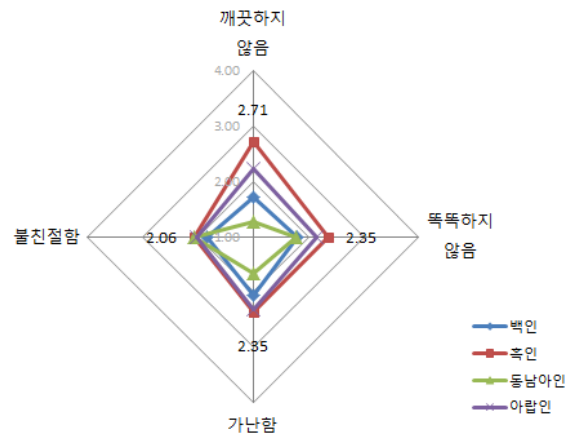
[그림 III-5] 저학년 인종·민족 편견
: 참여집단 1차 조사



[그림 III-6] 저학년 인종·민족 편견
: 비교집단 1차 조사



[그림 III-7] 저학년 인종·민족 편견
: 참여집단 2차 조사



[그림 III-8] 저학년 인종·민족 편견
: 비교집단 2차 조사

형용사 척도의 네 가지 문항 별로 각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의 양상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는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이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그림 III-5, III-6). 네 가지 척도 모두에서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이 가장 낮았고, 반면 흑인에 대한 편견은 모든 문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물론 척도 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2점~3점 사이, 즉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 수준)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인종·민족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타민족 타인종에 대한 편견이 높지는 않지만, 동남아인-백인-아랍인-흑인 순의 위계적 순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차 조사 결과를 보면 (그림 Ⅲ-7, Ⅲ-8) 참여집단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상/호감도(“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한다(2.62-->2.27). 반면 비교집단에서는 이 항목에서 여전히 평균 점수가 높다(2.71). 하지만 이 항목을 제외하면 두 집단 모두에서 여전히 위계적인 인종·민족적 편견의 패턴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참여집단의 편견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저학년 학생들의 태도에서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위계적인 인종·민족적 편견의 패턴 자체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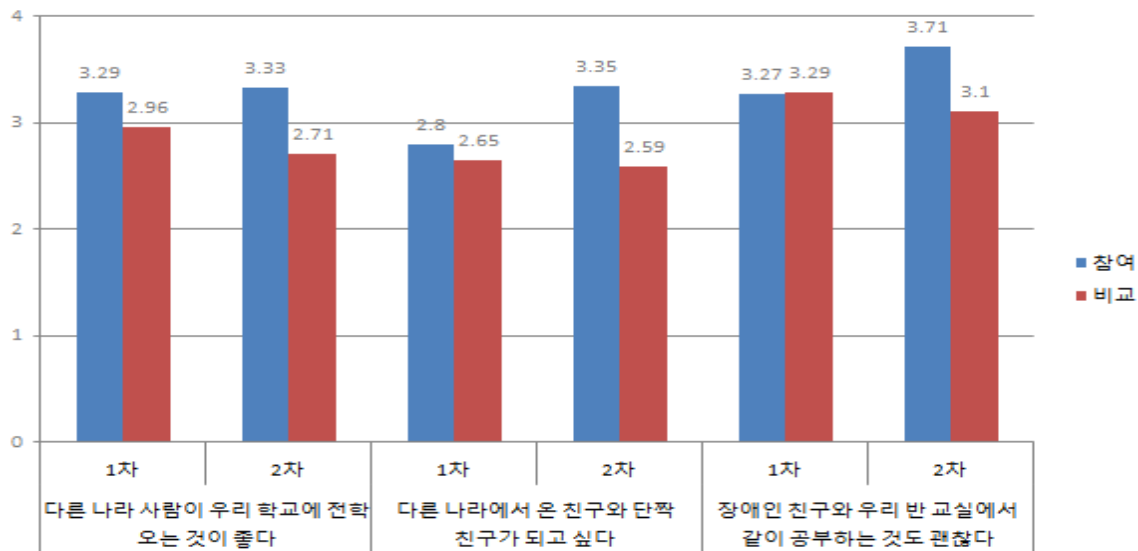
(3) 문화다양성과 인권의식

문화다양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성평등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태도를 각각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제시된 문항에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1차 조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외국인 친구를 전학생이나 단짝 친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참여집단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도 2차 조사에서는 참여집단의 응답이 비교집단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프로그램이 저학년 학생들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Ⅲ-14> 문화다양성/ 인권의식의 평균 비교 : 초등 저학년

구분	문항	조사 구분	참여집단 평균(표준편차)		비교집단 평균(표준편차)		차이 검정 (T)
문화 다양성 인식	7. 나는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1차	3.51	.663	3.55	.783	-.284
		2차	3.62	1.009	3.53	.784	.503
	8. 학교에서 다른 나라의 명절, 기념 일, 축제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다.	1차	3.25	.865	3.10	1.025	.852
		2차	3.24	1.201	2.84	1.138	1.727
	9.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학교에 전학 오는 것이 좋다.	1차	3.29	.956	2.96	.958	1.774
		2차	3.33	.862	2.71	.944	3.542 **
성평등 인식	10.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가 우리 반 회장이 되면 좋겠다.	1차	2.65	.966	2.59	1.117	.328
		2차	2.82	1.020	2.51	1.027	1.550
	11.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와 단짝 친구가 되고 싶다.	1차	2.80	1.061	2.65	1.110	.725
		2차	3.35	1.635	2.59	1.152	2.736 **
	12. 요리는 여자가 하는 것이 좋다.	1차	2.62	1.225	2.63	1.166	-.040
		2차	2.22	1.117	2.55	1.238	-1.446
장애인 인권	13. 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1차	1.98	1.472	2.24	1.176	-.975
		2차	1.95	1.520	1.92	1.230	.088
장애인 인권	14. 장애인 친구와 우리 반 교실에 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1차	3.27	.971	3.29	.923	-.116
		2차	3.71	1.012	3.10	1.044	3.058 **

주) **: p>.001, *: p>.01, .: p>.05



[그림 III-9] 문화다양성 - 항목별 평균 비교 : 초등 저학년 (단위: 4점 척도 점수)

초등학생들의 문화다양성과 인권의식이 성별, 외국인·다문화 친구와의 접촉 경험과 같은 독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독립변인별 평균 차이는 2차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문화다양성, 장애인 인권 항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별 고정관념은 남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남성 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기준이 성별에 따라 달리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III-15)

외국인이나 다문화 배경의 친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문화다양성이나 장애인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전학생을 환영하고 또 이들과 단짝 친구가 되고 싶다는 포용적 의견은 외국인·다문화 친구와 접촉해본 경험이 이미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소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또한 장애인 친구를 수용하려는 태도 또한 외국인 친구 접촉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평소 외국인 다문화 친구와 접촉해본 경험은 자신과 다른 친구들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피부색이나 언어, 문화가 다른 친구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문화다양성도 긍정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접촉 경험은 성평등 관련 항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III-16).

<표 III-15> 문화다양성과 인권의식 : 성별 평균 비교

구분	문항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정 T (p)
문화다양 성	7. 나는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여자	47	3.53	.718	-.441 (.660)
		남자	59	3.61	1.034	
	8. 학교에서 다른 나라의 명절, 기념일, 축제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다.	여자	47	3.28	.877	1.802 (.074)
		남자	59	2.86	1.358	
	9.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학교에 전학 오는 것이 좋다.	여자	47	3.06	.845	.342 (.733)
		남자	59	3.00	1.034	
	10.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가 우리 반 회장이 되면 좋겠다.	여자	47	2.79	1.020	1.048 (.297)
		남자	59	2.58	1.037	
	11.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와 단짝 친구가 되고 싶다.	여자	47	3.17	1.291	1.187 (.238)
		남자	59	2.83	1.588	
성평등 인식	12. 요리는 여자가 하는 것이 좋다.	여자	47	2.26	1.242	-.948 (.346)
		남자	59	2.47	1.135	
	13. 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여자	47	1.60	1.014	-2.294* (.024)
		남자	59	2.20	1.573	
장애인 인권	14. 장애인 친구와 우리 반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여자	47	3.38	.922	-.275 (.784)
		남자	59	3.44	1.178	

주) ** : $p > .001$, * : $p > .01$, * : $p > .05$

<표 III-16> 문화다양성과 인권의식 : 외국인·다문화 친구 접촉 유무별 평균 비교

구분	문항	친구 접촉	N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정 T (p)
문화다양 성	7. 나는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있다	57	3.67	.988	1.121 (.265)
		없다	49	3.47	.793	
	8. 학교에서 다른 나라의 명절, 기념일, 축제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다.	있다	57	3.25	1.243	1.886 (.062)
		없다	49	2.82	1.074	
	9.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학교에 전학 오는 것이 좋다.	있다	57	3.28	.861	3.036* (.003)
		없다	49	2.73	.974	
	10.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가 우리 반 회장이 되면 좋겠다.	있다	57	2.81	1.025	1.487 (.140)
		없다	49	2.51	1.023	
	11.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와 단짝 친구가 되고 싶다.	있다	57	3.26	1.664	2.172* (.032)
		없다	49	2.65	1.128	
성평등 인식	12. 요리는 여자가 하는 것이 좋다.	있다	57	2.35	1.217	-.247 (.805)
		없다	49	2.41	1.153	
	13. 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있다	57	1.84	1.473	-.736 (.463)
		없다	49	2.04	1.274	
장애인 인권	14. 장애인 친구와 우리 반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있다	57	3.68	1.020	2.895** (.005)
		없다	49	3.10	1.046	

2. 고학년 조사결과

(1) 문화다양성 분석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은 인지발달이나 어휘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학년 설문지는 문항이나 척도 등을 좀 더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다양성을 측정하는 10개의 항목을 지식·태도 영역, 공감·행동 영역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고학년 조사는 척도를 활용한 분석이 많기 때문에 척도 점수를 통일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다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표현이 문화다양성에 반대하는 내용, 즉 역문항일 경우 점수를 리코딩하였다.⁴⁾

가. 문화다양성 (1) : 지식·태도 문항

문화다양성 중 지식(인지)과 태도에 관한 5가지 문항의 조사결과를 보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 다양한 문화의 가치,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등에서 평균 점수는 4.5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이었다. 이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문화다양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 반해 가장 문화다양성이 낮은 것은 ‘자문화 중심성’ 항목이다.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믿음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국민국가 혹은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민족동질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다른 한편 자민족 중심성이 강할수록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이나 거부감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차이를 존중하는 감수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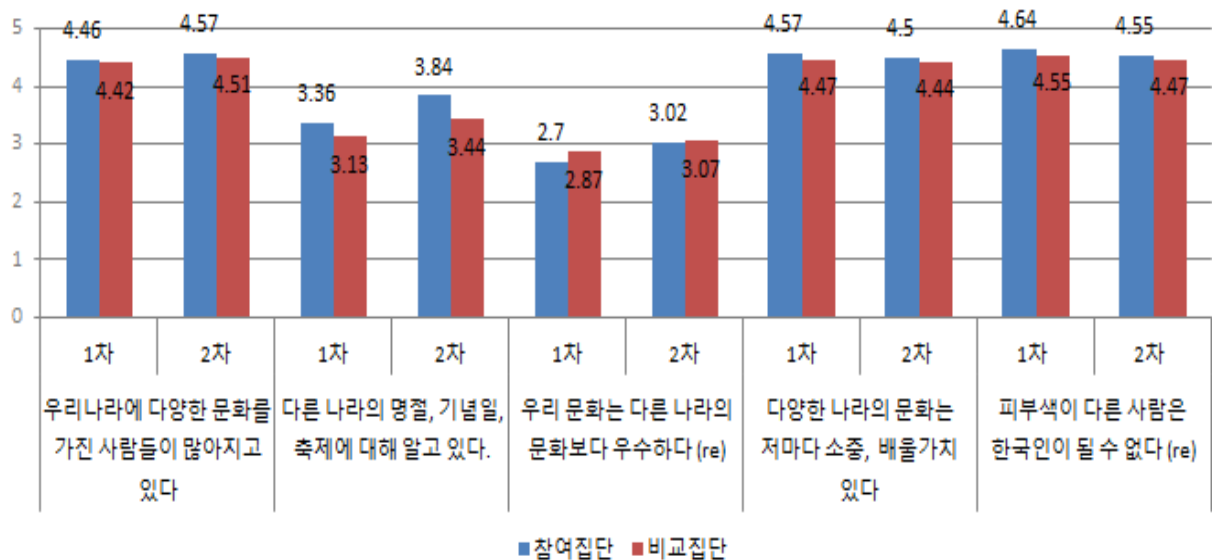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다른 나라의 명절, 기념일, 축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에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참여집단(3.84)이 비교집단(3.44)보다 뚜렷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 문화나 명절, 기념일에 관한 정보에 더 많이 접하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4) 즉, 문항 내용이 문화 다양성에 반대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역문항(re)임을 표시하였고, 점수는 높을수록 문화다양성 인식이 더 높아지도록 통일하였다.

<표 III-17> 문화다양성: 지식·태도 - 문항별 평균 비교

문항	조사 구분	참여집단 (N=56) mean (SD)	비교집단 (N=55) mean (SD)	차이 검정 (T)
1.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차 조사	4.46 .571	4.42 .686	.385
	2차 조사	4.57 .568	4.51 .742	.498
2. 나는 다른 나라의 명절, 기념일, 축제에 대해 알고 있다.	1차 조사	3.36 .962	3.13 1.019	1.222
	2차 조사	3.84 .910	3.44 1.067	2.141 *
3.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의 문 화보다 더 우수하다. (역문항)	1차 조사	2.70 .971	2.87 1.001	-.942
	2차 조사	3.02 1.036	3.07 1.168	-.262
4. 다양한 나라의 문화는 저마다 소 중하기 때문에 배울만한 가치가 있 다.	1차 조사	4.57 .628	4.47 .634	.824
	2차 조사	4.50 .714	4.44 .714	.470
5. 피부색이 다른 사람은 한국인이 될 수 없다. (역문항)	1차 조사	4.64 .773	4.55 .741	.678
	2차 조사	4.55 .807	4.47 .858	.512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III-10] 문화다양성: 지식·태도 - 문항별 평균 비교

나. 문화다양성 (2) : 공감·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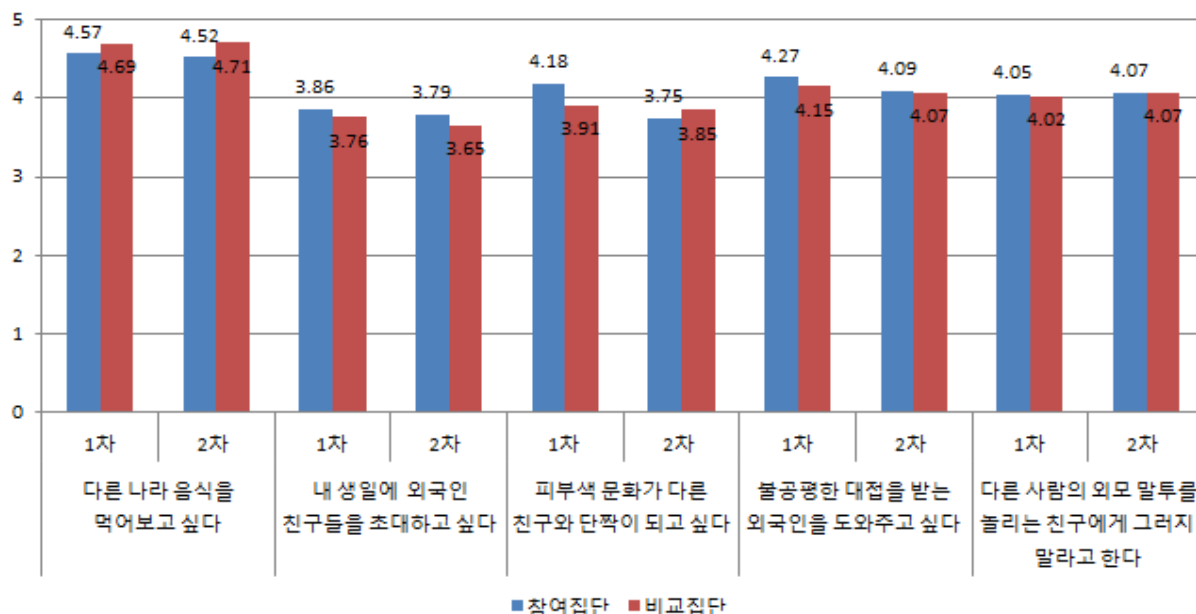
정서적 공감, 외국인과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행동 및 실천에 관한 항목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뚜렷한 태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을 돕거나 외모를 이유로 친구들을 놀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 행동(실천)에 대한 항목도 평균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외국인 친구를 생일에 초대하거나 외국인과 단짝 친구가 되고 싶다는 문항에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문항별 분석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타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 이들을 도우려는 실천이나 행동의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참여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에서 음식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 문화다양성 점수가 조금 낮아지는 결과가 관찰된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연령에서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개입보다는 인터넷이나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표 III-18> 문화다양성: 공감·행동 - 문항별 평균 비교

문항	조사 구분	참여 집단 (N=56) mean (SD)		비교 집단 (N=55) mean (SD)		차이 검정 (T)
10.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1차 조사	4.57	0.710	4.69	0.505	-1.020
	2차 조사	4.52	0.831	4.71	0.567	-1.414
11. 내 생일에 문화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	1차 조사	3.86	0.999	3.76	1.071	.476
	2차 조사	3.79	1.039	3.65	1.126	.638
12. 피부색이나 문화가 다른 친구와 단짝 친구가 되고 싶다.	1차 조사	4.18	1.114	3.91	0.967	1.360
	2차 조사	3.75	0.977	3.85	0.989	-.560
13.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외국인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1차 조사	4.27	0.774	4.15	0.826	.806
	2차 조사	4.09	0.769	4.07	0.879	.106
14. 우리 반에 다른 사람의 외모나 말투를 흉보고 놀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1차 조사	4.05	0.980	4.02	0.805	.208
	2차 조사	4.07	0.850	4.07	0.858	-.008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III-11] 문화다양성: 정서와 행동 - 문항별 평균 비교

(2) 성평등과 인권인식

응답자들의 성별 고정관념은 4.3 ~ 4.6 정도의 평균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성평등 인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야구나 축구 등 “주로 남성들이 한다”고 여겨지는 운동을 하는 것은 여자답지 못하다거나, 요리는 여자가 해야 한다는 등의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에서 초등학생들은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 다만 “남자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즉 남성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고정관념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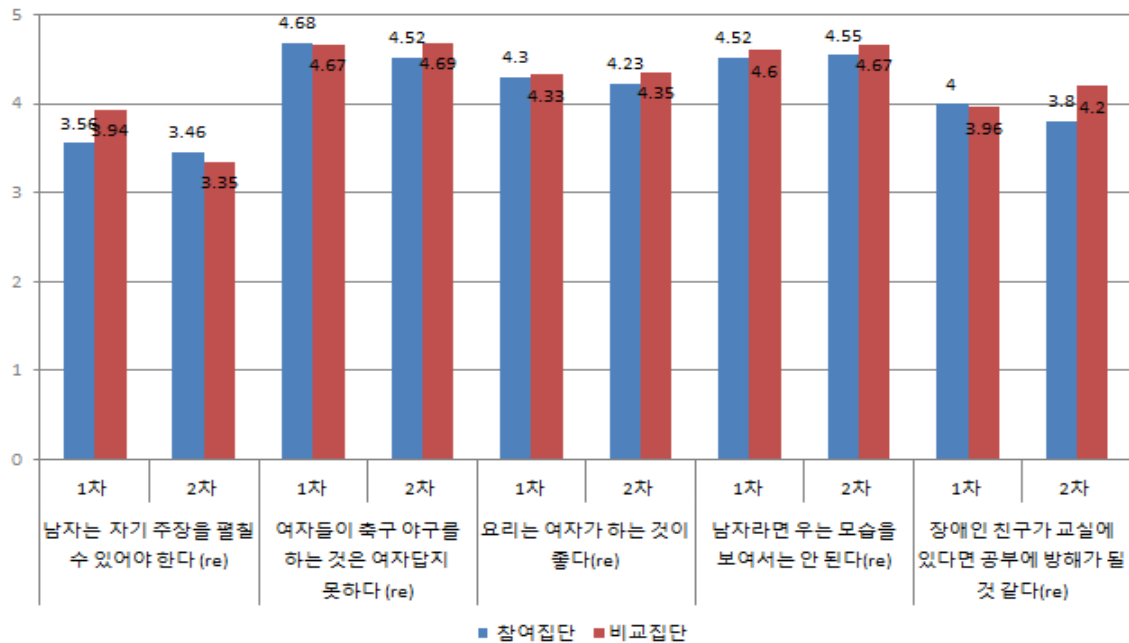
장애인 친구를 포용하는 태도도 평균 4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지만, 성평등 인식에 비하면 장애인 인권 인식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1차 조사에서는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차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집단의 평균 점수에서 통계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남자는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장애인 인권 문항에서는 오히려 2차 조사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하는 추세도 관찰된다.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에 비해 문화다양성 관련 수업이 인식변화로 직접 이어지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 III-19> 성평등과 인권의식 : 문항별 평균 비교

	조사 구분	참여 집단 (N=56) (표준편차)		비교집단 (N=55) (표준편차)		차이 검정 (T)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기 보다는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역문항)	1차 조사	3.56	1.146	3.94	1.298	-1.540
	2차 조사	3.46	1.348	3.35	1.468	.444
여자들이 축구나 야구를 하는 것은 여자답지 못하다. (역문항)	1차 조사	4.68	0.716	4.67	0.640	.045
	2차 조사	4.52	0.831	4.69	0.635	-1.231
요리는 여자가 하는 것이 좋다. (역 문항)	1차 조사	4.30	1.077	4.33	0.862	-.128
	2차 조사	4.23	0.934	4.35	1.058	-.598
남자라면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역문항)	1차 조사	4.52	1.009	4.60	0.760	-.484
	2차 조사	4.55	0.761	4.67	0.668	-.876
장애인 친구가 우리 교실에 있다면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다. (역문항)	1차 조사	4.00	1.095	3.96	1.105	.174
	2차 조사	3.80	1.069	4.20	1.043	-1.977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III-12] 성평등과 인권의식 : 문항별 평균 비교

(3) 인종·민족적 편견 : 형용사 척도(EPA scale) 분석

자신과 피부색, 외모가 다른 외국인을 바라보는 특정한 고정관념(stereotype)이나 편견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학년 설문조사에서도 저학년에 사용한 것과 유사한 형용사 척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 아랍인 등 모두 네 가지 사진을 제시한 것은 저학년 설문지와 동일하다.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똑똑하다-똑똑하지 않다”, “부자이다-가난하다”, “친절하다-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평화적이다-폭력적이다”를 묻는 항목을 더하여 모두 5가지 형용사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섯 가지 항목은 인상/호감도, 능력/영향력, 성품/행동의 세 가지 요인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정서, 능력, 행동이라는 EPA (emotion, power, action) 척도의 세 가지 요인에 기초한 것이다.

<표 III-20> 감성적 어의 척도의 구성 - 초등 고학년 설문지

요인 구분	문항	측정
인상/호감도	-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5점 척도
능력/영향력	-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 부자이다/ 가난하다	
성품/행동	-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 평화적이다/ 폭력적이다	

먼저 각 문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1차 조사 결과 <표 III-21>과 같이 5점 척도에서 평균값은 모든 응답에서 ‘보통(3점)’ 이하로 낮은 편이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 5, 6학년 학생들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일부 나타나는데, 어떤 항목에서는 참여집단 학생들이 편견이 더 높다. 즉, 참여집단 학생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백인들의 똑똑함이나 친절함을 더 낮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남아인의 경제적 부유함, 아랍인의 친절함과 평화적 성품에 대해서도 참여집단 학생들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참여집단 학생들이 특정 인종, 민족집단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고정된 패턴은 없었지만, 네 집단 모두에 대해 참여집단이 조금씩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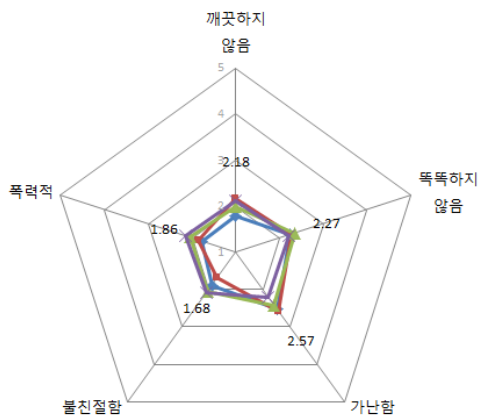
2차 조사에서는 <표 III-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평균 점수 차이가 줄어든다. 참여집단이 백인, 동남아인, 아랍인에 대해 편견 점수가 더 높았던 차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흑인에 대한 편견(불친절함)에서 참여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표 III-21> 인종·민족적 편견 - 형용사 척도 : 고학년 1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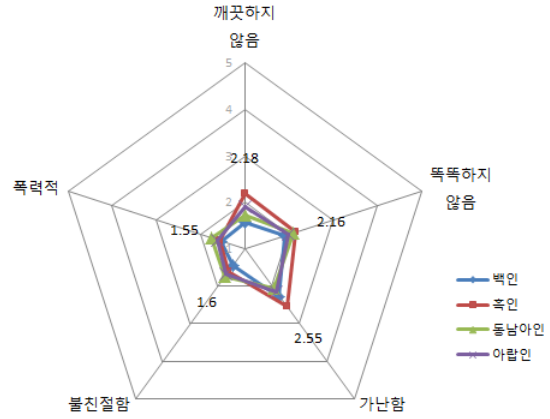
1차	편견 유형	집단 구분				T	p (유의도)
		참여 평균(표준편차)		비교 평균 (표준편차)			
백인	깨끗함	1.80	.862	1.56	.788	1.530	.129
	똑똑함	2.25	.907	1.91	.845	2.067*	.041
	부자/가난	2.52	.934	2.27	.849	1.446	.151
	친절함	1.89	.947	1.44	.688	2.901**	.004
	평화/폭력	1.79	.889	1.53	.790	1.618	.108
흑인	깨끗함	2.18	1.046	2.18	.925	-.017	.986
	똑똑함	2.27	1.000	2.16	.764	.616	.539
	부자/가난	2.57	.892	2.55	.812	.160	.873
	친절함	1.68	.789	1.60	.830	.511	.610
	평화/폭력	1.86	.962	1.55	.812	1.843	.068
동남아 인	깨끗함	2.00	.953	1.71	.916	1.638	.104
	똑똑함	2.34	.978	2.11	.854	1.321	.189
	부자/가난	2.41	.848	2.07	.813	2.143*	.034
	친절함	2.04	1.095	1.75	.886	1.533	.128
	평화/폭력	2.05	.980	1.76	.981	1.558	.122
아랍인	깨끗함	2.13	.916	1.91	.957	1.219	.226
	똑똑함	2.21	.967	2.00	.952	1.171	.244
	부자/가난	2.20	.848	2.15	.899	.310	.757
	친절함	2.07	1.093	1.67	.824	2.187*	.031
	평화/폭력	2.16	1.172	1.61	.834	2.825**	.006

<표 III-22> 인종·민족적 편견 - 형용사 척도 : 고학년 1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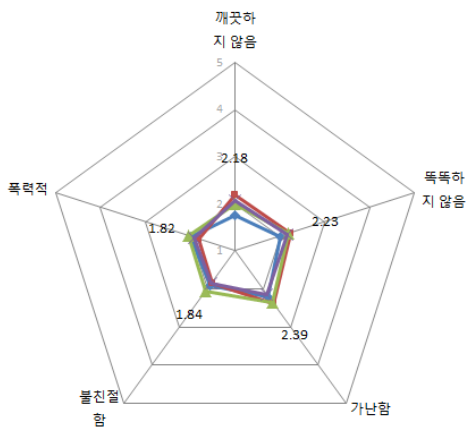
2차	편견 유형	집단 구분				T	p (유의도)
		참여 평균(표준편차)		비교 평균 (표준편차)			
백인	깨끗함	1.75	.837	1.62	.805	.846	.400
	똑똑함	2.00	.786	1.95	.826	.356	.722
	부자/가난	2.20	.724	2.09	.800	.729	.468
	친절함	1.91	.940	1.69	.858	1.286	.201
	평화/폭력	1.98	1.136	1.65	.865	1.707	.091
흑인	깨끗함	2.18	1.011	2.25	.907	-.416	.678
	똑똑함	2.23	.914	2.18	.796	.309	.758
	부자/가난	2.39	.802	2.53	.940	-.811	.419
	친절함	1.84	.930	1.45	.765	2.378*	.019
	평화/폭력	1.82	.897	1.55	.835	1.678	.096
동남아 인	깨끗함	2.00	.831	2.05	1.008	-.311	.756
	똑똑함	2.18	.789	2.36	1.025	-1.067	.288
	부자/가난	2.36	.862	2.24	.962	.697	.487
	친절함	2.07	.912	2.18	1.090	-.579	.564
	평화/폭력	2.05	.923	2.09	1.175	-.186	.852
아랍인	깨끗함	2.07	.828	2.13	.840	-.353	.725
	똑똑함	2.16	.826	2.25	.985	-.544	.588
	부자/가난	2.14	.903	2.09	.867	.309	.758
	친절함	1.86	.841	1.78	.937	.446	.656
	평화/폭력	1.91	.959	1.91	1.059	.008	.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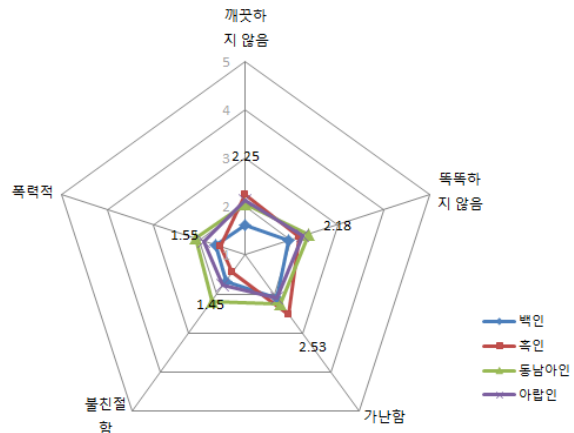
[그림 III-13] 고학년 인종·민족 편견 : 참여집단 1차



[그림 III-14] 고학년 인종·민족 편견 : 비교집단 1차



[그림 III-15] 고학년 인종·민족 편견 : 참여집단 2차



[그림 III-16] 고학년 인종·민족 편견 : 비교집단 2차

5가지 형용사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각각의 인종·민족 집단에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살펴 보면 고정관념의 방향과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두 집단의 1차 조사 결과 (그림 III-13, III-14)를 보면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이 3점(보통)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집단별 고정관념의 정도를 보면 저학년 조사에서 나타난 위계구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은 저학년 조사에서는 동남아인이

였지만 고학년의 경우 백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드러난다. 오히려 동남아인은 폭력적이고 불친절하며 가난하다는 항목에서 편견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비교집단에서 조금 더 높으며, 백인과 흑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비교집단에서 좀 더 뚜렷하게 분화되는 경향이 엿보인다.

2차 조사에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의미있는 점수 차이는 단 한 가지 항목에서만 나타난다. 그런데 다섯 가지 형용사 척도의 점수 분포를 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난다. 참여집단은 5가지 인종·민족집단에 대한 편견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위계적 서열도 보이지 않는다. 각 인종·민족집단에 대한 평가에서 뚜렷한 격차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에서는 흑인에 대한 편견이 일부 항목(불친절함, 폭력적임)에서 감소하지만, 각 인종민족 집단에 따른 편견의 분포가 들쭉날쭉하게 분화되며, 호감도(깨끗함-깨끗하지 않음)와 능력(똑똑함, 부자임) 두 항목에서는 백인과 흑인의 점수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즉, 인종·민족집단을 위계적으로 인지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다.

2차 조사결과는 교사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2차 조사에서 각 형용사 척도별 평균 점수를 보면 일부에서는 참여집단이 높고 또 일부에서는 비교집단이 높다. 다시 말해 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문항에서 편견 점수를 낮추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참여집단 학생들은 특정 인종·민족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더 부정적으로 보는 점수의 격차가 비교집단보다 적게 나타난다. 백인, 흑인, 동남아인, 아랍인을 위계적으로 분류하는 식의 패턴이 약화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편견의 수준이 낮은 동시에 다양한 외국인들에 대해 특정한 고정관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네 가지 인종·민족 집단의 사진을 제시하고 형용사 척도로 태도를 물은 뒤, 사진과 같은 외모의 사람을 길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물어보았다. 다양한 외국인 집단에 대한 거리감을 조사하는 문항이다.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교차표를 통해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표 III-23).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참여집단에서 동남아인에 대한 거리감이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참여집단은 동남아인을 길에서 만나면 “먼저 말을 건다”는 적극적 응답과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98.2%,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 간다”는 식의 부정적 응답이 1.8%였다. 그런데 비교집단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81.8%로 낮은 반면 부정적 응답은 18.2%로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 외국인을 길에서 만난다면 (거리감) - 교차표 : 1차 조사

1차	문항	집단 구분		X ² (p)
		참여집단	비교집단	
백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10 (17.9)	11 (20.0)	1.050 (.592)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45 (80.4)	44 (80.0)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1 (1.8)	0 (0.0)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0 (0.0)	0 (0.0)	
	합계	55 (100.0)	55 (100.0)	
흑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11 (19.6)	6 (10.9)	2.076 (.557)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42 (75.0)	47 (85.5)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1 (1.8)	1 (1.8)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2 (3.6)	1 (1.8)	
	합계	56 (100.0)	55 (100.0)	
동남아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9 (16.1)	9 (16.4)	6.003 (.111)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44 (78.6)	43 (78.2)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0 (0.0)	3 (5.5)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3 (5.4)	0 (0.0)	
	합계	56 (100.0)	55 (100.0)	
아랍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10 (18.5)	7 (12.7)	4.273 (.233)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40 (74.1)	46 (83.6)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1 (1.9)	2 (3.6)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3 (5.6)	0 (0.0)	
	합계	54 (100.0)	55 (100.0)	

<표 III-24> 외국인을 길에서 만난다면 (거리감) - 교차표 : 2차 조사

2차	문항	집단 구분		X ² (p)
		참여집단	비교집단	
백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7 (12.5)	4 (7.3)	3.820 (.431)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49 (87.5)	48 (87.3)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0 (0.0)	1 (1.8)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0 (0.0)	1 (1.8)	
	합계	56 (100.0)	55 (100.0)	
흑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7 (12.5)	5 (9.1)	5.336 (.149)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46 (82.1)	45 (81.8)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0 (0.0)	4 (7.3)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3 (5.4)	1 (1.8)	
	합계	56 (100.0)	55 (100.0)	
동남아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8 (14.3)	6 (10.9)	9.022* (.029)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47 (83.9)	39 (70.9)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0 (0.0)	7 (12.7)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1 (1.8)	3 (5.5)	
	합계	56 (100.0)	55 (100.0)	
아랍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10 (17.9)	2 (3.6)	6.503 (.090)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43 (76.6)	47 (85.5)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2 (3.6)	4 (7.3)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1 (1.8)	2 (3.6)	
	합계	56 (100.0)	55 (100.0)	

2차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길에서 만난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에 성별, 외국인/다문화 친구와의 접촉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표로 분석해 보았다. 성별, 친구 접촉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I-25> 외국인을 길에서 만난다면 (거리감) - 성별 교차표 : 2차 조사

2차 - 성별	문항	집단 구분		X ² (p)
		여자	남자	
백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3 (5.7)	8 (7.3)	5.068 (.280)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49 (92.5)	48 (87.3)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1 (1.9)	0 (1.8)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0 (0.0)	1 (1.8)	
	합계	53 (100.0)	57 (100.0)	
흑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6 (11.3)	6 (10.3)	.875 (.831)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44 (83.0)	47 (81.0)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2 (3.8)	2 (3.4)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1 (1.9)	3 (5.2)	
	합계	53 (100.0)	58 (100.0)	
동남아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5 (9.4)	9 (15.5)	6.635 (.084)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46 (86.8)	40 (69.0)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2 (3.8)	5 (8.6)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0 (0.0)	4 (6.9)	
	합계	53 (100.0)	58 (100.0)	
아랍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4 (7.5)	8 (13.8)	4.161 (.245)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46 (86.8)	44 (75.9)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3 (5.7)	3 (5.2)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0 (0.0)	3 (5.2)	
	합계	53 (100.0)	58 (100.0)	

<표 III-26> 외국인을 길에서 만난다면 (거리감) - 접촉경험 : 2차 조사

2차 - 접촉	문항	외국인/다문화친구 접촉			X ² (p)
		없다	한두번 만난적 있다	자주 만난다	
백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3 (13.6)	5 (9.1)	3 (8.8)	9.134 (.331)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18 (81.8)	50 (90.9)	29 (85.3)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0 (0.0)	0 (0.0)	1 (2.9)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1 (4.5)	0 (0.0)	0 (0.0)	
	합계	22 (100.0)	55 (100.0)	33 (100.0)	
흑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2 (9.1)	6 (10.9)	4 (11.8)	7.049 (.316)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18 (81.8)	46 (83.6)	27 (79.4)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0 (0.0)	1 (1.8)	3 (8.8)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2 (9.1)	2 (3.6)	0 (0.0)	
	합계	22 (100.0)	55 (100.0)	34 (100.0)	
동남 아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4 (18.2)	6 (10.9)	4 (11.8)	4.571 (.600)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15 (68.2)	44 (80.0)	27 (79.4)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1 (4.5)	3 (5.5)	3 (8.8)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2 (9.1)	2 (3.6)	0 (0.0)	
	합계	22 (100.0)	55 (100.0)	34 (100.0)	
아랍인	1)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2 (9.1)	6 (10.9)	4 (11.8)	7.874 (.247)
	2)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18 (81.8)	44 (80.0)	28 (82.4)	
	3)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0 (0.0)	5 (9.1)	1 (2.9)	
	4)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2 (9.1)	0 (0.0)	1 (2.9)	
	합계	22 (100.0)	55 (100.0)	34 (100.0)	

IV. 온라인 문화다양성 테스트 -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이 장에서는 다음세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에 접속한 조사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한다. 온라인 테스트는 초등학생용(10문항)과 일반 유저용(15문항)의 두 가지로 개발하였다.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생용 조사에는 총 2,779명, 일반인용 조사에는 4,017명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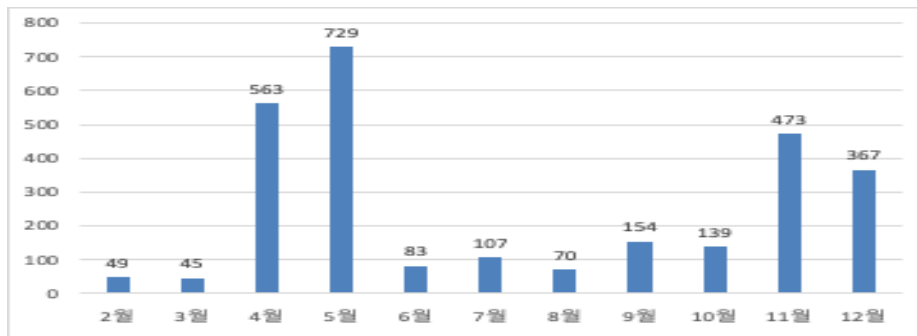
참여자 수가 많은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편집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참여자의 구성이 성별, 연령별로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표집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광범위한 일반인과 초등학생의 응답 결과는 한국 네티즌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온라인 응답은 앞서 살펴본 사례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초등학생 온라인 조사 참여자는 여자가 56.6%, 남자 43.4%로 여자가 더 많다. 학년별로는 5-6학년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3-4학년은 37.8%, 1-2학년은 21.4%였다. 조사참여자 중 9.9%는 다음세대 재단에서 실시하는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단기)⁵⁾에 참여한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IV-1>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 : 초등학생 참여자

성별		학년			2018년 교육 프로그램 참여 (단기)		합계
여자	남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있다	없다	
1,574	1,205	596	1,050	1,133	274	2,505	2,779
56.6%	43.4%	21.4%	37.8%	40.8%	9.9%	90.1%	100%

5) 2018년 다음세대재단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관련 단기(2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018년 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는 인권, 이주, 다문화, 장애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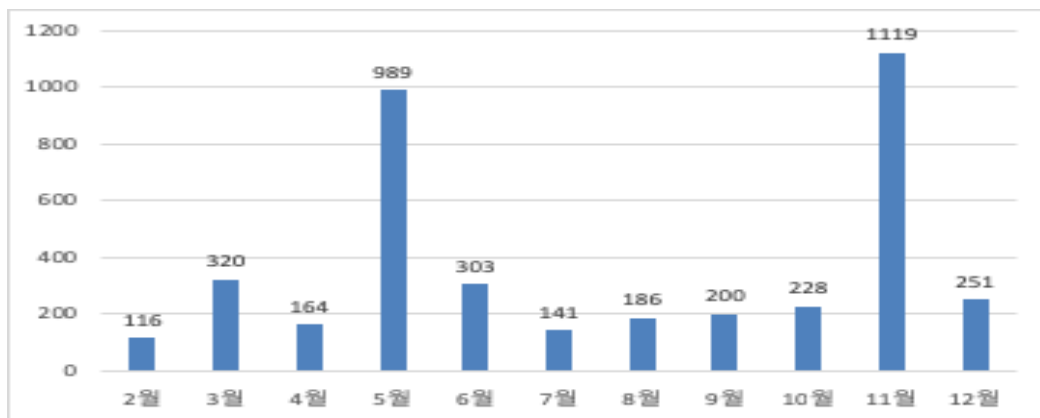


[그림 IV-1] 온라인 조사 참여자 수 - 월별 (초등학생 조사) (단위: 명)

일반인용 온라인 조사 참여자는 남성(37.0%)에 비해 여성(62.9%)이 훨씬 많은 것이 특징이다. 문화다양성과 인권 문제에 대해 남정보다 여성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10대가 20.7%로 가장 많았으며, 20대(12.4%)와 30대(12.2%), 40대(11.3%)는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50세 이상의 조사 참여자는 6.3%로 많지 않았다.

<표 IV-2>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 : 일반 참여자

성별		연령					합계
여자	남자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2,530	1,487	831	500	492	455	252	4,017
62.9%	37.0%	20.7%	12.4%	12.2%	11.3%	6.3%	100%



[그림 IV-2] 온라인 조사참여자 수 - 월별 (일반 참여자) (단위: 명)

2. 초등학생 조사결과

(1) 문항별 조사결과

[문 1] 우리 동네 놀이터에 갔더니 처음 보는 외국인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표 IV-3> 문항 1.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문1	성별		학년			전체
	여성	남성	1~2학년	3~4학년	5~6학년	
그냥 집으로 간다	183	130	53	118	142	313
	11.6%	10.8%	8.9%	11.2%	12.5%	11.3%
외국인 때문에 짜증날 것 같다	43	54	23	25	49	97
	2.7%	4.5%	3.9%	2.4%	4.3%	3.5%
다가가서 같이 놀 것이다	961	745	422	667	617	1,706
	61.1%	61.8%	70.8%	63.5%	54.5%	61.4%
상관하지 않고 따로 논다	387	276	98	240	325	663
	24.6%	22.9%	16.4%	22.9%	28.7%	23.9%
계	1,574	1,205	596	1,050	1,133	2,77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 ² (p)	7.286 (0.063)		54.289*** (0.000)			

주) ***: $p > .001$, **: $p > .01$, *: $p > .05$

동네 놀이터에서 외국인 어린이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지만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학년일수록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다가가서 같이 논다”는 응답은 학년이 낮을수록 많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만 7-8세 연령으로 아직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이나 고정관념이 뚜렷하지 않은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국인을 불편하고 멀게 느끼는 태도가 더 커지는 추세가 엿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일찍 시작되는 것이 더 개입의 효과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학년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문 2]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어른이 되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표 IV-4> 문항 2.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문2	성별		학년			전 체
	여성	남성	1~2학년	3~4학년	5~6학년	
하고 싶다	965	780	404	668	673	1,745
	61.3%	64.7%	67.8%	63.6%	59.4%	62.8%
하고 싶지 않다	111	104	50	67	98	215
	7.1%	8.6%	8.4%	6.4%	8.6%	7.7%
잘 모르겠다	498	321	142	315	362	819
	31.6%	26.6%	23.8%	30.0%	32.0%	29.5%
계	1,574	1,205	596	1,050	1,133	2,779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9.261**(0.010)		17.509**(0.002)			

주) ***: $p > .001$, **: $p > .01$, *: $p > .05$

앞으로 어른이 되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적극적 응답은 62.8%,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소극적 응답은 7.7%,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태도는 29.5%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 열 명 중 여섯 명 정도는 어려운 외국 사람을 돕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3명 정도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응답 결과를 성별, 학년별로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도와주고 싶다’거나 ‘하고 싶지 않다’는 뚜렷한 문항에서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은 여학생(31.6%)이 남학생(26.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어려운 외국 사람을 돕고 싶다는 적극적 응답이 저학년에서 높은 반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돕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에서는 고학년의 응답이 확연히 높아졌다.

[문 3]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반에 나와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

<표 IV-5> 문항 3.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문3	성별		학년			전체
	여성	남성	1~2학년	3~4학년	5~6학년	
좋을 것 같다	732	546	289	493	496	1,278
	46.5%	45.3%	48.5%	47.0%	43.8%	46.0%
좋을 것 같지 않다	186	187	72	125	176	373
	11.8%	15.5%	12.1%	11.9%	15.5%	13.4%
잘 모르겠다	656	472	235	432	461	1,128
	41.7%	39.2%	39.4%	41.1%	40.7%	40.6%
계	1,574	1,205	596	1,050	1,133	2,779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8.236* (0.016)		8.872(0.064)			

주) ***: $p > .001$, **: $p > .01$, *: $p > .05$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친구가 우리 반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46%의 학생들이 “좋을 것 같다”는 긍정적 응답을 한 반면, 13.4%는 “좋을 것 같지 않다”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태도도 40.6%로 높았다. 외국인 반 친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와 유보적인 태도가 엇비슷하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높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응답도 여학생이 더 많다. 학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 4] 우리는 일상에서 ‘소수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다음 중 소수자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표 IV-6> 문항 4.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문4	성별		학년			전체
	여성	남성	1~2학년	3~4학년	5~6학년	
숫자가 적으면 소수자	246	217	103	179	181	463
	15.6%	18.0%	17.3%	17.0%	16.0%	16.7%
그럼 국회의원도 소수자겠네	142	160	68	113	121	302
	9.0%	13.3%	11.4%	10.8%	10.7%	10.9%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소수자	347	251	134	250	214	598
	22.0%	20.8%	22.5%	23.8%	18.9%	21.5%
차별 받고 힘이 없어서 약자인 사람이 소수자	839	577	291	508	617	1,416
	53.3%	47.9%	48.8%	48.4%	54.5%	51.0%
계	1,574	1,205	596	1,050	1,133	2,779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18.101** (0.000)		11.846 (0.065)			

주) ***: p>.001, **: p>.01, *: p>.05

소수자의 정확한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은 남학생(47.9%)보다 여학생(53.3%)이 확연하게 더 높다. 학년별로는 고학년의 정확한 응답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숫자가 적으면 소수자”라는 단순한 문항(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학년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문 5] 학교에서 장애인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표 IV-7> 문항 5.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문5	성별		학년			전체
	여성	남성	1~2학년	3~4학년	5~6학년	
도와줄지 물어보고 도와준다	1,297	946	481	869	893	2,243
	82.4%	78.5%	80.7%	82.8%	78.8%	80.7%
묻지 않고 빨리 도와주는 것이 좋다	140	131	61	96	114	271
	8.9%	10.9%	10.2%	9.1%	10.1%	9.8%
도와주는 법을 몰라서 모른 척 한다	137	128	54	85	126	265
	8.7%	10.6%	9.1%	8.1%	11.1%	9.5%
계	1574	1205	596	1050	1133	2779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6.652* (0.036)		7.116(0.130)			

주) ***: p>.001, **: p>.01, *: p>.05

장애인 친구를 만나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와준다는 응답은 10명 중 8명 꼴(80.7%)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약자이니 빨리 도와주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태도(9.8%), 모른척 한다는 무관심(9.5%)은 많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문 6] [그림] 우리가 자주 하는 말과 행동, 환경 속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차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 중 차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표 IV-8> 문항 6.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문6	성별		학년			전체
	여성	남성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의사, 여의사	568	463	192	435	404	1,031
	36.1%	38.4%	32.2%	41.4%	35.7%	37.1%
살색 크레파스	215	169	110	138	136	384
	13.7%	14.0%	18.5%	13.1%	12.0%	13.8%
친구 다문화 낙인	137	127	72	83	109	264
	8.70%	10.50%	12.1%	7.9%	9.6%	9.5%
초등학교 경사로 설치	654	446	222	394	484	1,100
	41.6%	37.0%	37.2%	37.5%	42.7%	39.6%
계	1,574	1,205	596	1,050	1,133	2,779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7.041(0.071)		33.865*** (0.000)			

주) ***: p>.001, **: p>.01, *: p>.05

일상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의 응답에 다양한 갈래로 나뉘어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제공은 차별이 아니라는 응답(39.6%)과 여성 의사만을 여의사라고 따로 부르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37.1%)이 비슷한 수준이다.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5-6학년에서는 경사로를 정확하게 응답한 경우가 저학년보다 다소 높았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 7] 지구 상 어떤 곳에는 환경오염과 가뭄, 전쟁 때문에 어린이들이 집을 떠나야 하고, 또 배고픔과 가난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관한 책을 읽고 친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나의 생각은 누구와 제일 비슷한가요?

- 지우 : 휴, 내가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지. 내가 그런 곳에 갈 일은 앞으로
도 없을 거야.
- 슬기 : 그 아이들 이야기가 참 슬프던데! 춥고 배고프면 얼마나 힘들겠어.
- 승연 : 환경오염과 가뭄으로 먹을 게 없어진 건 그 친구들 탓이 아닌데... 지구에 쓰레기가
 많아지고 물이 더러워지는 걸 막을 방법이 뭐 없을까?

<표 IV-9> 문항 7.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문7	성별		학년			전체
	여성	남성	1~2학년	3~4학년	5~6학년	
지우	127	114	45	84	112	241
	8.1%	9.5%	7.6%	8.00%	9.90%	8.70%
슬기	616	499	219	437	459	1,115
	39.1%	41.4%	36.7%	41.6%	40.5%	40.1%
승연	831	592	332	529	562	1,423
	52.8%	49.1%	55.7%	50.4%	49.6%	51.2%
계	1,574	1,205	596	1,050	1,133	2,779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4.197 (.123)		8.722 (0.068)			

주) ***: p>.001, **: p>.01, *: p>.05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 환경이나 전쟁과 같은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 중 절반 정도는 지구상의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10명 중 4명 정도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표시했다. 나 자신만 그런 어려움을 피하면 된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실천적 의지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문 8] [그림] 운동장에 친구들이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말리고 싶은 행동을 하는 친구는 누구인지 표시해 보세요.

<표 IV-10> 문항 8.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문8	성별		학년			전체
	여성	남성	1~2학년	3~4학년	5~6학년	
여아, 남아가 함께 공기놀이를 한다	75	70	29	53	63	145
	4.8%	5.8%	4.9%	5.0%	5.6%	5.2%
축구를 잘하는 여자 아이	63	61	26	48	50	124
	4.0%	5.1%	4.4%	4.6%	4.4%	4.5%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가 함께 달린다	73	51	29	42	53	124
	4.6%	4.2%	4.9%	4.0%	4.7%	4.5%
홀라후프를 하는 남아	15	13	5	10	13	28
	1.0%	1.1%	0.8%	1.0%	1.1%	1.0%
친구 둘이 껌속말로 손가락질을 하고 혼자 시무룩한 아이가 있다	1,348	1,010	507	897	954	2,358
	85.6%	83.8%	85.1%	85.4%	84.2%	84.9%
계	1,574	1,205	596	1,050	1,133	2,779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3.770 (0.438)		1.861 (0.985)			

제시된 그림 중에서 친구를 홍보고 따돌리는 행동이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84.9%이다.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를 따돌리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 대다수 응답자들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문 9] 어느 날 피부색이 검은 친구가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반 아이들은 “얼굴이 까맣다”며 그 친구를 놀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표 IV-11> 문항 9.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문9	성별		학년			전체
	여성	남성	1~2학년	3~4학년	5~6학년	
친한 친구가 아니니 신경 쓰지 않는다.	117	100	44	86	87	217
	7.4%	8.3%	7.4%	8.2%	7.7%	7.8%
놀리는 게 좋아보이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126	102	41	81	106	228
	8.0%	8.5%	6.9%	7.7%	9.4%	8.2%
나도 아이들과 같이 놀린다.	59	72	23	41	67	131
	3.7%	6.0%	3.9%	3.9%	5.9%	4.7%
반 아이들에게 놀리지 말라고 말한다.	1,272	931	488	842	873	2,203
	80.8%	77.3%	81.9%	80.2%	77.1%	79.3%
계	1,574	1,205	596	1,050	1,133	2,779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9.095* (0.028)		10.941 (0.090)			

전학 온 친구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놀린다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실천 의지를 조사하는 문항이다. 10명 중 8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말리겠다고 응답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실천 의사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학년이 낮을수록 놀리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말리겠다는 응답이 더 많아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 10] 다음 중 함께 공부하는 교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행동)을 한 사람은?

- 지우 : “똥똥한 애들은 뒷줄에 가서 앉아.”
- 슬기 : “게임을 잘 못하는 애들은 끼워주지 말자구.”
- 승연 : “다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놀자!”

<표 IV-12> 문항 10.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초등학생)

문 10	성별		학년			전체
	여성	남성	1~2학년	3~4학년	5~6학년	
지우	176	178	59	144	151	354
	11.2%	14.8%	9.9%	13.7%	13.3%	12.7%
슬기	102	102	47	80	77	204
	6.5%	8.5%	7.9%	7.6%	6.8%	7.3%
지우와 슬기	962	632	345	582	667	1,594
	61.1%	52.4%	57.9%	55.4%	58.9%	57.4%
승연	334	293	145	244	238	627
	21.2%	24.3%	24.3%	23.2%	21.0%	22.6%
계	1,574	1,205	596	1,050	1,133	2,779
	100	100	100	100	100	100
$X^2(p)$	22.410** (0.000)		9.090(0.169)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똥똥하다거나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말들이 문제라고 지목한 응답자는 57.4%였다. 전체적으로 똥똥하다는 비난(12.7%)이 게임을 잘 못하는 친구를 배제하는 것(7.3%)보다 더 나쁜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언어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들이 더 높은 편이었다. 반면 학년별로는 뚜렷한 응답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 총점 및 영역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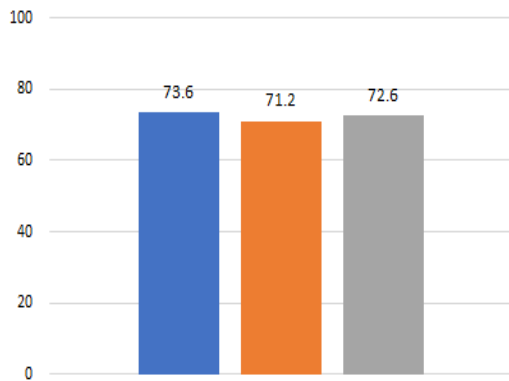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전체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되었고, 개념적으로는 두 영역(문화다양성, 인권의식)과 세 가지 요인(인지, 정서, 행동)을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점수를 성별, 학년, 그리고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단시간)**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것이 아래 표이다.

<표 IV-13> 총점 및 영역/요인별 점수 : 성별, 학년별, 교육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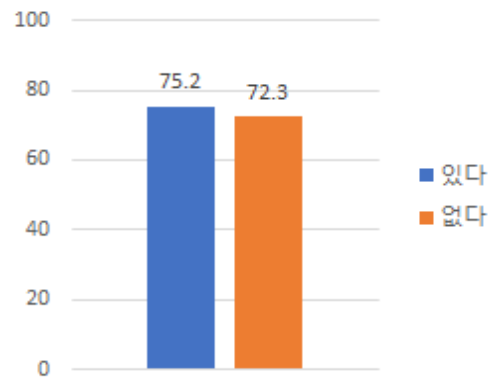
온라인 조사 참여자 (초등학생)		성별		학년			문화다양성 교육 경험		
		여자	남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없다	있다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100점)	Mean	73.6	71.2	73.3	72.5	72.2	72.3	75.2	
	SD	16.62	17.72	16.55	15.99	18.45	17.61	11.88	
	T	3.81***(.000)		0.751 (0.472)			-2.682** (0.007)		
영역별	문화 다양성 (50점)	Mean	40.4	40.0	41.4	40.5	39.3	40.0	42.0
		SD	7.68	7.98	7.78	7.44	8.07	7.90	6.77
		T	1.131 (0.258)		15.615** (0.000)			-4.006 *** (0.000)	
	인권 의식 (50점)	Mean	33.28	31.13	31.9	32.0	32.9	32.3	33.2
		SD	12.41	12.87	11.83	12.20	13.45	12.93	9.69
		T	4.467*** (0.000)		1.923 (0.146)			-1.163 (0.245)	
요인별	인지	Mean	11.7	10.8	11	11	11.8	11.3	11.1
		SD	6.66	6.75	6.57	6.61	6.86	6.79	5.99
		T	3.353** (0.001)		4.794** (0.008)			0.624 (0.533)	
	정서	Mean	29.4	28.8	29.6	29.1	28.9	29.1	29.5
		SD	6.26	6.50	6.13	6.03	6.79	6.52	4.86
		T	2.683** (0.007)		1.948 (0.143)			-0.955 (0.34)	
	행동	Mean	32.5	31.5	32.7	32.4	31.5	31.8	34.6
		SD	7.44	8.22	7.86	7.32	8.19	7.95	5.72
		T	3.288** (0.001)		6.093** (0.002)			-5.673*** (0.000)	

가. 총점 비교 : 성별, 학년별,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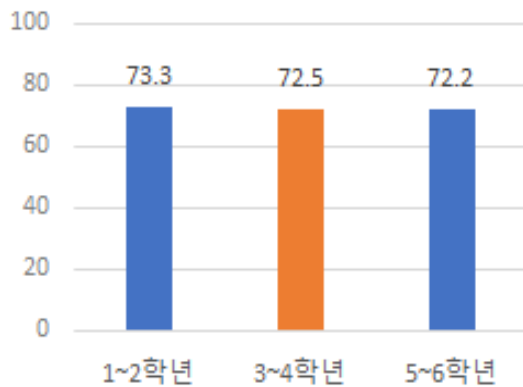
먼저 총점(100점 만점)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73.6)이 남성(71.2)보다 점수가 높은 편이다. 학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고학년보다 저학년의 점수가 더 높은 점이 주목된다. 문화다양성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단시간이지만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교육에 노출되는 경험이 초등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3] 문화다양성 감수성 총점 : 성별



[그림 IV-4] 총점: 교육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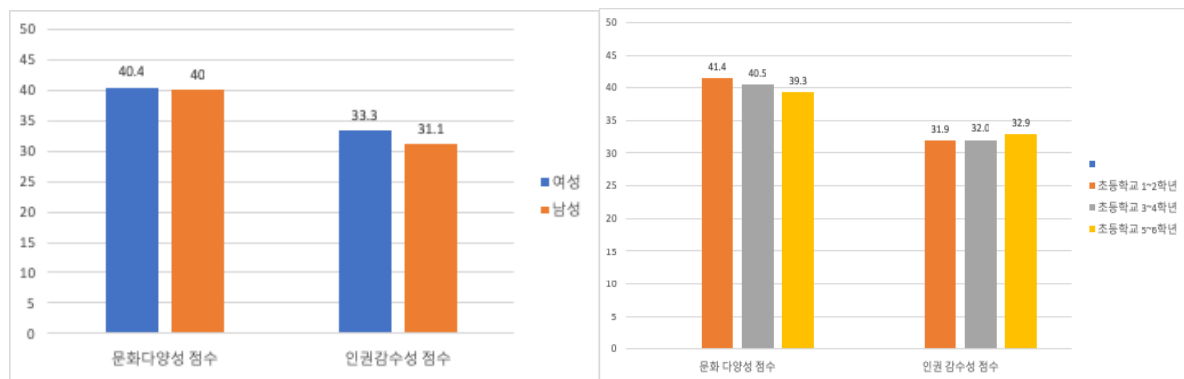
[그림 IV-5] 문화다양성 감수성 총점: 학년별

나. 영역별 점수 비교 : 문화다양성과 인권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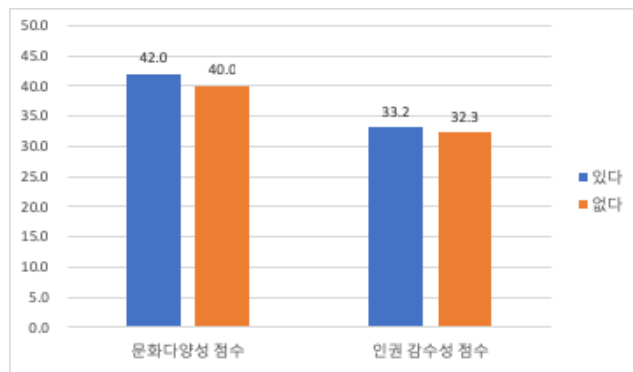
전체 총점을 두 가지 영역, 즉 문화다양성과 인권의식으로 나누어서 점수 분포를 비교해 보면, 문화다양성 영역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지만 인권의식 영역에서는 여성의 점수가 확연하게 높다. 이러한 차이는 여학생들이 성평등이나 장애인 인권,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더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년별로는 흥미롭게도 1-2학년 응답자의 문화다양성 영역점수가 가장 높으며, 고학년이 가장 낮다. 인권의식 영역에서는 학년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1-2학년의 어린 학생들은 외국인이나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 않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문화 중심적 가치를 습득하면서 다른 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세대재단의 교육 프로그램(단시간)에 참가한 학생들은 문화다양성 영역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인권의식 영역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이 인권 의식 보다는 문화다양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IV-6] 문화다양성 감수성-영역 점수: 성별 [그림 IV-7] 문화다양성 감수성 -영역 점수: 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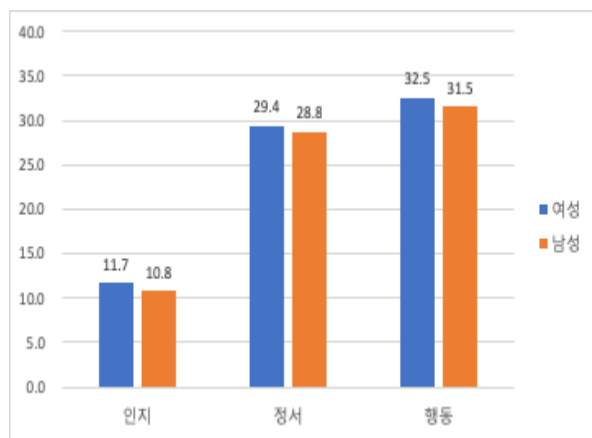
[그림 IV-8] 영역별 점수 : 교육 참여 여부

다. 요인별 점수 비교 : 인지, 정서,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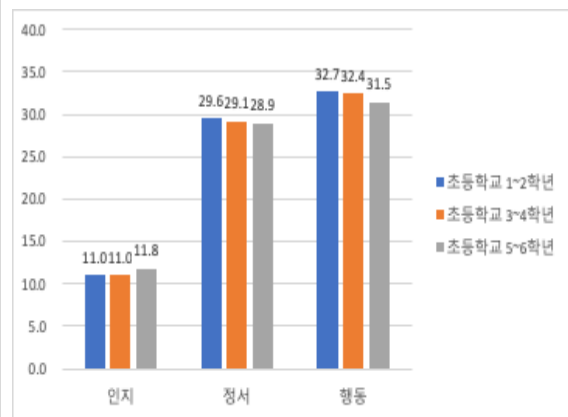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및 인권 의식을 개념적인 차원에서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비교한 것이 아래 그림(그림 IV-9~11)이다. 성별로는 세 가지 요인 점수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확연하게 높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여학생들이 문화다양성과 인권에 대한 지식의 습득, 정서적 공감, 좀 더 공정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대한 관심도가 모두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학년별로는 인지 요인점수는 5-6학년이 낮은 학년들보다 더 높지만, 행동 요인 점수는 오히려 1-2학년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서 영역 점수 또한 어린 학년일수록 더 높다. 고학년이 되면 인지발달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다양성이나 인권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지만, 소수자 문제나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정서적 공감, 더 공정하고 좋은 세상을 위한 실천에는 관심이 더 줄어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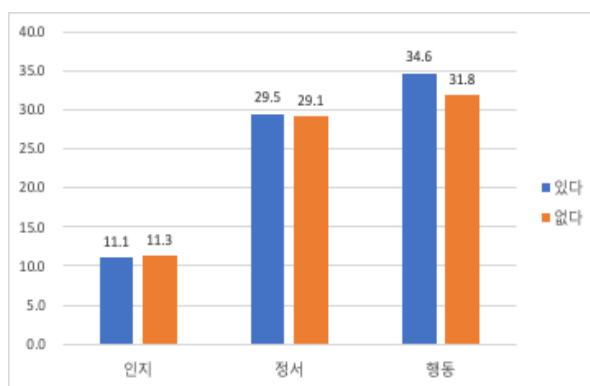
한편 다음세대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지나 정서 요인 점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행동요인 점수는 다소 높다.



[그림 IV-9] 요인별 점수: 성별 비교



[그림 IV-10] 요인별 점수: 학년별 비교



[그림 IV-11] 요인별 점수: 교육참여 여부

3. 일반인 조사결과

(1) 문항별 조사결과

[문 1] 지구상에는 다양한 언어와 종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표 IV-14> 문항 1.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1	성별		연령					전 체
	여성	남 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지구상에는 6천 9백 개가 넘는 다양한 언어	323	224	288	72	72	63	52	547
	12.8%	15.1%	18.5%	9.7%	9.9%	10.2%	13.8%	13.6%
세계 인구 중 기독교 신자는 31%, 이슬람교 23%, 힌두교 15%	671	326	371	170	185	156	115	997
	26.5%	21.9%	23.8%	23.0%	25.4%	25.4%	30.6%	24.8%
이슬람교 신자의 8할 이상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1327	757	696	451	413	341	183	2084
	52.5%	50.9%	44.7%	60.9%	56.7%	55.4%	48.7%	51.9%
문화 다양성의 보장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209	180	203	47	58	55	26	389
	8.3%	12.1%	13.0%	6.4%	8.0%	8.9%	6.9%	9.7%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26.329*** (0.000)		119.688*** (0.000)					

주) ***: p>.001, **: p>.01, *: p>.05

지구상의 언어와 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지식을 묻는 문항 1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정확한 정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해외 여행에 관심이 높고 글로벌 시대에 대한 교육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20대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50대 이상의 장노년 층, 그리고 10대 응답자들은 정확한 문항을 고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문 2] 다음은 수영을 자주하는 A씨의 경험담입니다. A씨가 만약 당신의 친구라면, 당신은 A씨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어제 동네 실내 수영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글썄 피부색이 진한 외국인이 여러 명 들어오더니 내 옆에서 샤워를 했어. 처음 있는 일이라 좀 놀랐지! 어쩐지 그 수영장에 다시 가기가 싫어지네...”

<표 IV-15> 문항 2.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2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그 수영장엔 가지 말아야겠다	92	67	70	27	22	26	14	159
	3.6%	4.5%	4.5%	3.6%	3.0%	4.2%	3.7%	4.0%
피해 다니면서 수영장을 이용하면 되잖아	123	100	89	40	44	28	22	223
	4.9%	6.7%	5.7%	5.4%	6.0%	4.6%	5.9%	5.6%
외국인 출입을 제한해달라고 건의해 보는 게 어때	43	54	35	20	16	12	14	97
	1.7%	3.6%	2.2%	2.7%	2.2%	2.0%	3.7%	2.4%
그냥 평소처럼 이용해도 괜찮을 거야	2272	1266	1364	653	646	549	326	3538
	89.8%	85.1%	87.5%	88.2%	88.7%	89.3%	86.7%	88.1%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24.434*** (0.000)		8.727 (0.726)					

수영장에서 외국인과 마주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친구에게 조언을 하는 간접적인 응답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이나 배타적 태도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외국인이 오더라도 평소처럼 수영장을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다. 수영장 측에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건의한다는 강한 배타적 태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서 2.4%에 불과했지만, 여성(1.7%)보다 남성(3.6%)에게서 더 높은 점도 주목된다.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문 3] 우리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당신은 다음 중 몇 가지에 찬성하십니까?

- 국공립 도서관에 베트남어로 된 동화책을 갖추어 놓는다.
-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초등학교에서 필리핀 문화를 소개하는 1일 교사로 활동한다.
- 시청이나 도청에서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을 위해 다양한 외국어로 실시하는 운전면허 시험을 늘린다.

<표 IV-16> 문항 3.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3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1	69	53	59	17	22	13	11	122
	2.7%	3.6%	3.8%	2.3%	3.0%	2.1%	2.9%	3.0%
2	176	138	112	84	53	35	30	314
	7.0%	9.3%	7.2%	11.4%	7.3%	5.7%	8.0%	7.8%
3	441	307	294	174	136	90	54	748
	17.4%	20.6%	18.9%	23.5%	18.7%	14.6%	14.4%	18.6%
4	1814	937	1051	454	507	466	273	2751
	71.7%	63.0%	67.5%	61.4%	69.6%	75.8%	72.6%	68.5%
0 (없다)	30	52	42	11	10	11	8	82
	1.2%	3.5%	2.7%	1.5%	1.4%	1.8%	2.1%	2.0%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48.655*** (0.000)		58.651*** (0.000)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국제결혼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출신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네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몇 가지에 동의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네 가지 정책에 모두 찬성한다는 가장 적극적인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문화다양성 확대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20대와 10대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문항 1에서 보았듯이 20, 30대의 청년층은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은 많은 편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청년층이 장년 노년 세대보다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문 4] 다음은 A와 B의 대화입니다. 누구의 의견에 더 공감하시나요?

A : 요즘 국제 뉴스 봤어? 난민이나 이주민이 늘어서 사회 문제가 되는 나라가 많다고 하더라고.
 B : 그래? 한국에도 이미 외국인이 많이 늘어났잖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면도 많지.
 A :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와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이 많이 늘어난다면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걸.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고.....
 B : 그건 편견이지.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표 IV-17> 문항 4.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4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A 의견 찬성	351	212	236	124	91	69	43	563
	13.9%	14.3%	15.1%	16.8%	12.5%	11.2%	11.4%	14.0%
B 의견 찬성	1631	972	1007	403	463	454	276	2603
	64.5%	65.4%	64.6%	54.5%	63.6%	73.8%	73.4%	64.8%
잘 모르겠다	548	303	315	213	174	92	57	851
	21.7%	20.4%	20.2%	28.8%	23.9%	15.0%	15.2%	21.2%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944 (0.624)		77.287*** (0.000)					

최근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 범죄 우려 등 불안감을 느끼는 부정적 의견과 외국인을 포용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을 포용하는 긍정적 태도가 64.8%로 다수였고, 부정적인 의견(14.0%)보다 훨씬 높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문화다양성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태도가 21.2%로 높다는 점도 주목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별다른 의견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연령별로는 앞의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이 20대가 가장 낮았으며, 30대와 10대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 40대 이상의 장년층은 70% 이상이 외국인을 긍정적으로 포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세대별 의견차이, 그리고 젊은 층이 외국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배타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 5] 형제·자매 또는 절친한 친구 중 누군가가 어느 날 자신에게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애인이 생겼다면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 IV-18> 문항 5.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5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절대 반대	76	59	63	20	21	14	17	135
	3.0%	4.0%	4.0%	2.7%	2.9%	2.3%	4.5%	3.4%
일단 반대하면서 의견을 되물음	176	128	110	50	59	53	32	304
	7.0%	8.6%	7.1%	6.8%	8.1%	8.6%	8.5%	7.6%
마음에 걸리지만 본인 선택 존중	1143	546	485	333	351	326	194	1689
	45.2%	36.7%	31.1%	45.0%	48.2%	53.0%	51.6%	42.0%
불편함 없고 반대하지 않음	1135	754	900	337	297	222	133	1889
	44.9%	50.7%	57.8%	45.5%	40.8%	36.1%	35.4%	47.0%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28.707*** (0.000)		159.116*** (0.000)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명 중 9명 정도 (42%+47%=89%)가 동의하는 셈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은 47%, 마음에 걸리지만 가족이나 친구의 선택을 받아들이겠다는 소극적인 수용 의사는 42% 정도이다. 그런데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국제결혼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10대와 20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지만,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셈이다. 반대로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문화다양성과 인권 인식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지만,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는 아마도 최근 국내에서 국제결혼 가정에서 가정폭력 등 여성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는 보도 등을 접하고 여성들이 이에 대해 더 부정적 의견을 갖게 된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문 6] 다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표 IV-19> 문항 6. 성별 학년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 6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장기체류 외국인 100만 명 이하	164	132	176	28	33	39	20	296
	6.5%	8.9%	11.3%	3.8%	4.5%	6.3%	5.3%	7.4%
다문화 거리가 있음	1743	942	973	524	520	417	251	2685
	68.9%	63.3%	62.5%	70.8%	71.4%	67.8%	66.8%	66.8%
장기체류 이주민은 지자체 건의 불가	290	213	217	101	87	58	40	503
	11.5%	14.3%	13.9%	13.6%	12.0%	9.4%	10.6%	12.5%
대다수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	333	200	192	87	88	101	65	533
	13.2%	13.4%	12.3%	11.8%	12.1%	16.4%	17.3%	13.3%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17.779*** (0.000)		86.543*** (0.000)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 외국인의 한국생활 등 현황에 대한 인지 수준을 묻는 문항이다. 올바른 정답을 선택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가 가장 정확한 응답을 하고 있다. 10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에 대한 지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문 7] 우리는 일상에서 ‘소수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소수자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표 IV-20> 문항 7.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7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숫자가 적어야 소수자	198	134	190	40	39	39	24	332
	7.8%	9.0%	12.2%	5.4%	5.4%	6.3%	6.4%	8.3%
권리가 적으면 소수자	83	97	89	24	28	22	17	180
	3.3%	6.5%	5.7%	3.2%	3.8%	3.6%	4.5%	4.5%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소수자	117	147	134	37	41	34	18	264
	4.6%	9.9%	8.6%	5.0%	5.6%	5.5%	4.8%	6.6%
편견으로 인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소수자	2132	1109	1145	639	620	520	317	3241
	84.3%	74.6%	73.5%	86.4%	85.2%	84.6%	84.3%	80.7%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73.910*** (0.000)		90.691*** (0.000)					

‘소수자’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문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확연히 높은 인지 수준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상의 청장년층은 대체로 응답률이 비슷했지만, 10대는 소수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문 8] 다음 중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직장은?

<표 IV-21> 문항 8.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8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정수기 생수통은 남성 사원이 교체	66	53	77	13	10	10	9	119
	2.6%	3.6%	4.9%	1.8%	1.4%	1.6%	2.4%	3.0%
회사차량 운전은 남성 사원	28	34	22	6	20	6	8	62
	1.1%	2.3%	1.4%	0.8%	2.7%	1.0%	2.1%	1.5%
커피는 여성 사원이	49	84	63	19	20	19	12	133
	1.9%	5.6%	4.0%	2.6%	2.7%	3.1%	3.2%	3.3%
사무실 청소는 전 직원	2387	1316	1396	702	678	580	347	3703
	94.3%	88.5%	89.6%	94.9%	93.1%	94.3%	92.3%	92.2%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53.786*** (0.000)		52.910*** (0.000)					

성평등에 대한 의견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성평등한 직장이란 남녀가 성별 고정관념에 상관없이 필요한 일을 분담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확연하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상의 청장년 응답자의 의견은 비슷하게 분포했지만, 10대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문 9] 최근에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배리어 프리를 실천한 것이 아닌 것은?

<표 IV-22> 문항 9.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 9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출입구 경사로 설치	221	209	246	57	53	49	25	430
	8.7%	14.1%	15.8%	7.7%	7.3%	8.0%	6.6%	10.7%
TV 뉴스 수화방송	123	134	124	37	37	36	23	257
	4.9%	9.0%	8.0%	5.0%	5.1%	5.9%	6.1%	6.4%
횡단보도 점자 블럭 설치	97	137	141	25	28	21	19	234
	3.8%	9.2%	9.1%	3.4%	3.8%	3.4%	5.1%	5.8%
상가 입구에 회전문 설치	2089	1007	1047	621	610	509	309	3096
	82.6%	67.7%	67.2%	83.9%	83.8%	82.8%	82.2%	77.1%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123.284*** (0.000)		151.566*** (0.000)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에서 77.1%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확연하게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20대 이상 청장년 층에서는 엇비슷한 응답을 보였지만, 10대 응답자들은 배리어 프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낮은 편이었다.

[문 10] [그림] 차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중에서 차별이 아닌 상황은 무엇일까요?

<표 IV-23> 문항 10.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 10	성별		연령					전 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채용공고 지원자격	148	115	125	53	42	26	17	263
	5.8%	7.7%	8.0%	7.2%	5.8%	4.2%	4.5%	6.5%
운동회 부모님 함께	701	487	608	182	150	132	116	1188
	27.7%	32.8%	39.0%	24.6%	20.6%	21.5%	30.9%	29.6%
동급생 다문화 낙인	74	86	77	24	20	17	22	160
	2.9%	5.8%	4.9%	3.2%	2.7%	2.8%	5.9%	4.0%
공중화장실 표지판	1607	799	748	481	516	440	221	2406
	63.5%	53.7%	48.0%	65.0%	70.9%	71.5%	58.8%	59.9%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47.316*** (0.000)		182.273*** (0.000)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인식, 고용이나 가족형태, 성별, 이주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을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성별로는 여성들의 차별 인식이 높은 편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의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양한 배경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10대와 더불어 50세 이상 장노년층의 인식도 다소 낮은 점이 눈에 띈다.

[문 11]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각 기관이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면, 다음 중 몇 가지에 찬성하십니까?

- 시의 예산을 들여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다.
- 구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법률 서비스에 예산을 지원했다.
- 경찰서 유치장에 외국인 수감자를 위해 외국도서를 비치했다.
- 대학교에 종교가 다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할랄 푸드* 식당을 열었다.

<표 IV-24> 문항 11.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11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1	82	56	75	25	14	14	10	138
	3.2%	3.8%	4.8%	3.4%	1.9%	2.3%	2.7%	3.4%
2	258	185	184	103	75	48	33	443
	10.2%	12.4%	11.8%	13.9%	10.3%	7.8%	8.8%	11%
3	652	353	383	244	175	137	66	1005
	25.8%	23.7%	24.6%	33.0%	24.0%	22.3%	17.6%	25%
4	1497	836	864	358	454	405	252	2333
	59.2%	56.2%	55.5%	48.4%	62.4%	65.9%	67.0%	58.1%
0	41	57	52	10	10	11	15	98
	1.6%	3.8%	3.3%	1.4%	1.4%	1.8%	4%	2.4%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26.768*** (0.000)		104.829*** (0.000)					

장애인을 위해 대중교통 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문화와 종교가 다른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각 기관의 대응책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조사한 항목이다. 예시에 나온 4가지 정책에 모두 찬성하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58.1%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다소 높은 편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의 중장년이 다문화 수용에 대해 관용적인 반면 20대와 10대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12] 같은 한국말이라도 북한식 억양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표 IV-25> 문항 12.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 12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신뢰가 가지 않고 낮설	386	178	172	113	133	100	46	564
	15.3%	12.0%	11.0%	15.3%	18.3%	16.3%	12.2%	14%
남한 말보다 뒤쳐짐	189	116	77	44	63	66	55	305
	7.5%	7.8%	4.9%	5.9%	8.7%	10.7%	14.6%	7.6%
별다른 느낌의 차이가 없음	903	589	646	316	263	182	85	1492
	35.7%	39.6%	41.5%	42.7%	36.1%	29.6%	22.6%	37.1%
독특한 사투리 같아 정감 간다	1052	604	663	267	269	267	190	1656
	41.6%	40.6%	42.6%	36.1%	37.0%	43.4%	50.5%	41.2%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11.421** (0.01)		135.999*** (0.000)					

북한 말씨를 쓰는 탈북자, 재중동포(조선족)들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끼는지를 묻은 항목이다. 탈북자와 재중동포는 우리 안의 소수자이지만 문화나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동포에 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고 낮설다는 응답은 14%였던 반면,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 정감이 간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0명 중 8명 정도이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탈북자나 재중동포를 포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북한 말씨를 쓰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데에는 남정보다 여성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정감이 간다’는 적극적 태도가 높은 점이 주목된다. 분단 세대로 남한 중심의 정체성에 익숙한 젊은 층과는 달리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는 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를 포함하는 폭넓은 한민족 정체성에 더 공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13] 다음 중 당신은 몇 가지에 찬성하십니까?

-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 아들과 딸은 아무래도 다르게 키우는 것이 좋다.
- 여성들은 아이 때문에 야근을 못하니 기업이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서비스직은 젊은 여성이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

<표 IV-26> 문항 13.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 13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1	282	188	162	101	99	63	45	470
	11.1%	12.6%	10.4%	13.6%	13.6%	10.2%	12.0%	11.7%
2	132	142	102	49	44	46	33	274
	5.2%	9.5%	6.5%	6.6%	6.0%	7.5%	8.8%	6.8%
3	99	139	93	41	42	30	32	238
	3.9%	9.3%	6.0%	5.5%	5.8%	4.9%	8.5%	5.9%
4	96	159	125	38	31	41	20	255
	3.8%	10.7%	8.0%	5.1%	4.3%	6.7%	5.3%	6.3%
0	1921	859	1076	511	512	435	246	2780
	75.9%	57.8%	69.1%	69.1%	70.3%	70.7%	65.4%	69.2%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189.088*** (0.000)		32.457** (0.009)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으로 대표적인 4가지 예를 제시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항목이다. 우선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네 가지 고정관념 모두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여성은 75.9%로 높았지만 남성은 57.8%에 불과해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지만, 10대와 20대 청년층, 그리고 50대 이상 장노년 층에서 이러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세대 별로 여성 고정관념의 양상이 다르고, 또 의외로 청년층과 장노년층이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 14] [그림] 아래 그림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표 IV-27> 문항 14.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 14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역무원 신고	1583	760	849	452	448	369	225	2343
	62.6%	51.1%	54.5%	61.1%	61.5%	60.0%	59.8%	58.3%
찍힌 사람 조심하라고 이야기	255	164	138	78	84	68	51	419
	10.1%	11.0%	8.9%	10.5%	11.5%	11.1%	13.6%	10.4%
찍은 사람에게 당부	472	425	477	135	134	95	56	897
	18.7%	28.6%	30.6%	18.2%	18.4%	15.4%	14.9%	22.3%
무시	220	138	94	75	62	83	44	358
	8.7%	9.3%	6.0%	10.1%	8.5%	13.5%	11.7%	8.9%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63.569***(0.000)		129.409***(0.000)					

최근 한국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된 이른바 “몰래카메라(비동의 영상촬영 및 배포)”를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지하철에서 몰래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행동을 목격하게 되면 역무원에 신고한다(58.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찍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22.3%로 찍힌 사람(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는 응답(10.4%)보다 훨씬 높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겠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상 청장년층에 비해 10대들에서 신고하겠다는 응답률이 낮아진다. 한편 그냥 무시한다는 응답이 40대 이상의 장노년 층에서 높은데, 이는 이들 세대가 디지털 성폭력이나 이른바 ‘몰카’ 문제에 대한 관심도나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15] [그림] 다음 스마트폰 메시지 중, 서로의 인권을 잘 존중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대화일까요?

<표 IV-28> 문항 15. 성별 연령별 응답 차이(일반인)

문 15	성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	
1	844	502	746	166	138	166	130	1346
	33.4%	33.8%	47.9%	22.4%	19.0%	27.0%	34.6%	33.5%
2	63	76	67	16	13	27	16	139
	2.50%	5.10%	4.30%	2.20%	1.80%	4.4%	4.3%	3.5%
3	89	133	89	30	46	37	20	222
	3.5%	8.9%	5.7%	4.1%	6.3%	6.0%	5.3%	5.5%
모두	106	86	63	28	39	37	25	192
	4.2%	5.8%	4.0%	3.8%	5.4%	6.0%	6.6%	4.8%
없다	1428	690	593	500	492	348	185	2118
	56.4%	46.4%	38.1%	67.6%	67.6%	56.6%	49.2%	52.7%
계	2530	1487	1558	740	728	615	376	4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² (p)	91.419*** (0.000)		332.196*** (0.000)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생활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갑질, 인권침해를 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항목이다. 보기로 제시된 행동들이 모두 인권침해라는 적극적 인식은 전체 응답자 중 52.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메신저를 통한 인권침해를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 최근 단톡방 등을 통한 성폭력과 2차 피해 발생 등 인권침해 문제에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10대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메신저를 통한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20대와 30대는 제시된 4가지 메시지가 모두 인권침해라는 응답이 67.6%에 이르지만 10대의 경우는 38.1%에 불과하다. 10대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2)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 총점 및 영역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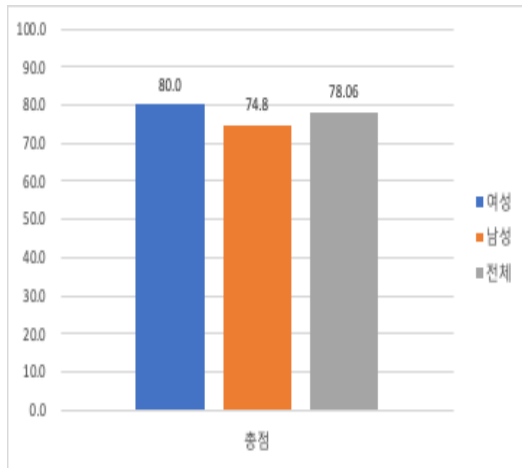
15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한 일반 이용자들의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는 총점(100점 만점)과 각 영역별(문화다양성/ 인권의식), 요인별(인지/ 정서/ 행동)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한다. 성별, 연령별 평균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감수성을 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표 IV-29>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 총점, 영역별 및 요인별 점수 비교 (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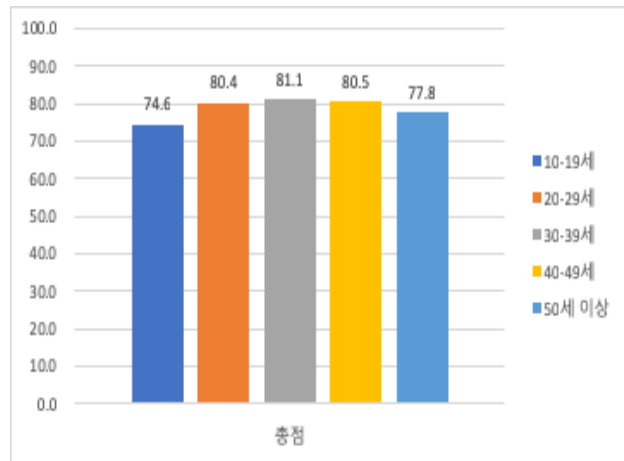
온라인 조사 참여자 (일반인)			성별		연령대별				
			여자	남자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100점)	Mean		78.0	74.8	74.6	80.4	81.1	80.5	77.8
	SD		15.93	18.33	17.42	16.48	16.28	16.27	16.8
	T/ F		9.458*** (0.000)		29.105*** (0.000)				
영역별	문화다양성 (50점)	Mean	40.3	39.4	39.8	40.1	40.2	40.4	39.6
		SD	39.42	8.98	8.86	8.23	8.1	8.04	8.77
		T/ F	3.32** (0.001)		0.804 (0.522)				
	인권의식 (50점)	Mean	39.7	35.4	34.8	40.3	41.0	40.1	38.2
		SD	10.16	11.71	11.03	10.36	10.31	10.40	10.45
		T/ F	12.208*** (0.000)		63.807*** (0.000)				
요인별	인지 (42.5)	Mean	32.1	28.7	28.0	33.1	33.1	32.7	31.3
		SD	9.09	10.51	9.83	9.02	9.33	9.46	9.27
		T/ F	10.766*** (0.000)		62.99*** (0.000)				
	정서 (37.5)	Mean	30.4	29.1	29.3	30.3	30.6	30.6	29.6
		SD	5.94	6.52	6.28	6.19	6.02	5.91	6.34
		T/ F	6.433*** (0.000)		9.84*** (0.000)				
	행동 (20)	Mean	17.4	16.9	17.4	17.0	17.3	17.2	16.93
		SD	3.06	3.69	3.43	3.34	2.99	3.25	3.47
		T/ F	4.863*** (0.000)		2.632* (0.033)				

가.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총점 비교: 성별, 연령별

전체 총점은 100점 만점에 78.06점이며, 성별로 보면 여성이 78점, 남성이 74.8점으로 여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지수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0대 - 20대 - 50대 이상 - 10대의 순이다. 10대의 문화다양성 지수 총점이 가장 낮은 점이 눈에 띈다.



[그림 IV-12] 총점 :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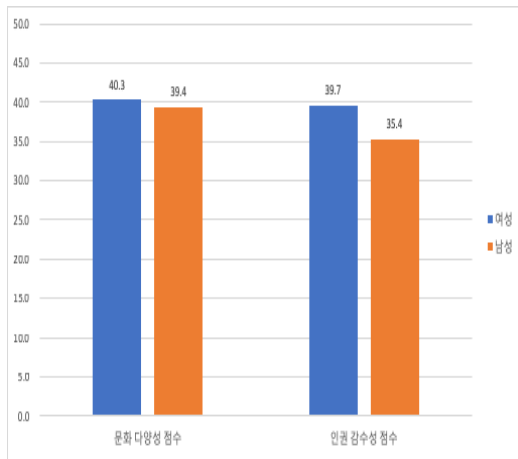


[그림 IV-13] 총점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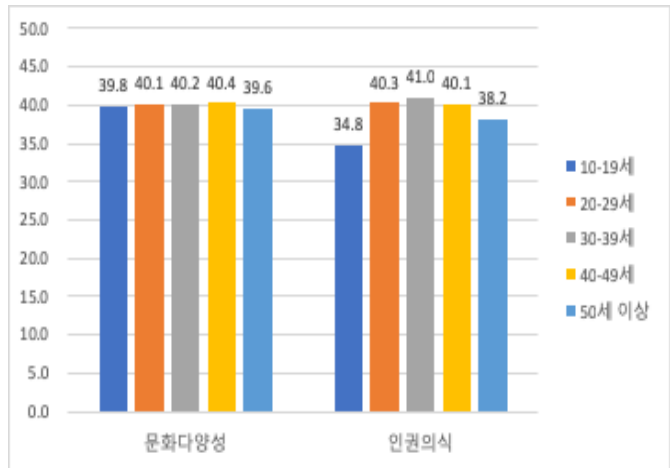
나. 영역별 점수 비교 : 성별, 연령별

전체 점수를 문화다양성, 인권의식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우선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두 영역 모두에서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높는데, 특히 인권의식 점수에서 성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다. 인권 영역에는 성차별이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 차이가 더 벌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연령별로는 문화다양성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권의식 영역점수에서는 30대가 가장 높고 20대와 40대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50세 이상 그리고 10대에서 확연하게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 전통적인 성별 관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면, 10대의 낮은 인권의식은 어떤 요인을 설명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분석,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그림 IV-14] 영역별 점수 :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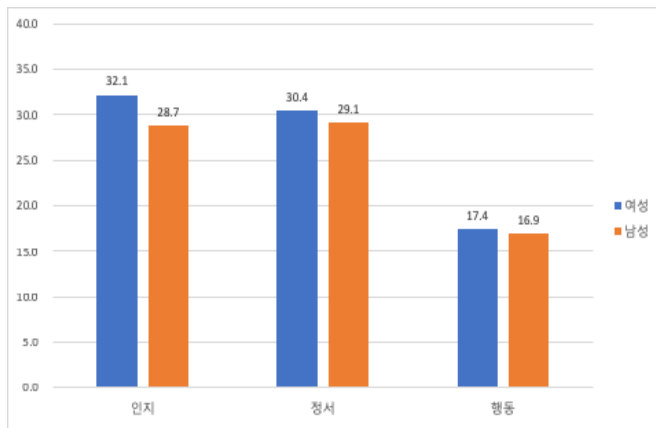


[그림 IV-15] 영역별 점수 : 연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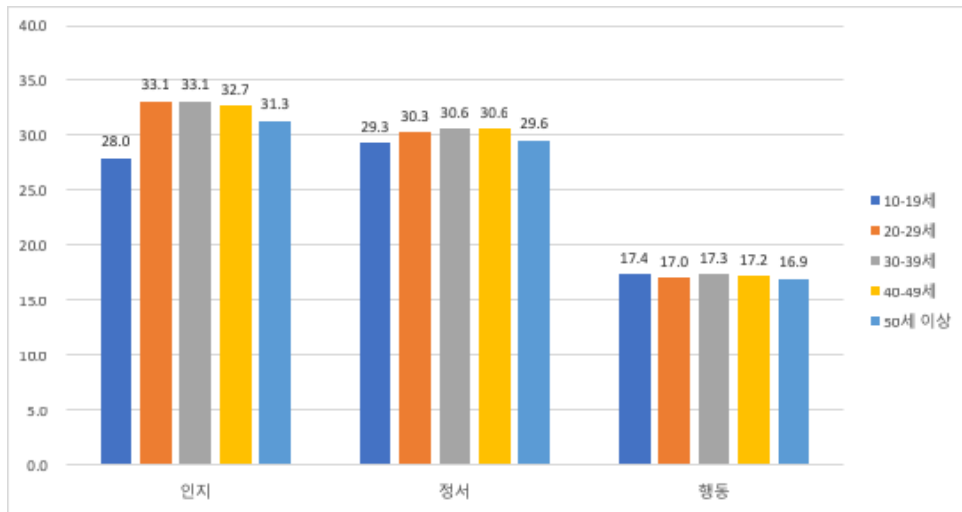
다. 요인별 점수 비교 : 성별, 연령별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개념적 요인, 즉 인지, 정서, 행동영역의 점수를 집단별로 비교해 본 결과가 아래 그림이다. 먼저 성별로는 세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여성의 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남성보다 높다. 차이가 가장 뚜렷한 요인은 인지, 즉 문화다양성과 소수자 인권, 성평등 문제 등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 자신이 성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이나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연령별로도 세 가지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역시 인지 점수였는데, 20대, 30대, 40대의 인지 요인 점수가 비슷한 반면 50대는 이보다 낮으며, 특히 10대의 인지 수준이 확연히 낮은 점이 주목된다. 활발한 성장기에 사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시기에 있는 10대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소수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인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정서 요인점수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된다. 즉 20, 30, 40대의 정서 점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50대 이상과 10대 응답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이다. 이에 비해 행동 요인에서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연령별로 점수에 큰 차이가 없는데, 10대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30대와 40대가 비슷한 수준이다. 행동요인 점수가 가장 낮은 연령 집단은 50대 이상 장년층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16] 요인별 점수 : 성별 비교



[그림 IV-17] 요인별 점수 : 연령별 비교

V. 문화다양성 교사 연수 프로그램⁶⁾ 참여 교사 설문조사

1. 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도 문항에서 참여 교사 모두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과 관련된 만족도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한 경우에도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문화다양성 교육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는 문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척도점수 4.90). 또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한 “올리볼리 동화가 교육 자료로 도움이 된다”는데 대한 만족도는 4.85, 다른 교사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4.81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V-1>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도 점수 (5점척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	
매우 만족	52	88.1	4.88 (.326)
만족	7	11.9	
보통	0		
불만족	0		
매우 불만족	0		
합계	59	100.0	

<표 V-2>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연수 만족도

	문화다양성 교육 이해하는데 유익		다른 교사에게 연수 추천 의향		올리볼리 동화가 교육 자료로 도움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53	89.8	50	84.7	51	86.4
그렇다	6	10.2	7	11.9	7	11.9
보통이다			2	3.4	1	1.7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59	100.0	59	100.0	59	100.0

6) 다음세대재단에서는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을 주제로 하는 15차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8년 서울, 부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 5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표 V-3>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연수만족도 : 평균 점수 (5점 척도)

	문화다양성 교육 이해하는데 유익		다른 교사에 연수 추천 의향		올리볼리 동화가 교육 자료로 도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 점수 (5점 척도)	4.90	.305	4.81	.473	4.85	.407

2. 문화다양성 가치·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

교사들에게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나 수용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이 용인되고 있는가에 관해 긍정적인 응답률은 18.7%은, 부정적인 응답률은 30.6%, 중립적인 응답은 50.8% 였다. 즉, 아직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이 잘 용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인식이다. 척도 평균점수(2.93)로 보더라도 중립보다 부정적인 의견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표 V-4>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확산되는 중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4	6.8	2	3.4	8	13.6
그렇다	7	11.9	5	8.5	13	22.0
보통이다	30	50.8	13	22.0	26	44.1
그렇지 않다	17	28.8	38	64.4	11	18.6
전혀 그렇지 않다	1	1.7	1	1.7	1	1.7
합계	59	100.0	59	100.0	59	100.0

<표 V-5>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 척도 점수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확산되는 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점수 (5점 척도)	2.93	.868	2.47	.817	3.27	.980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교사들의 응답은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긍정적인 응답은 11.9%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즉 차이가 차별로 이어진다는 의견)은 66.1%로 훨씬 높다. 중립적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척도 점수(2.47) 또한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른바 성숙한 다문화 사회,

즉 차이를 존중하며 차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직 한국 사회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확산되는 중”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교사는 33.6%였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20.5%)보다 다소 높다. 중립적인 응답은 44.1%였다. 연수참여 교사들은 현재 문화다양성 가치가 확산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응답(척도점수 3.27)을 하고 있다.

연수 참여 후 문화다양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세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연수 후에 문화다양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98.3%로 매우 높다. 문화다양성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특히 학교 교육에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만만가지로 매우 높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화다양성이 학교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대해 81.4%가 “매우 그렇다”는 강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교사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이 필요하지만 특히 학교 교육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셈이다.

<표 V-6> 연수참여 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문화적 다양성에 더욱 관심 갖게 됨		문화다양성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함		문화다양성은 학교교육에 꼭 필요함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44	74.6	45	76.3	48	81.4
그렇다	14	23.7	13	22.0	10	16.9
보통이다	1	1.7	1	1.7	1	1.7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59	100.0	59	100.0	59	100.0

<표 V-7> 연수참여 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척도점수)

	문화적 다양성에 더욱 관심 갖게 됨		문화다양성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함		문화다양성은 학교교육에 꼭 필요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점수 (5점 척도)	4.73	.485	4.75	.477	4.76	.468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사들은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을 용인하는 포용성 내지 성숙함이 아직 불충분하고 또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문화다양성 가치가 한국 사회에 확산되는 과정에 있다

는 점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교사들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이 한국사회에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학교 교육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3.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기대 및 의향

문화다양성 교육의 효과, 한계, 문화다양성 교육을 직접 진행할 의향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사들은 문화다양성 교육이 학생과의 소통 및 창의성 증진(척도점수 4.78), 학생들이 타인 존중과 인권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4.81)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문화다양성 교육은 곧 공존과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른 한편 학교의 여건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연수참여 교사의 71.1%가 이처럼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고, 척도 점수(3.69)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교사들의 대다수가 올리볼리 동화를 활용하고 또 문화다양성 교육을 직접 진행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현실적 한계는 더욱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V-8>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기대, 향후 교육 의향

	교사-학생 소통하며 창의성 키우는데 도움		학교 여건 상 다양성 교육에 아직 한계		올리볼리 동화 활용하여 수업할 의향		문화다양성 교육을 직접 진행할 의향		학생들이 타인 존중/인권 배우는 데 도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48	81.4	12	20.3	42	71.2	35	59.3	48	81.4
그렇다	10	16.9	30	50.8	14	23.7	22	37.3	11	18.6
보통이다			6	10.2	3	5.1	2	3.4		
그렇지 않다	1	1.7	9	15.3						
전혀 그렇지 않다			2	3.4						
합계	59	100.0	59	100.0	59	100.0	59	100.0	59	100.0

<표 V-9>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기대, 향후 교육 의향 : 척도 점수

	교사-학생 소통하며 창의성 키우는데 도움		학교 여건 상 다양성 교육에 아직 한계		올리볼리 동화 활용하여 수업할 의향		문화다양성 교육을 직접 진행할 의향		학생들이 타인 존중/인권 배우는 데 도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점수 (5점 척도)	4.78	.527	3.69	1.071	4.66	.576	4.56	.565	4.81	.393

VI. 결론

1. 교육 프로그램 효과 분석 (분석결과 요약)

(1) 참여집단/ 비교집단 차이 분석

올리볼리 동화 콘텐츠를 이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육 전과 교육 후 동일한 설문지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태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참여집단(111명)과 비교집단(107명)은 같은 학교의 동일 학년 재학생으로 구성하였으며,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측정된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온라인 조사와 동일), 그리고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등 2종이다.

가.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설문지 분석⁷⁾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설문조사 결과 참여집단 학생들은 교육이 실시된 이후 비교집단에 비해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 문항별 교차표 분석 결과 전체 10개 문항 중 3개 문항에서 교육에 노출된 참여집단 학생들의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문화다양성을 더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참여집단의 긍정적인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참여집단 학생들의 점수(100점 만점)는 1차 조사 72.37점에서 2차 조사 79.50점으로 7.13점이 증가하였다. 반면 비교집단 학생들은 1차 조사 70.58점, 2차 조사 73.56점으로 2.98점 증가하는데 그쳤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2개월 간격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교육 효과로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는 2개 영역(문화다양성, 인권의식), 그리고 3가지 요인(인지, 정서,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집단의 문화다양성 영역점수(50점 만점)는 1차 조사 38.0점에서 2차 조사 40.49점으로 다소 올라갔다. 비교집단의 경우 1차 조사 35.77점, 2차 조사 35.99점으로 나타나 문화다양성 영역 점수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올리볼리 동화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은 외국인 친구에 대한 거리감을 낮추고 문화다양성을 높이며, 지구촌 어린이에 대한 관심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권의식 영역점수(50점 만점)는 참여집단이 1차 조사 34.37점에서 2차 조사 39.01점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비교집단(1차 34.81점 → 2차 37.57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인권의식 보다는 문화다양

7) 자세한 표와 그림은 2장 내용을 참조 (표 II-21, 그림 II-11~13).

성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인지, 정서, 행동의 3가지 요인별로 살펴보면, 참여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정서와 행동 요인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참여집단 학생들의 점수 변화 폭이 매우 큰 것은 아니지만, 2차 조사에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점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표 II-21, 그림 II-13 참조). 즉,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다양성 관련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도록 만드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타 문화에 대한 공감을 높이고 거리감을 줄이는 정서적 요인, 지구촌 문제나 차별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행동 요인에서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나타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별, 학년별 태도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지수의 총 점, 영역별 점수, 요인별 점수의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았고, 이러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학년별 태도의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영역별 점수를 보면 문화다양성 영역점수는 1학년이 가장 높은 반면, 인권의식 점수는 6학년이 높다. 저학년 학생들은 외국인 친구를 친밀하게 수용하는데 거부감이 적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아직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학년 학생들은 차별이나 소수자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친구에 대한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요인별 점수에서도 학년 별 차이가 뚜렷한데, 인지 요인 점수는 6학년이 높지만, 행동 요인 점수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고학년이 될수록 지식과 정보의 습득은 늘어나지만, 나와 다른 외국인 친구를 친밀하게 받아들이거나 약자의 돕기 위한 행동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지식의 습득을 주로 강조하는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정서적 공감이나 실천적 행동 의지는 단기간에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며, 특히 고학년이 될수록 고정관념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지 분석 : 저학년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가 온라인 조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단하고 쉬운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면,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지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상세한 척도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학년별로 인지발달 단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학년용과 고학년용 설문지를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저학년 설문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 그리고 문화다양성과 인권의식을 조사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에 노출된 참여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고 문화다양성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저학년의 경우 인종·민족적 집단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인권의식에서는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에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의 사진 이미지를 제시하고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저학년 학생들이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선택한 사진은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동북아 남성이었고, 그 다음은 백인 남성 - 동남아 여성 - 흑인 여성의 순이었다.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선택한 외국인의 수(평균)를 비교해 보면, 참여집단은 1차 조사 2.36명에서 2차 조사 3.02명으로 늘어난 반면 비교집단은 1차 조사 2.04명에서 2차 조사 2.29명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표 III-2). 또한 교육에 노출된 참여집단 학생들이 더 많은 외국인 친구를 친밀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 학생들이 생일에 초대하고 싶다고 선택한 외국인 친구의 수(평균)는 1차 조사 0.95명에서 2차 조사 1.7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비교집단에서는 1차 조사 1.25명에서 2차 조사 1.24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표 III-9).

이번 조사에서는 형용사 척도를 이용하여 특정한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저학년 학생들의 인종 민족적 편견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동남아인, 백인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흑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4점 척도로 측정할 때 전체적으로 편견 점수는 3점 이하로 낮은 수준이지만, 보기에 제시된 4가지 인종·민족 집단을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위계적인 인식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지 분석 : 고학년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학년 설문지는 좀 더 복합적인 척도 문항을 사용하여 문화다양성의 다층적 차원(지식과 태도/ 공감과 행동), 형용사 척도(EPA 척도)를 이용한 인종·민족적 편견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고학년 인식조사 결과가 저학년 조사, 그리고 앞에서 분석한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결과와 상이한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인식조사 설문지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기 때문에 감수성 지수 조사에 비해 응답자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으나(고학년 111명 - 참여집단 56명, 비교집단 55명), 체계적인 척도를 적용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학년의 문화다양성 분석결과를 보면, 교육에 노출된 참여집단 학생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은 높아졌지만, 외국인에 대한 친밀감이나 공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행동 면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성평등과 성별 고정관념, 장애인 인권에 대한 태도에서도 교육에 노출된 참여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인식이 개선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저학년 인식조사에서는 교육에 노출된 참여집단이 문화다양성 지식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친밀감이 증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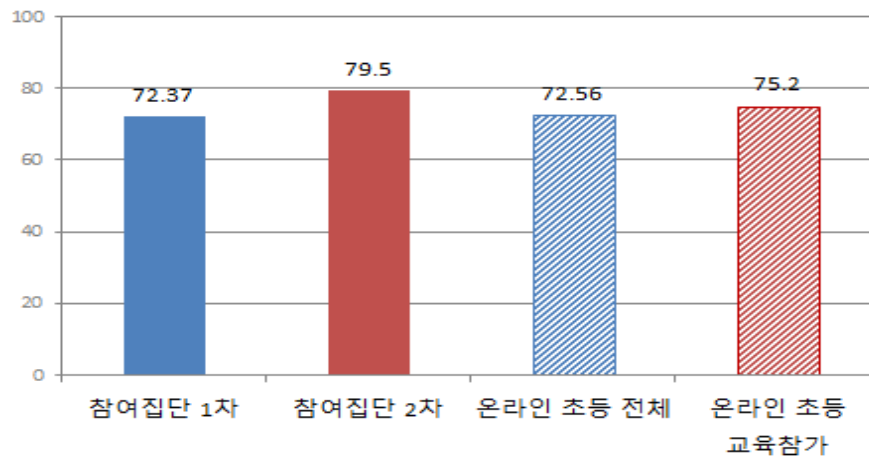
결국 고학년과 저학년의 결과가 반대 방향으로 나온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에 따른 인지발달 단계의 차이,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험의 차이 등으로 인해 문화다양성 교육의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학년 학생들이 백인, 흑인, 동남아인, 아랍인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형성하고 있는지 사진 이미지와 형용사 척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 척도 점수상으로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인종·민족적 편견을 낮추는 뚜렷한 양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저학년 조사에서 나타났던 인종·민족적 편견의 위계구조, 즉 집단별 선호도의 격차가 참여집단 2차 조사 결과에서는 상당히 약화된다는 것이다(그림 III-15).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들을 피부색, 그리고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차등하게 대우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아동기부터 이처럼 위계적인 인종·민족적 편견이 형성되고 있는지,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관심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 점수가 교육 이후 낮아지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미세하기는 하지만 고학년 조사에서 교육에 노출된 참여집단 학생들의 경우 백인과 흑인을 구분하고 동남아인을 차별하는 식의 위계적인 인식이 비교집단에 비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안이나 콘텐츠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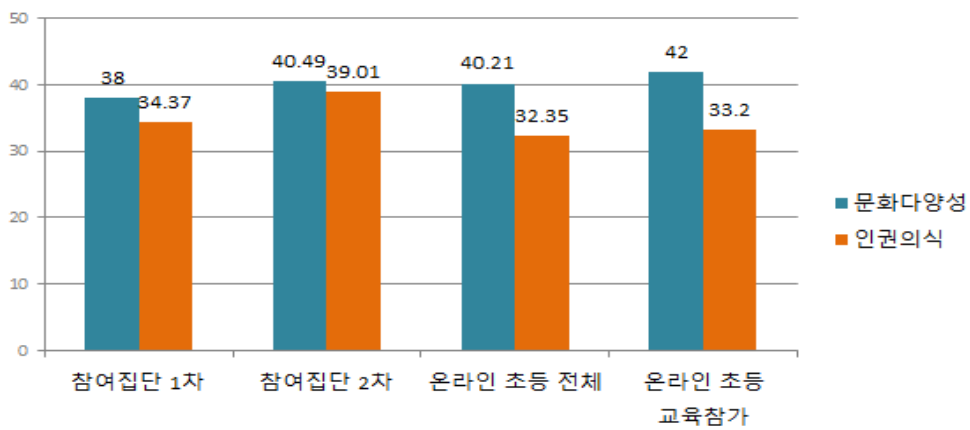
(2) 온라인 조사와 초등학교 사례조사 결과 비교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는 온라인 조사와 초등학교 사례조사에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문화다양성 감수성 점수를 기준으로 온라인 조사 참여자와 초등학교 사례조사에 참여한 집단(참여집단)을 비교해 보면 간접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중 다음세대재단에서 진행하는 단시간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점수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이며 통계적 대표성이 있는 표집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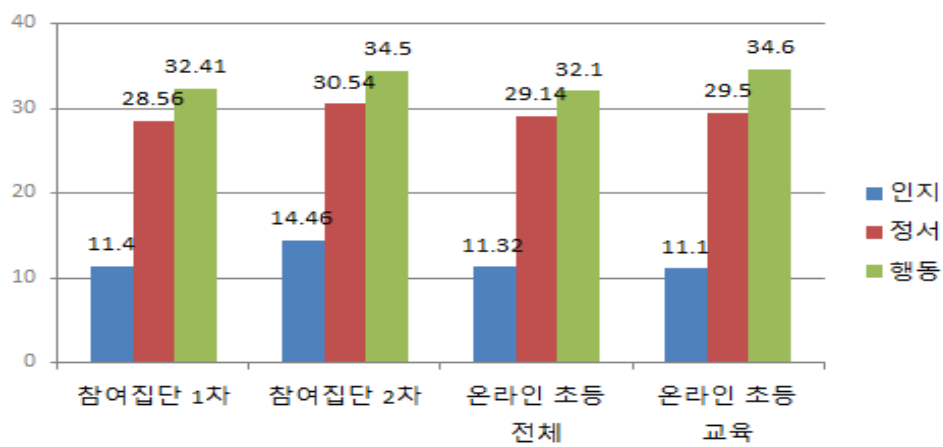
그림 V-1에서 보듯이, 참여집단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노출되기 이전인 1차 조사의 총점은 평균 72.37점이며, 이는 온라인 조사 초등학교 참가자 전체의 평균(72.56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교육이 실시된 이후 2차 조사에서 참여집단의 총점은 79.5점으로 높아져 온라인 조사 평균점수보다 향상되었다. 단시간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75.2점으로 일반 온라인 조사 전체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설문 조사가 진행되는 환경이나 시점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집단에 대한 조사와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참여집단 학생들의 점수 향상은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참여집단의 문화다양성 인식은 평균적인 또래 수준과 비슷했는데, 2개월 동안 교육 프로그램에 노출된 이후 문화 다양성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 VI-1]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총점 비교 : 참여집단/온라인 조사



[그림 VI-2]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영역별 점수 : 참여집단/ 온라인 조사



[그림 VI-3]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 요인별 점수: 참여집단/온라인 조사

문화다양성 감수성 점수를 두 가지 영역별 점수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교육을 받은 후 참여집단 학생(2차)들은 온라인 조사 참가자 전체 평균에 비해 두 영역(문화다양성, 인권의식) 모두에서 점수가 높다. 특히 인권의식 점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단시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문화다양성 점수는 참여집단 2차 조사 결과보다 오히려 더 높지만, 인권의식 점수는 상대적으로 더 낮다.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영역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교육을 받은 참여집단(2차)의 점수가 인지, 정서 영역에서 가장 높다. 참여집단 1차조사 결과는 영역별로 온라인 조사 전체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노출된 이후 2차조사에서는 확연하게 영역별 점수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지’ 영역에서 뚜렷하게 점수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올리볼리 동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2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동영역 점수는 참여집단 2차(34.5)과 온라인 조사 중 단시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34.6)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점수는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 전체 평균(32.1) 보다 높다.

이러한 비교는 정교한 통계분석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점수 비교를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의 효과를 확인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2개월 간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노출된 참여집단(2차)은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 전체에 비해 문화다양성 지수의 총점이 높고, 영역별로는 인권의식 측면에서, 요인별로는 인지적 측면에서 점수가 뚜렷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향후 개선방안 및 제언

(1)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문화다양성 교육: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의 장점 강화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최근 들어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이나 다양한 교육 콘텐츠는 많이 축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올리블리 동화 콘텐츠는 시각적 이미지와 새로운 내용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학생들에서 교육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초등학교 사례조사 결과 저학년 학생들은 외국인 친구에 대한 친밀감, 정서적 공감, 지구촌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돕기 위한 실천적 행동 면에서 고학년보다 더 뚜렷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인지발달 수준은 고학년에 비해 낮지만, 공감과 행동에 있어서는 저학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다양성 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리블리 동화 콘텐츠는 일찍 시작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그리고 정서적 공감과 실천적 행동의지를 강화하는 교육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학년별 인지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의 다변화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교육의 효과가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상이한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문화다양성 감수성 지수의 영역별 요인별 점수 변화를 보면, 저학년은 인권의식보다는 문화다양성 의식이 높아지며, 지식의 습득보다는 공감과 행동에서 태도 변화가 뚜렷하다. 반면 고학년은 인권의식은 높아지지만 문화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다지 확대되지 않으며, 지식은 습득하지만 공감과 행동 면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일찍 시작될 때 개입의 효과도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학년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에 이르면 동질성에 기초한 집단 정체성, 경쟁과 능력을 중시하는 문화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차이나 다름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엿보인다. 10대로 접어드는 초등 고학년 연령대에는 인터넷, 유튜브, SNS 등 복합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편향적인 콘텐츠와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고정관념이나 자기확증적 편향성이 강화될수록 문화다양성 교육의 효과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사회적 편견에 서서히 동화되어 가는 고학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화적 접근,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의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문화다양성과 인권 의식 교육의 시너지 효과 강화

문화다양성은 단지 외국의 문화나 외국 사람에 대한 관심,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다양한 취향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류(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존중과 공존은 문화다양성의 핵심 가치이다. 즉 차별에 반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는 문화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적 태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 의식 영역에서 초등학생의 학년별, 성별에 따른 태도 차이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연령부터 성별에 따라 성평등 인식이 분화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성별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의 성평등 인식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성이나 소수자를 ‘차이를 가진 시민’으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할 때, 나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낯선 사람을 수용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다양성 교육이 인권 의식 또한 함께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문화다양성 교육의 ‘나비효과’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

문화다양성 교육은 나와 주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좋은 사회를 지향한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다음세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에 초등학생 2,799명, 1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일반인 4,017명이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일반인 조사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문화다양성 감수성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10대의 문화다양성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점이 눈에 띈다.

올리볼리 동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다른 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친밀감과 공감의 잠재력은 줄어들고 있다. 이들이 성장하여 10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문화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 초등학교 단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성별 인식 차이가 청소년기로 진입하면서 더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찰과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올리볼리 동화 콘텐츠 교육을 받고 이번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 참여집단은 111명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교육 경험은 앞으로 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명시적 암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 시절의 좋은 경험이 지속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를

기대한다면, 온라인 조사에서 확인된 10대의 낮은 문화다양성 인식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동기 문화다양성 교육의 ‘나비효과’가 성인기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다양성 콘텐츠의 확산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청된다.

(5) 문화다양성 교육의 제도적 확장과 교사의 인식 변화

문화다양성 교육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교육, 즉 학교 현장의 변화가 절실하다. 다음세대재단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라는 양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연수참여 교사들은 올리볼리 동화컨텐츠를 비롯한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연수 내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스스로 교육을 진행할 의향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교사들이 이처럼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연수를 환영하는 이유는 교육 현장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사들은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을 용인하는 포용성 내지 성숙함이 아직 불충분하고 또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교의 여건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어 교육 현장을 바꾸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결국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문화다양성과 인권 의식을 교실 안으로, 그리고 제도 교육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면 문화다양성 교육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인식 변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다음세대재단 Diversity Korea 프로그램은 큰 의미가 있으며, 교사의 변화가 교육현장의 변화, 나아가 미래 세계시민들의 양성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Perkins, Donna M. & Carolyn J. Merbert. 2005. "EFFICACY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A Domain-Specific Approa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6 No. 4, July 2005 497-512.
- PISA. 2018. "Preparing Our Youth for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 : The OECD PISA global competence framework". OECD. (<http://www.oecd.org/pisa/Handbook-PISA-2018-Global-Competence.pdf>)
- 고아라, 2005, <수도권 초등학생의 인종편견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근·이기혜. 2016.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적 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교육학 연구> 22 (4): 311-335.
- 김동한·이윤정. 2015. "아시아 전통놀이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논총> 35(1): 73-95
- 김미진·정옥분. 2010.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7(4) : 69-88.
- 민무숙·안상수·김이선·선보영·이명진. 2012.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여성가족부.
-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3.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 윤선영·류혜숙. 2008. "유아가 인식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6): 31-57.
- 이수재·채진영. 2015.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의 차이와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6 (6): 23-38.
- 이하령. 2007. 「인종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연구: 고정관념, 감정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정수. 2015. 「다문화 쟁점 활용 사회과 수업이 다문화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문성·원순자·이바름. 2017. "비판적 사고가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9(4): 197-217.
- 정성욱, 2012. "비빈곤층 초등학생의 빈곤 인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21(3): 285-302.
- 정수정·김영식, 2015. "민속표현 활동을 적용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수용태도 및 인식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3): 115-126.
- 정지숙. 2017. <초등학교 고학년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조광미·안병환. 2016. "초등학생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9(2): 143-160.
- 현은자·박성연. 2003.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종 및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 문화교육 연구> 3(2): 101-124
- 황정미·이명진 외,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여성정책연구원.

<부록>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지

학교명	학년/ 반	날짜 (PRE/POST)	ID	담당교사 확인
	학년 반	월 일		
	참여 집단 ()	1차 조사 PRE ()		
	비교 집단 ()	2차 조사 POST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2018 : 저학년용 설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답변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읽고,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세대재단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황정미 연구원

1.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음 중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번호를 모두 골라 ○표 하세요.



①



②



③



④

2. 생일파티에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아래에서 모두 골라 ○표 하세요.

①



②



③



④



⑤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없다

※ 사진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단어에 ○ 하세요.

... 아주 깨끗하다 - 깨끗하다 - 깨끗하지 않다 - 아주 깨끗하지 않다

예) ... 아주 똑똑하다 - 똑똑하다 - 똑똑하지 않다 - 아주 똑똑하지 않다

3.



- | | ① | ② | ③ | ④ |
|----------------|--------------|-----------------|----------------|---|
| 1) 매우 깨끗하다 ... | ... 깨끗하다 ... | ... 깨끗하지 않다 ... | ... 전혀 깨끗하지 않다 | |
| 2) 매우 똑똑하다 ... | ... 똑똑하다 ... | ... 똑똑하지 않다 ... | ... 전혀 똑똑하지 않다 | |
| 3) 매우 친절하다 ... | ... 친절하다 ... | ... 친절하지 않다 ... | ... 전혀 친절하지 않다 | |
| 4) 매우 부자이다 ... | ... 부자이다 ... | ... 가난하다 ... | ... 매우 가난하다 | |

4.



- | | ① | ② | ③ | ④ |
|----------------|--------------|-----------------|----------------|---|
| 1) 매우 깨끗하다 ... | ... 깨끗하다 ... | ... 깨끗하지 않다 ... | ... 전혀 깨끗하지 않다 | |
| 2) 매우 똑똑하다 ... | ... 똑똑하다 ... | ... 똑똑하지 않다 ... | ... 전혀 똑똑하지 않다 | |
| 3) 매우 친절하다 ... | ... 친절하다 ... | ... 친절하지 않다 ... | ... 전혀 친절하지 않다 | |
| 4) 매우 부자이다 ... | ... 부자이다 ... | ... 가난하다 ... | ... 매우 가난하다 | |

5.



- | | ① | ② | ③ | ④ |
|----------------|--------------|-----------------|----------------|---|
| 1) 매우 깨끗하다 ... | ... 깨끗하다 ... | ... 깨끗하지 않다 ... | ... 전혀 깨끗하지 않다 | |
| 2) 매우 똑똑하다 ... | ... 똑똑하다 ... | ... 똑똑하지 않다 ... | ... 전혀 똑똑하지 않다 | |
| 3) 매우 친절하다 ... | ... 친절하다 ... | ... 친절하지 않다 ... | ... 전혀 친절하지 않다 | |
| 4) 매우 부자이다 ... | ... 부자이다 ... | ... 가난하다 ... | ... 매우 가난하다 | |

6.



- | | ① | ② | ③ | ④ |
|----------------|--------------|-----------------|----------------|---|
| 1) 매우 깨끗하다 ... | ... 깨끗하다 ... | ... 깨끗하지 않다 ... | ... 전혀 깨끗하지 않다 | |
| 2) 매우 똑똑하다 ... | ... 똑똑하다 ... | ... 똑똑하지 않다 ... | ... 전혀 똑똑하지 않다 | |
| 3) 매우 친절하다 ... | ... 친절하다 ... | ... 친절하지 않다 ... | ... 전혀 친절하지 않다 | |
| 4) 매우 부자이다 ... | ... 부자이다 ... | ... 가난하다 ... | ... 매우 가난하다 | |

※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7. 나는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학교에서 다른 나라의 명절, 기념일, 축제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학교에 전학 오는 것이 좋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0.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가 우리 반 회장이 되면 좋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1.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와 단짝 친구가 되고 싶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2. 요리는 여자가 하는 것이 좋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3. 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4. 장애인 친구와 우리 반 교실에 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5. 힘이 약한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놀리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 ① 나도 같이 놀린다.
- ② 모른 척 한다.
- ③ 선생님에게 이른다.
- ④ 놀리지 말라고 한다.

※ 마지막으로, 아래 질문에 답해 주세요.

- 1) 지금 몇 학년 몇 반 몇 번 인가요? : () 학년 () 반 () 번
- 2)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 3) 다른 나라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유치원 때 이후)
① 있다 ② 없다
- 4) 학교나 동네에서 외국인/다문화 토래 친구를 만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학교명				학년/ 반		날짜 (PRE/POST)		ID				담당교사 확인
				학년	반	월	일					
				참여 집단 ()		1차 조사 PRE ()						
				비교 집단 ()		2차 조사 POST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2018 : 고학년용 설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답변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읽고,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세대재단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황정미 연구원

※ 아래 내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곳(번호)에 ○표 해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나라의 명절, 기념일, 축제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3.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의 문화보다 더 우수하다.	1	2	3	4	5
4. 다양한 나라의 문화는 저마다 소중하기 때문에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1	2	3	4	5
5. 피부색이 다른 사람은 한국인이 될 수 없다.	1	2	3	4	5

※ 아래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신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해주세요.

6.



※ 나는 위 사진의 사람들을 보면는 느낌이 든다.

	(1) 매우	(2) 조금	(3) 보통	(4) 조금	(5) 매우	
1) 깨끗하다	... 1 ...	... 2 ...	... 3 ...	... 4 ...	... 5 ...	깨끗하지 않다
2) 똑똑하다	... 1 ...	... 2 ...	... 3 ...	... 4 ...	... 5 ...	똑똑하지 않다
3) 친절하다	... 1 ...	... 2 ...	... 3 ...	... 4 ...	... 5 ...	친절하지 않다
4) 부자이다	... 1 ...	... 2 ...	... 3 ...	... 4 ...	... 5 ...	가난하다
5) 평화적이다	... 1 ...	... 2 ...	... 3 ...	... 4 ...	... 5 ...	폭력적이다

6-2. 만약 길에서 사진 속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 인가요?

- ①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②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③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④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7.



※ 나는 위 사진의 사람들을 보면는 느낌이 든다.

	(1) 매우	(2) 조금	(3) 보통	(4) 조금	(5) 매우	
1) 깨끗하다	... 1 ...	... 2 ...	... 3 ...	... 4 ...	... 5 ...	깨끗하지 않다
2) 똑똑하다	... 1 ...	... 2 ...	... 3 ...	... 4 ...	... 5 ...	똑똑하지 않다
3) 친절하다	... 1 ...	... 2 ...	... 3 ...	... 4 ...	... 5 ...	친절하지 않다
4) 부자이다	... 1 ...	... 2 ...	... 3 ...	... 4 ...	... 5 ...	가난하다
5) 평화적이다	... 1 ...	... 2 ...	... 3 ...	... 4 ...	... 5 ...	폭력적이다

7-2. 만약 길에서 사진 속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 인가요?

- ①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②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 ③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④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8.



※ 나는 위 사진의 사람들을 보면는 느낌이 든다.

	(1) 매우	(2) 조금	(3) 보통	(4) 조금	(5) 매우	
1) 깨끗하다	... 1 ...	... 2 ...	... 3 ...	... 4 ...	... 5 ...	깨끗하지 않다
2) 똑똑하다	... 1 ...	... 2 ...	... 3 ...	... 4 ...	... 5 ...	똑똑하지 않다
3) 친절하다	... 1 ...	... 2 ...	... 3 ...	... 4 ...	... 5 ...	친절하지 않다
4) 부자이다	... 1 ...	... 2 ...	... 3 ...	... 4 ...	... 5 ...	가난하다
5) 평화적이다	... 1 ...	... 2 ...	... 3 ...	... 4 ...	... 5 ...	폭력적이다

8-2. 만약 길에서 사진 속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 인가요?

- ①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②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③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④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9.



※ 나는 위 사진의 사람들을 보면는 느낌이 든다.

	(1) 매우	(2) 조금	(3) 보통	(4) 조금	(5) 매우	
1) 깨끗하다	... 1 ...	... 2 ...	... 3 ...	... 4 ...	... 5 ...	깨끗하지 않다
2) 똑똑하다	... 1 ...	... 2 ...	... 3 ...	... 4 ...	... 5 ...	똑똑하지 않다
3) 친절하다	... 1 ...	... 2 ...	... 3 ...	... 4 ...	... 5 ...	친절하지 않다
4) 부자이다	... 1 ...	... 2 ...	... 3 ...	... 4 ...	... 5 ...	가난하다
5) 평화적이다	... 1 ...	... 2 ...	... 3 ...	... 4 ...	... 5 ...	폭력적이다

9-2. 만약 길에서 사진 속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 인가요?

- ①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②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한다
 ③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④ 근처에 다가오면 피해간다

※ 아래 내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곳에 ○표 해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1	2	3	4	5
11. 내 생일에 문화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	1	2	3	4	5
12. 피부색이나 문화가 다른 친구와 단짝 친구가 되고 싶다.	1	2	3	4	5
13.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외국인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1	2	3	4	5
14. 우리 반에 다른 사람의 외모나 말투를 흉보고 놀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1	2	3	4	5
15.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기 보다는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5
16. 여자들이 축구나 야구를 하는 것은 여자답지 못하다.	1	2	3	4	5
17. 장애인 친구가 우리 교실에 있다면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다.	1	2	3	4	5
18. 요리는 여자가 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19. 남자라면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1	2	3	4	5

